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불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월 1일 목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7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화합하는 자린고비 살아남는다"

교계 신년사 '무소유' 강조 근검절약·자조자립·협동 등 정신무장 절실

한세대에 걸쳐 앞만 보고 달려온 고도성장의 신화가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위기로 뒤바뀐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정부·기업·국민이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똘똘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새해에는 환율·금리 폭등, 기업도산, 초긴축예산 등으로 물가폭등, 실업사태, 경기침체가 일거에 몰아닥치는 준(準)공황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각 부문은 물론 가계도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허리를 졸라 절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대중 차기대통령도 "기가 막힌 현실로 새벽부터 밤까지 경제만 생각한다"고 말하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종단 지도자들은 9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살길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소유 정신의 실천에 있음을 역설하고 올해는 전불교도가 예년과 다른 비장한 각오로 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인년 새해, 미증유의 국가적 수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근검절약 자조자립 합심협력의 정신과 그 실천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봉행하지 못한 불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며 불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지혜와 자비정신을 구족한 지비원만(智悲圓滿)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천태종종정 도용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난을 꼭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고 "6·25의 폐허 위에 경제성장을 창출하였던 민족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다시금 발휘하자"고 호소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무엇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근검절약과 내핍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생존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각오와 의지를 재다짐하는 원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사찰과 교계단체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소비성 행사를 지양키로 하는 등 경제살리기 지침을 마련해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백양사 월정사 금산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들과 생명나눔실천회, 각 사암연합회는 최근 잇따라 교구종회와 경제살리기 법회를 열어 절약생활화운동을 실천키로 했다.

〈관련기사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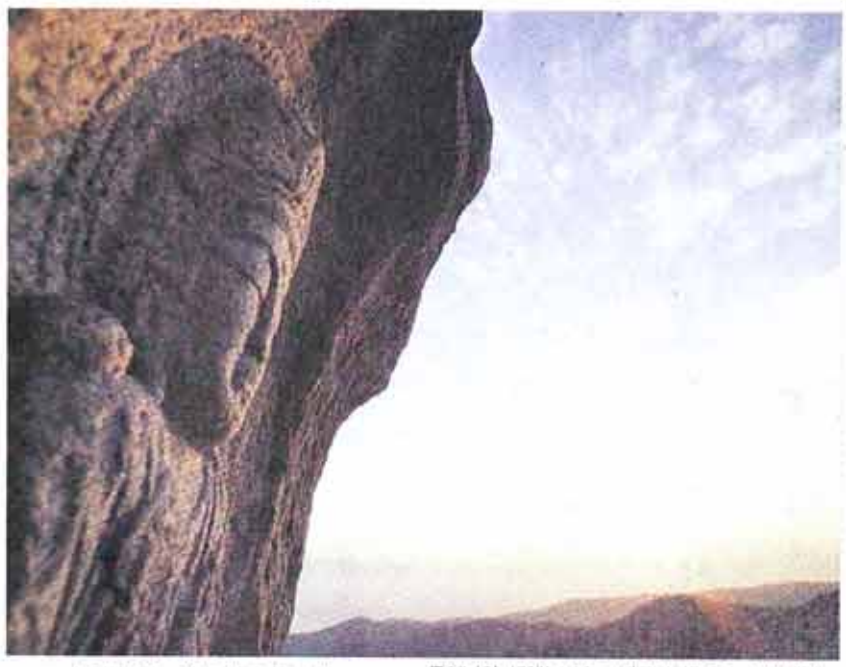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실제 물가상승과 세금증가, 임금동결로 가계의 실질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으며, 체면치레를 위해 부풀려진 각종 경조사비의 거품을 이 기회에 빼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맥주와 담배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1년에 4조4백억원, 승용차를 출·퇴근 때 2인 1조로 함께 타면 1조6천억원이 절약된다.

정부도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자식 전광판, 네온사인, 옥외 조명기구 등은 해가 지고난 뒤부터 자정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조명은 일반 사무실의 적정 조명인 3백룩스 이내로 억제된다.

오뚜기식품은 사무실 집기를 20년 이상 쓰고 종이 뒷장까지 알뜰하게 챙겨 쓰는 자린고비 정신으로 69년 창사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 회사만의 사례일 수는 없다.

이제 불자들 각자가 교계지도자들의 호소에 화답해야 할 차례다. 남비요소를 과감하게 차단하고 단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일이라면 곧 실천에 옮겨 저축증대에 동참하고 신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불자들의 솔선수범이 요청된다.

〈정성운 기자〉



"희망의 해 떠오른다" 무인년의 새해는 어느 때보다 새롭다. 경제대란의 첩첩산맥 너머에서 온국민의 희망을 안고 떠올랐기 때문이다. 천년이 넘도록 새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경주남산의 부처님이 "고난도 희망도 네 한마음에 들어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저 찬란한 일출에 자취를 감추는 어둠을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경주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상 앞에서 고영배 기자〉

이매림·이태순씨 공동수상
본사 신행수기 공모 대상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한 제3회 신행수기 대상에 이매림씨의 '백일기도'와 이태순씨의 '자등명 법등명'이 공동 선정됐다. 〈관련기사 14·15면〉

총 1백2편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상에는 박윤희씨, 특별상에는 김연장, 조명숙, 김재화, 안금숙씨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오후2시 본사 녹수청산.

본사 사령

위촉 논설위원
성월스님(강남포교원장)
성태용교수(건국대 철학과)
〈1998년 1월 1일자〉

98 신년특집 32면 발행

새 대통령에 보내는 큰스님 법어 ❸
元旦 인터뷰 ❺ 무인년 신행캘린더 ❻
사암련 설문 ❼ 세계 불교사이트 설문 ❽
시방세계-도량석과 아침예불 ⓫
수행한담-월하스님 ⓬⓭ 호랑이와 불교 ㉔
별지특집 21세기와 禪
프롤로그 ㉕ 세계의 선불교 ㉖
대담 '21세기 불교 왜 선인가' ㉗
선의 실제와 효과 ㉘㉙ 선문화 ㉛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14·15면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느 때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정신이 절실하다. 현대불교신문은 98년 한해동안 '1인(人) 1일(日) 1실천'을 연중캠페인으로 벌여나가고자 한다. 작은 실천이 사회의 큰 기쁨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여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서울 이태원에서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는 김형은보살(53·성주양신도)은 옷가지 신발 양말 장갑 등을 모아서 매년 4차례 관악산 성주암(주지 총연)에 전달하고 있다. 10월 8일에도 의류 신발등 생활용품 53박스 분량을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에 보내 북한동포 겨울나기 옷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금은 설날을 앞두고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물품들을 가게 한켠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 김보살은 자신이 보낸 물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른다. 다만 이태원 주위상가와 집들에서 한장 한장 보내준 의류등 물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연말이나 초파일, 명절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성주암에 보낼 뿐이다.



김보살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주위상가 사람들이 재고로 남는 물건이나 가게정리시 보내준 물품들을 성당에 보냈다. 그러다 4년전부터 성주암이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실시하면서 사찰에 보내게 됐다.

이런 김보살의 선행이 이태원상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차츰 물품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이태원 상가 뿐아니라 주변 가정집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요즘은 한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3백여 박스나 전달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들어온 물품을 저장하는 것만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그저 누군가 할일을 하는 것이니 제발 저를 들추지 마세요."

김형은보살의 말에서 자비행의 향기가 풍겨났다.

〈김원우 기자〉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해인골프장 적법 판결 23면

신정연휴로 7일字신문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으로 어렵고 눈물겨운 국난의 시기를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정성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합장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ttp://www.hico.co.kr

신년사

한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허공에 점을 찍듯 처음도 끝도 없는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 구획을 정하는 기점들. 그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고 분명한 기점인 한 해가 바뀌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기점들을 통해 부처를 이루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우리의 영원한 서원을 구체적 상황에 맞춰 조율하여, 공허한 관념성에 매달리는 나태를 벗고 새롭게 떨쳐 일어서려는 각오를 다진다.

무인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 앞에 놓인 현실은 IMF 시대라는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온 국민이 분노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때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큰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불굴의 힘으로 비탄과 좌절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 자세에 설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조그만 시련이요, 미래에 있을 영광에 바쳐질 빛나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눈앞의 터무니없는 과보를 초래한 잘못된 업이 있었다면, 일제 30년의 지배와 동족상잔의 폐허 위에서 찬란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뜨거운 동력도 우리에겐 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 큰 역사적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아래서 이번의 어려움을 대처하며, 인과를 바르게 가리는 눈을 떠 한번의 사태로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허무주의적 관점을 극복하는데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 함께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선행적인 요건이 있다. 우선은 당면한 정부 당국부터 당면한 어려움을 은폐함 없이 솔직하게 국민 앞에 드러낼 것이며, 국민들도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심각하며, 혹 당장의 국가 부도는 면할지 몰라도 외국의 자본들은 우리의 위기를 빌미로 자기들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우리 경제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안팎의 위협에 대처하여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하기에 허상에 매달린 당장의 안심보다는 밑바닥을 본 뒤에 다시금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일치된 힘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청산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 최근세사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올바른 청산이 없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 국민의 하나됨을 막는 갈등요소로 드러나 우리의 힘찬 전진을 뒤에서 잡아끌고 했던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한다면, 이는 다시 지울 수 없는 업이 되어 앞날에 더욱 큰 어두움을 드리울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금 금전과 물질만을 숭상하는 사고를 증폭시키는 것을 방치한다거나, 계층간의 갈등을 외면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라는 식은 당연히 배제해야 하겠지만, 이상적인 미래상에 비추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모순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거기에 모든 국민이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모든 국민이 이번의 어려움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큰 희망에 함께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닌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해결에서부터 분단상황이라는 민족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는 쪽으로, 경제문제에 매몰되었던 단계를 벗어나 전통과 현실을 조화시킨 참다운 문화를 이룩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의 성급했던 자만심과, 내부적인 모순을 소홀히 다룬 업이 잠시 그 과정을 뒤로 잡아끄는 힘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던 그 업들을 청산하고, 순조로운 역사의 흐름에 온 국민의 힘이 모아지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온 국민을 커다란 서원의 힘으로 움직이게 함에 다름 아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괴로움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 있다. 그것의 해결이 불국토 건설의 큰 서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인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사회 구현하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일체중생에 사랑 회향하는 해"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가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인연 속에 있음을 알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일체중생에게 사랑을 회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인년 한해가 그 어느 새해보다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천만 불자가 앞장서서 수행정진하고 요익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할 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찰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7천만 동포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항상하기를 축원하며,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나와 남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보성 〈태고종 종정〉



"착하고 어질면 밝은 세계 이룩"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전개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착하고 어질면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어질지 못하면 어둡고 사나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그 청정하고 착한 심성이 온갖 더러움에 이끌리고 나쁜 버릇에 훈습이 되어 그 깨끗함과 선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잘못된 의식과 행동과 버릇을 과감히 버려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세계는 보다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그러한 사회와 세계가 바로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불국정토인 것입니다.

도용 〈천태종 종정〉



"인과법 삶의 실천원리 삼자"

새해에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짙게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부도덕과 부조리, 무질서와 비리, 이기, 탐욕과 범죄 등의 먹구름을 없애버리고 맑고 밝으며 모순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노력으로 바르게 살 것을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도와 정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正意)로운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각해 〈진각종 총인〉



"참회와 자비로 지혜로운 삶을"

지혜가 있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요 / 진리를 아는 자는 자성(自性)을 깨달은 자요 / 자성을 깨달은 자는 본심(本心)이 밝은 자니라. / 윤회의 유정세계(有情世界) 참회로써 장엄(莊嚴)하니 / 대원(大圓)의 밝은 거울 천진면목(天眞面目) 비춤이요 / 육자진언(六字眞言) 삼밀수행(三密修行)은 그 빛을 더하나니 / 광등한 성품자리 비로법신(毘盧法身)의 정토(淨土)로다

무명이 난무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참다운 진리이며 바른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참회와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행의 법문으로 삼아야 하며 부처님의 자비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항상 새겨가져 심인(心印)의 맑은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만평 박구원



힘들겠지만 함께 극복을…

해수 〈대한법화종 종정〉



큰 거울앞엔 좋고 나쁨이 없어

大圓鏡上(대원경상) 絶無親疏(절무친소)
唯我獨尊(유아독존) 亦無彼此(역무피차)
戊寅新年(무인신년) 各得本願(각득본원)
蠢動含靈(준동함령) 皆得佛道(개득불도)
큰 거울 앞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을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하나이 또한 같으니라.
무인년 새해에는 각기 원을 세우면
일체 중생은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니라.

대천 〈관음종 종정〉



세상 남녀노소 모두 형제자매

현상세계는 지나온 것도 무상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도 쉴 사이 없이 변하고 있으니 무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무상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청정 법신의 영식이 항상 또렷하니 불보살이 감응하리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남녀노소가 형제자매로 보일 때 밝은 세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우리 나라가 새롭게 발전되고 불교도 새로워져서 모두 다 대원성취하시길 빕니다.

혜안 〈보문종 종정〉



반목을 화해로 궁핍을 풍요로

한 법이 모든 법의 으뜸이니, 만법은 한 마음으로 통하는도다. 유심은 오직 그대의 성품이거니, 같다거나 다르다 말하지 않는다.

새날을 맞이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바로 이 한마음이고 국가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좌우하는 것도 이 한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반목이 화해로, 궁핍이 풍요로움으로 바뀌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아끼고 근신하며 정진합시다.

록정 〈총지종 종령〉



마음 중심잡고 진리 놓지말길

우리를 더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정축년이 지나고 무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리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 스스로를 갈고 닦아 이 사회의 길잡이가 되도록 합시다. 말로만 떠드는 불교가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나기를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공 〈원융종 종정〉



사방 더운바람 부니 봄을 볼것

땅의 우뢰가 움직이는 곳에 이미 양기가 생기고 사방의 뫼뿌리에 더운 바람이 부니 봄을 볼 것이라. 오직 원컨대 편안하고 건강하여 지혜의 뿌리가 더하고 새해에는 만복을 맞이하고 일천재앙이 소멸하소서. 삼라만상이 다시 봄을 만나니 복은 건곤에 가득차고 모든 물색은 새롭도다. 때가 어지러운 시기에 책임이 중한 정치하는 현량들이여 나라가 풍년들어 잘사는 공은 바로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도록 하는데 있음이라.

佛紀 2542年 戊寅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 지 정 락
총 무 심 경
기 획 성 종
교 무 성 무
재 무 성 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TEL : 34-0040,32-5347
FAX : 34-2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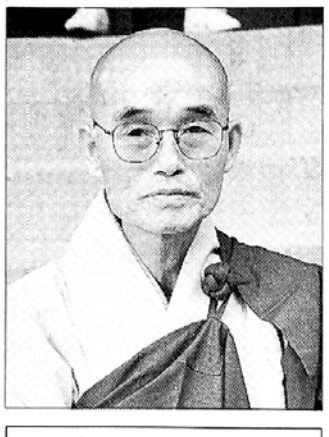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악산 신 흥 사
회 주 무산 오현
주 지 김 도 후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 0392-636-7044/7393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월 정 사
조 실 비 룡
회 주 인 허
주 지 현 해
대 중 일 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TEL : 0374-32-6661~2, 4~5

대한불교조계종 제 5교구 본사
속리산 법 주 사
주 지 혜광 · 중산
부 주 지 무 상
총 무 운 성
재 무 현 장
교 무 현 우
사 회 석 담
포 교 정 송
호 법 황 석
대 중 일 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사무실 : 0433-43-3615, 8655
F A X : 0433-43-3620
원주실 : 0433-43-4755

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 덕 사
방 장 원 담
주 지 법 장
대 중 일 동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TEL : 0458-37-6565
FAX : 0458-37-0072

"정직·화합·신뢰 솔선수범 하길"



혜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일체재산 국가 희사하면 천하에 복 가득

대통령 선거는 정치의 시작일 뿐 더 큰 일은 선거이후에 진실하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국제적으로 큰 수치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체면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잘못된 일이 앞으로 잘 될 증거입니다.

전국민이 좋은 경험과 공부를 했으니 단결 합심해서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대통령께서는 수범적으로 부정부패를 막고 밝은 사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낙원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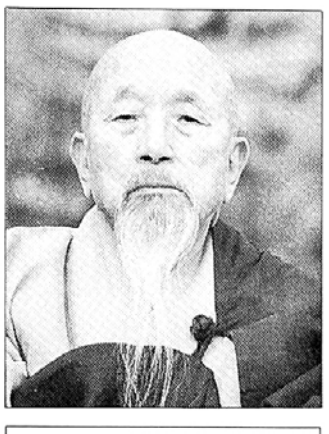
그 방법과 열쇠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멋있게 대통령의 일체 재산을 국가에 깨끗이 희사한다면 천하에 복이 가득하여 남북통일이나 경제발전이나 모든 일이 얼음 녹듯이 해결 될 것입니다.

괴로운 불구덩이 세상에서 떠난 셈치고 인생일기의 한바탕 연극을 멋지게 하시고 복 많이 지어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허공에 뜬 해와 같이 무사공평한 광명을 비추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함께 즐겁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첫발이 발라야 만리가 바르며 하나가 좋아야 백가지가 좋아지기에, 병들어 치료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가 말하기는 쉬우나 팔순 노인이 행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흑한 국민의 역사적으로 빛나는 종살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룡 월정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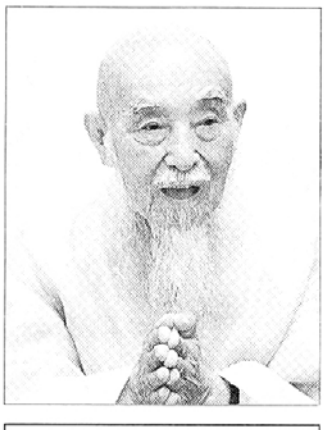
국민위한 정치 인과응보 믿어야 합니다

신라·고려시대에는 불교국가로서 시화연풍(時化年豊)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성해 양반세도로 불교를 압박하고 타박하더니 결국에는 노론과 소론이 당파싸움으로 원수갚기에 바빴습니다. 조선말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민심이 흉흉하더니, 지금이 그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가 성해야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모든 관리들은 불교인이든 아니든 인과를 알고 응보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인과응보를 믿으면 어떠한 사리사욕도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것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정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심을 가볍게 보고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경제 파탄을 만든 것입니다. 부디, 새 대통령은 이런 원리를 바로 알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대통령은 또한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국민대화합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동서로 화합이 잘 안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된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승적인 마음으로 지역으로 나뉘어진 민심을 통일해야 합니다. 화합이 잘 되면 나라도 흥하게 돼 평화로운 세상이 자연히 열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경영하더라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 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자신의 역할에 모범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자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나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아서라, 괴롭다. 누구를 믿으리오.
황희 정승, 맹사성 같이 살아가면
태평건곤(太平乾坤) 돌아와서 요순세계(堯舜世界) 일세.



관응 직지사 조실

과시행정 삼가 분수따라 사는 국민의식 계도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말고 얽히고 설킨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없애려면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부터 차별을 없애야 하며 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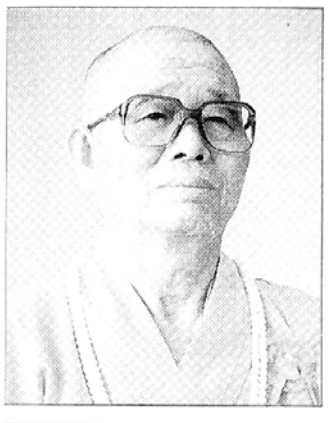
김대중 당선자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몸으로 쓴 분입니다. 큰 고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려운 난국을 무난히 타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문호가 급격히 개방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국민의식 계도는 소홀히 했습니다. 벌레와 같은 미물들도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앞뒤를 분간 못하고 벌어놓은 재물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분수에 맞는 생각과 생활을 하지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체면을 앞세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다양한 정신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이나 종교편향적책으로는 나라를 사분오열 갈라서 망치기만 할 따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때를 닥쳐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지금 이 시기는 우리민족의 진가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김 당선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단결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솔선수범하되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무문관(無門關)에도 생사일여의 활로가 있듯 지금의 난국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국민들의 파쟁심을 극복하고 의식을 계도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기 바랍니다.



청하 조계종 전계대화상

책임지는 사회 경제회생 지름길 입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은 그 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마음씀씀이 또한 넓고 커야 합니다.

사생의 자부(慈父)이신 부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보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어버이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펴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전체를 헤아려 이익되게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바로 홍익(弘益)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말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몰 직전의 배를 지휘하는 함장의 절박한 심정으로 그 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고위층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단합해야 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보다 국민에 앞서 근검절약하고 화합을 실천하는 대통령, 정부가 될 때라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법에서는 계를 지키는 정신을 중히 여깁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직분에 맞게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지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하나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야 말로 지금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국민정신입니다. 한 사람이 직분을 다하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넓게는 한 나라를 책임지게 합니다.



덕암 태고종 승정

사섭법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하세요

김대중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자 오랜세월 노력한 만큼 그 과정과 의미를 되새겨 국정을 잘 수행하길 바랍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계층의 갈등을 없애고 특히 모든 종교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불교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불교계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이 일체가 돼 국난을 헤쳐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물질이지만 종교는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별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편안히 안심입명에 들게 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섭법(四攝法)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이 사섭법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보시(布施)한다는 것은 재물과 법을 서로 돕고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을 둘러보고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빈곤하다보면 짜증날 수도 있는데 서로 말을 조심하고 항상 주위를 조화시키도록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애어(愛語) 입니다.

요즘 생필품 값이 오른다며 사재기하는 통에 동이 난다고 하는데 서글픈 일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됩니다. 서로를 위하는 이타행을 실천하도록 유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서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며 중생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고통을 공동으로 극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부처님의 사섭법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佛紀 2542年 戊寅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관 응 회 주 녹 원
강 주 의 룡 부주지 법 등
증 강 탄 성 기획실장 법 상
총 무 법 전 교 무 도 순
재 무 정 일 문화사회 도 진
호 법 정 산 포 교 일 공

연수원장 이 범 일
상임포교사 염 석 훈
포교주임 유 선 철
포 교 사 이 동 원

▶ 경북 김천시 대합면 운수동 216
TEL : 0547-436-6174
FAX : 0547-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 화 사

조 실 진 제
주 지 무 공
선 원 장 진 허
총무국장 성 호
교무국장 각 정
재무국장 오 정
사회국장 선 종
포교국장 지 도
호법국장 법 현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 053-982-0101~2
053-985-4404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 해 사

조 실 일 타
주 지 법 타
승가대학원장 무 비
부 주 지 돈 명
총무국장 법 의
기획국장 장 적
교무국장 현 관
사회국장 부 용
포교국장 하 종
호법국장 법 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종무소 : 0563-35-3318~9
FAX : 0563-35-0293
승가대학원 : 0563-36-2381
FAX : 0563-36-2382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설 조
부주지 성 천
사 회 정 견
기획실장 종 근
포 교 성 형
총 무 중 후
호 법 혜 원
교 무 정 문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TEL : 0561-746-9912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 계 사

조 실 오고산
주 지 선 곡
총 무 묘 유
기 획 중 현
교 무 호 산
호 법 성 훈
포 교 원 정
재 무 호 산

신도회장 이종환(청운)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TEL : 0595-83-1901
FAX : 0595-83-6084

판잣집 팔아 화엄경 구입 '사경 40년'



원력 있는 불자

김남순 보살

"명리에 급급하여 보은심을 잃고 분별과 탐욕만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력을 세워 실천하면 모든 장애가 없어집니다."

사경이 생활의 전부인 김남순보살(72). 김보살이 사경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84년. 그러나 사경의 초발심은 그 이전부터다. 윤택한 유년시절을 보낸 그는 결혼직후부터 고단한 삶이 시작됐다. 무정한 남편은 네명의 자식을 남겨둔 채 이생을 훌쩍 떠나 버렸다. 그 후 그는 불교에 매달렸다. 이렇게 시작된 불연은 사경의 대원력을 세우게했다. 40년전의 일이다.

하지만 사경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형편이 어려워 경전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우연히 종로 '통문관'에서 화엄경 1질을 발견했다. 그러나 구입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단돈 1백원도 없던 그에게 3만원이란 거액은 꿈만 같았다. 결국 〈화엄경〉 80권을 구입하기 위해 판잣집을 처분했다. 그리고 대가로 서울에서 충청도 익장

"뜻모르면 헛 수고" 칠순에 불전공부

으로 세번째 이사를 해야만 했다. 이 때부터 김보살은 사경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생활형편도 좋아졌다. 새벽에는 참선, 낮에는 사경, 밤에는 독경을 했다. 그리고 1년여만에 〈화엄경〉 80권을 완성했다. "밤이 새는 지도, 배고픈 것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는 손과 허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을 극한 상태였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라며 사경의 환희심을 회상했다. 이후 그는 지금까지 〈묘법연화경〉, 〈법화경〉, 〈금강경〉, 〈열반경〉 등 10여 경전을 섭렵했다.

그러나 그에게 제2의 시련이 다가왔다. 뜻도 모른채 사경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불전공부를 위해 또다시 상경했다. 전셋방을 전전하며 70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에서 〈화엄경〉 번역에 몰두하고 있다. 김보살은 〈화엄경〉 80권을 다시 사경하는 것이 새로운 원력이다.

김중근 기자

교차로

불교병원 건립비 2억 기탁



광덕 불광사 법주 스님은 구랍 24일 동국대 송석구 총장에게 일산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했다.

서귀포서 성도절 기념 법문



암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4일 오후2시30분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리는 서귀포 불교 정토거사림회 주최 '부처님 성도재일 기념 특별법회 및 예술제'에 참석, 법문한다.

청송교도소서 위문잔치



삼중 자비원장스님은 영주 관음사 주지 도기스님과 함께 구랍 24일 청송교도소를 방문, 경제서적 5천여권과 서화작품을 기증하고 재소자 송년위문잔치를 개최했다.

'헛소리' 출판 기념법회



우향 천은정사 주지는 10일 오후4시 성남 관광호텔 3층 부페에서 저서 〈헛소리(1)〉 출판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동인지 '녹야원' 창간

백두승 대구경북불교문인협회장은 구랍 20일 동인지 창간호 〈녹야원〉 출판기념회를 대구 카네스레스토랑에서 가졌다.

'대불발전 간담회' 열어



명호근 대불련총동문회 대불 이사장은 구랍 25일 송현클럽에서 '대불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불교테마여행 공로 조계종서 감사패



본사 김광삼사장은 구랍 29일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실시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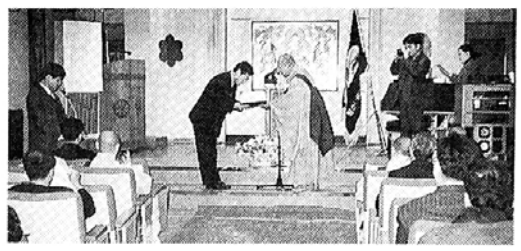
한국동시문학상 수상



신현득 불교아동문학가는 월간 아동문에 주최 제20회 한국동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9일 서울 종로 한일관에서 열린다.

경주불교청년회장 맡아

김민갑씨(만도기계 근무·29)는 구랍 10일 경주불교청년회 회장에 선임됐다.



제9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

제9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구랍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총무원장 월주,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대상 수상자 정련(부산 내원정사 주지), 공로상 수상자 현진스님(여의도 포교원장)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장) 임장수(서울구치소 불심회장)씨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또 15교구 통도사와 해인사 봉은사에 신도등록 특별포상도 주어졌다.



김영태교수 '한국불교사 정론' 출판회

동국대 불교학과 김영태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아 펴낸 '〈한국불교사정론〉 출판기념회'가 구랍 19일 오후5시 동국대 90주년 학술문화회관 지하그릴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우(전국 비구니회 회장),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암도(조계종 교육원장)스님을 비롯 송석구(동국대 총장), 원의범(前 동국대 교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교수는 "쉬운불교를 펴는데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정년퇴임의 소감을 밝혔다.



인덕원 제1회 인덕대축제 개최

어린이 재롱잔치, 노인과 자원봉사자잔치, 복지관 이용노인들의 작품전시회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 제1회 인덕대축제가 구랍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삼천사주지)은 "불교윤리에 바탕하여 경로효친사상이 이땅에 더욱 고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행사에는 은평사원주지연합회 부회장 법성스님(관음사주지), 주양자 자민련 부총재, 황용학 은평구청 불심회 회장, 이규철 인덕노인학교 회장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동심의 언어로 부처님말씀 펴고파"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 윤제학씨



"솔직히 동화의 내용이 너무 불교적이라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선 소식을 듣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브랜적 가치로 인정된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앞으로 글 속에서 '불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들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노젓는 스님'으로 당선된 현대불교신문 윤제학 출판부장은 정초부터 불교동화가 읽혀질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한다.

"동화는 내가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방식"이라 말하는 윤부장은 지난 3월부터 월간지 〈여성불교〉에서 '엄마와 함께 읽는 불교철학동화'를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과 부처님 진리의 세계를 가장 맑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고승들의 생애를 일대기 형식이 아닌 순수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파라미타 '사은의 날' 행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성스님)는 구랍 20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사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청소년지도자 포상식을 함께 가진 이날 행사에서는 동대부고 권진영 교사외 2명이 문체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 증평고 홍연수교사 외 2명, 부천지회 석왕사 정계임씨 외 4명은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성타(파라미타 총재, 조계종 포교원장), 초격(광명선원 주지) 동조(역곡포교원 주지)스님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문체부장관상
권진영(동대부고 교사)
김종원(부산상고 교사)
김창남(동해광희중 교사)

△총무원장상
홍연수(충북 증평고 교사)
김원수(부산 동호여상 교사)
윤정(경남 전자고 교사)

△포교원장상
정계임(부천지회 석왕사)
윤희조(경주지회 불국사)
김진수(경북 청송포교당)
최병선(전주 우석고 교사)
김성구(군산 중앙중 교사)

게 시 판

♣ 알림

△서울대불청 '사구게'=대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매월 첫째·둘째주 금요일 오후7시30분~오후9시 '사구게' 법회를 봉행한다. 셋째·넷째주에는 〈초발심자경문〉강의를 마련한다. (02)730-9108

△청소년문화동아리=구로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가꾸어갈 청소년문화동아리를 만든다. 1주일에 1~2회의 활동으로 자원봉사, 영화감상, 모의재판, 댄스 등의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불자청소년의 접수를 받는다. (02)852-0525

△무료도서대출=인덕노인복지회관(이사장 성운스님)은 무료도서대출을 실시한다.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불교 의학 문학 동화류 등 다양한 도서를 매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 대출가능. (02)385-8205

△노인 상담원교육=한국노인의 전화(회장 이성우)는 제8회 노인을 위한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12일~2월2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만30세 이상으로 노인상담을 희망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02)365-2272

△청소년 자원봉사자 열린학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1월19~22일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열린학교를 개최한다. 대상은 중·고생. (02)852-052

♣ 모집

△청소년 봉사단모집=길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청소년봉사단을 모집한다. 19일~22일까지 총 20시간 활동하게될 청소년자원봉사단원은 접수순 20명. (02)985-0161

△진각종 종비장학생=진각종(봉리원장 성초)은 종비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위덕대 불교학과 합격자로 고교3학년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종단에 평생 봉사할 뜻을 가진자. 접수는 31일까지. (02)913-0751

♣ 답사

△신라문화유적답사=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은 4일 유적답사를 떠난다. 이번 기행은 원원사터, 숭복사터, 감산사, 괘릉, 구정동 3층석탑, 효소왕릉, 성덕왕릉 등을 둘러보게 된다. (0561)771-1950

♣ 화촉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박성배씨(영업부)가 김영분씨(간호사)를 신부로 맞아 11일 오전11시 감로사에서 화촉을 밝힌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불교자원봉사연합 1,518,270원 △안동여고 450,000원 △기장중학교 1학년4반 22,060원 △불교TV 60,230원 △허영조 510,000원 △장인혁 60,000원 △김희수 50,000원 △윤혜라 20,000원 △남영아 17,200원 △박준자 50,000원 △신창철 10,000원 △마현숙 3,000원 △남영순 10,000원 △이성수 50,000원 △유 금 10,000원 △이애련 20,000원 외 △밥 한공기 나누기 100,000원 △한 주 한끼굶기 1,515,000원 △기타(은행이자 등) 899,687원 〈12월24일 현재 총 891,877,39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佛紀 2542年 戊寅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노천 월하
부방장 청하 성원
주지 선진 월파
총림대중일동
▶ 경북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TEL : 0523-82-7182, 81-1442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회주 송월주
주지 김도영
총무 성일원
기획 이원행
교무 덕기
호법 원성
재무 덕산
사회 견진
포교 각진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TEL : 0658-548-4441~5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주지 종열
총무 종서
교무 해봉
재무 덕문
호법 각진
포교 진조
신도일동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주지실 : 0664-782-1100
총무실 : 0664-782-0013
교무실 : 0664-782-0014
재무실 : 0664-782-0015
포교실 : 0664-782-0017
종무소 : 0664-782-7600
FAX : 0664-782-7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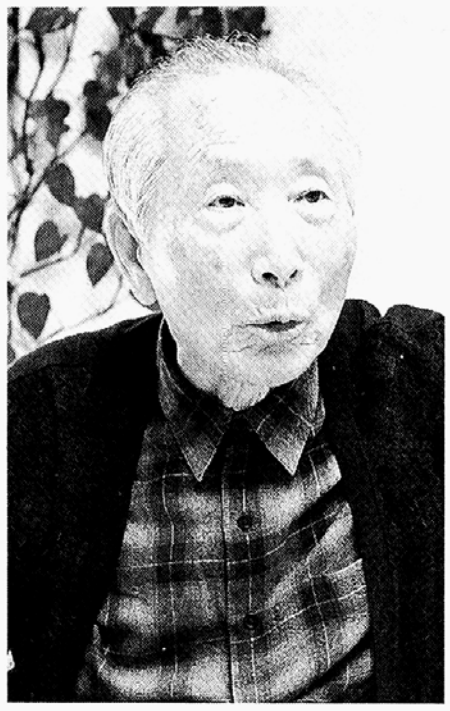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조실 석주
주지 중원
부주지 종훈
총무 세정
교무 혜등
호법 세광
신도회장 강창식
도화주 채정희
청년회장 현종화
▶ 제주시 아라동 산 387번지
· 포교당 : 제주시 도남동 47-12 보현사
TEL : 22-2829/58-8561

大韓佛敎普門宗
普門寺
住持 黃法俊
副住持 趙妙觀
總務 李法善
敎務 金眞雨
財務 吳仁太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TEL : 928-3797
926-9752

"고통 나눌때 경제위기 극복"

원단 인터뷰

원로 교육자
정재각 박사



약력 · 1913년 경북 상주生 · 경성대 사학과 졸 · 고려대 명예문학박사 · 고려대 문과대 교수(47~78년) · 美하버드대 교환교수(66~67년) · 동국대 총장(78~82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81~82년) · 숙명학원 이사장(85년) ·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불교방송 이사 · 저서〈세계문화사〉〈역사의 여운〉〈역서〉대전회통〉 · 국민훈장 동백장 무궁화장 수훈

무인년 새해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IMF구제금융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절박한 경제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로교육자 정재각 박사를 신년 원단에 만났다. 〈편집자 주〉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 쓸쓸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굳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지않더라도 새출발을 해야할 현실입니다. 경제난국에 처한 국민들의 살 길이 있을 텐데요.

원인규명 철저하면 회생

▲우리가 수용하는 시간은 영원히 돌고 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인생은 출발의 연속이고 시작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과정입니다. 철학사에서 보면 인생은 인간이 살길찾아 헤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살길이다"는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삶의 태도는 시선을 밖으로 보내지 말고 내면의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같은 최대 위기의 경제상황에서는 더욱 소유에 대한 욕심을 조절하는 것에서 살 길은 열릴 겁니다.

-박사님은 20년 넘게 명상을 수행해 오셨는데요. 그것이 건강유지의 비결로 알려져 있기도 하구요.

▲배운 것은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하루 두차례씩 매일 해온 것은 10여년 됩니다. 명상은 집중된 수련으로 방하착한 상태에서 소용돌이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명상의 경지를 침식하는 스트레스가 강해졌어요. 물론 내 명상의 숙달도가 약한점도 있지만, 경제신탁통치에 처한 우리현실이 크게 작용하나 봅니다.

-어려움의 극복은 정확한 원인규명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 서민들은 언제부터 나라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휘황찬란하다 무너진 삼풍백화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겉은 번드르하면서 기반과 골조는 모두 썩었기에 무너질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왜 백화점이 무너지고 한강다리가 끊어졌는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현실의 인과가 현 정권이 내세운 세계화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 세계화가 선언됐을 때 무엇을 뜻하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마구잡이로 열어젖혀놓고 안방까지 닥쳐오도록 할 것인지, 그래도 안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끄떡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킬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인지 우려가 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지개같은 공상에 매료됐던 거지요. 무지와 무능으로 그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확립되지 않았고 국민에 이르기까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최대 위기지요.

-우리가 아직 선진대열에 끼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신가요.

▲민주주의는 계층·이익·집단간 갈등과 마찰이 어느정도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확립되고, 경제력이 올라가야 실현됩니다. 서구라파는 내부의 계층간의 마찰 알력을 제국주의로 풀었던 것이지요. 전쟁을 일으켜 식민지를 확장해 얻은 경제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전까지는 동서양의 발전정도가 비슷했지만 산업혁명이후 제국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고 민주주의도 정착됐지요. 따라서 우리가 못났고 서구가 잘났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동양적 전제주의 국가체제였던 역사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엄연히 특성이 다른데 단순히 제국주의로 이룩된 나라를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족에 초점 맞춰 경제틀 다시 짜야
소유욕 조절 삶의 시선 안으로 전환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좌표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지혜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 등 각계 지도자들의 애국심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이 국민을 걱정하고 겁을 내야 합니다. 고질적인 풍토병 그것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입니다. 그동안 잘해보겠다며 시도한 정책들도 많지만 결국 파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심성을 비롯한 바탕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명분과 외형적인 것에 쉽게 매혹되고, 실제 이루기 위한 과정에 매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인 검증과 성찰을 무시했던 오만이 있었던 것이지요.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역사성과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방향감각을 갖고 강권을 발동해 발전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주체성을 토대로 남의 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자립으로 회향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활약도 돋보이구요.

무조건 서구흉내 곤란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가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철학입니다. 막스 베버의 말처럼 원래 자본주의는 서양에서 비롯된 청교도 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게 돈을 벌어 신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반면 동양권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큼에도 돈벌이에 대해서는 멸시해 와 자본주의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타락한 미국식 자본주의로, 자본주의 철학은 희석된채 돈벌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섹스 폭력 등 사회악의 주범인 셈입니다. 국민전체가 경제틀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목표에 초점두고 자본주의 철학을 스스로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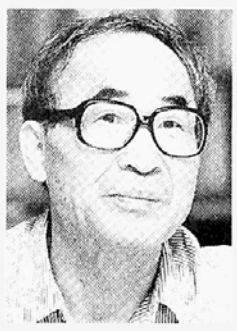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큰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내하는 것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작금의 위기 상황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만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고통분담만이 극복을 가능케합니다.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실제 우리 민족은 위기극복능력이 강합니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민족대단결이 요구됩니다. 불자들은 그저 부처님 정신을 실천하면 됩니다. 5계를 잘 지키는 것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난국을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 무소유정신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현대에 맞는 무소유정신은 아무것도 갖지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말고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즉 소유하더라도 나만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고 이사람 또 저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고 보라는 것이지요. 20세기 말 위기를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담=위영란 부장

새아침칼럼

두 여자를 생각한다



고 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무인년이다. 12지신(支神) 가운데 호랑이 신을 말할 법 하다.

이토록 나라의 사정이 나락(奈落)에 떨어진 판이라 더더욱 호랑이의 기상을 떨치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가 한밤중의 산골짜기에 대고 크게 울부짖는 오랜 민화(民畵)는 우리에게 낯익은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 감상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호랑이를 우리 조상들은 민화를 통해서 아주 인간적인 대상으로 혈연화시켰다. 그래서 호랑이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기 보다는 인간의 아주 친근한 이웃인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30년전의 가난 잊은채 얼마나 흥청댔던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란 말도 그런 민화 속의 호랑이와 남남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호랑이와의 밀접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시베리아와 만주벌판 그리고 백두산 백두대간의 여러 산줄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실인즉 우리 조상들은 심지어는 일제식민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대궐의 담을 뛰어넘은 인왕산 호랑이는 유명하다. 그 호랑이를 활로 쏘아 죽였는데 그 호랑이 방향이 바로 임금의 침전 쪽이어서 호랑이를 죽인 경호실장은 임금 침전 쪽에 활을 쏘았다는 사실 때문에 임금의 생명을 구한 자이기보다는 임금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죄목으로 처형당하기까지 했다.

옛이야기에 지나가는 스님의 말이 "이 아이는 호식(虎食)의 상이 있구나. 그 액을 면하려면 삭발 입산해야 하겠구나"해서 절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의 희생물이 되었다.

또 옛 이야기에는 호랑이한테 딸 셋과 어머니 자신까지 먹히는 사연도 있다.

모진 가난으로, 모진 천대로 처음부터 곤고하게 자라났으나 바야흐로 한떨기 이슬 머금은 모란처럼 싱그러운 처녀가 되었는데 그런 처녀가 고개를 넘다가, 나물을 캐다가 호랑이한테 먹혀버리는 그 참상과 민화 속의 인간적인 호랑이는 얼토당토 않다.

그런 여자였던가.

어떤 사람의 집에 아리따운 여자가 찾아왔다. 옷맵시도 눈부셨다. 주인은 그 여자에게 반했다.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저는 공덕천(功德天)이라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서는 보배가 불어나게 해 드립니다."

이 말에 주인은 더욱 좋아라 하며 그 여자를 맞아들여 꽃과 향을 공양하고 갖은 대접을 다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또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흉칙했다. 옷도 누더기였다.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주인은 사나운 소리로 물었다.

"저는 흑암천(黑暗天)이라 합니다."

"무엇하는 사람인가."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집의 재물을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당장 칼을 들고 외쳤다.

"이년,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쳐 죽이겠다."

그러자 흑암천이라는 여자가 끄떡없이 말했다.

"아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오. 아까 당신 집에 온 여자는 제 언니라오. 나는 언제나 언니와 헤어지지 않으므로 나를 쫓아내면 언니도 함께 쫓아내야 하오."

주인은 집안에 있는 여자한테 가서 물었다.

"저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동생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은 털썩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공덕천 흑암천 이야기에서 부와 빈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니 빈과 부에 대한 우리 마음이 둘이 아닌 것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과 성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육화(肉化)되어온 가난을 너무 빨리 망각했고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부의 허상이 되고 만 것이다.

부와 빈 둘 아님 깨달아 새로운 사회로 태어나자

과연 제가 사는 마을에서 얼마나 흥청댔는가. 또한 다른 나라의 여행에서 그런 흥청대기로 얼마나 많이 빈축의 대상이 되었던가.

정부와 재벌 그리고 중산층 할것 없이 심지어 농촌의 남녀 할 것 없이 30년전의 가난도 잊은 채 덧없는 국부(國富)에 놀아났던 것이다.

그 결말이 세계로부터 지원을 간청해야 할 거지 신세로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덕천과 흑암천의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무인년에 꿈꾸는 '전생(轉生)'이기도 하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참사람 열린교육 2006 동국 백주년

민족을 밝힌 진리의 등불.
이제 온누리로 퍼져 나갑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 사 장 오 녹 원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송 석 구

교직원 일동

11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 260-3026 FAX : 260-3600

항상 정진하는 한해가 되소서!

학교법인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송 월 주
총 장 방 지 하

교직원일동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전화 : 925-5507~9 FAX : 928-4302

98 신행캘린더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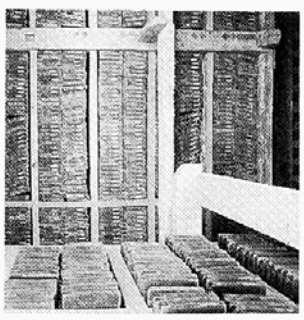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 시무식(5일 · 02-732-9342)
◇부처님 성도일(5일)
◇진각종 새해대서원불공(5~12일 · 02-913-0751)
◇교사불자연수 및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16~18일 · 02-720-7060)
◇경불련 네팔불자모임 설맞이 행사(24일 · 02-765-5448)



◇천태종 상월원각조사 87회 탄신 봉축법요(27일 · 0444-423-7100)
◇설날(28일)
◇조계종포교원 신규포교사 연수교육(02-720-7060)
◇생명나눔실천회 성남지부 창립

2월

◇불교부산방송 개국3주년 기념식(1일 · 051-644-5114)
◇동안거 해제일(11일)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캠페인 1주년(11일)



◇정월대보름맞이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탑돌이 철야대법회(11일 · 0561-746-9912)
◇조계, 동방, 금강, 삼화불교대등각 불교교양대학 졸업식
◇동국대, 중앙승가대 졸업식
◇제1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작품접수마감(28일)

3월

◇대한불교청년회 제19회 전국만해백일장(1일 · 02-738-3385)
◇탄허불교문화재단 3 · 1절 기념행사(1일)
◇불교TV 개국 4주년 기념식(1일)
◇부처님 출가일(6일 · 음 2월8일)
◇부처님 열반일(13일 · 음 2월15일)
◇불교 광주방송 개국 2주년 기념식(15일)
◇대구불교산악회 창립3주년 기념법회(23일 · 053-743-2554)
◇부산불교교육원 제22기 불교입문자교육
◇조계종 제14기 행자교육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제7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강(02-723-6258)
◇광주 불교문화대학 입학식
◇생명나눔실천회 4주년 기념법회 및 작품전시회(02-734-8050)

4월

◇제주 관음사 '제주도 4 · 3사건 망혼 위령제'(3일 · 064-22-2829)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 1주년(4일 · 0351-848-6114)
◇종립 혜동고 개교 62주년 기념연주회(7일 · 051-204-4442)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쉼터 개원 1주년(9일)
◇조계종 4 · 10승려대회 4주년 법회(10일)
◇사명대사호국선양회 창립 1주년 법회(15일)
◇제38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제18회 장애인의 날 △천태예술제 △뇌허불교학술원 故김동화박사 15주기 추모제(20일)
◇불교방송 개국 8주년 기념식 △정토합창단 창단 6주년 정기연주회(22일)
◇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창립 1주년(24일)
◇불교청주방송 개국 1주년 법회(25일)
◇대한불교법등회 창립 6주년 기념법회 △제38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30일)

5월

◇국회보좌진 법우회 창립1주년 법회(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3일)



◇해인사 용탑선원 개원 1주년(6일 · 0599-31-1001)
◇동국대 제92주년 개교기념일(8일 · 02-260-3126)
◇천태종 천태대사 열반 1401년 추모재(9일)
◇하안거결제일(10일)
◇진각종 제197회 종조탄생절 기념법회(10일 · 02-913-0751)
◇진각종 창교 제51주년 기념법회(28일)
◇부산 삼광사 제11회 삼광학술상 및 제4회 효행상 시상식
◇한국불교사회봉사회 무료합동결혼식(02-303-0024)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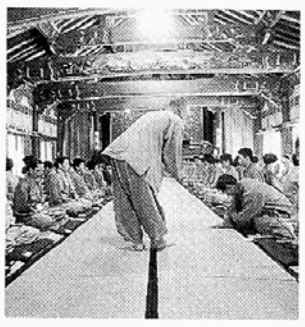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 1주년 법회(1일 · 02-232-6948)
◇천태종 상월원각 조사 제 24주기 열반대재(2일 · 02-233-6210)
◇봉선사, 월초스님 다례식(4일 · 0346-555-5974)
◇구인사, 천태지자대사 열반 1천4백1주기 법회(02-233-6210)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051-808-4570)



◇만해스님 열반 54주기 홍성만해제
◇대한불교청년회 제17차 불교청년대회(02-738-3386)
◇조계종 봉은사, 영암당 기종대종사 열반11주기법회(11일 · 02-545-1448)
◇송광사, 회광당 일각대종사 2주기 법회(12일 · 0661-755-0107)
◇일붕스님 2주기 법회(13일 · 02-394-6469)

7월

◇문성스님 열반 1주년(10일 · 051-783-0876)
◇관음종 태허 대종사 20주기 법회(17일 · 02-763-3345)
◇통도사 경봉스님 16주기 추모법회(20일 · 0523-82-7182)
◇백양사 참사람결사대회(21일 · 0685-92-7502)
◇각 단체 하계 수련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문화캠프(02-735-8165)
◇각 복지관 · 문화원 여름 특강 및 캠프
◇조계종 신임주지 실무교육연수

8월

◇대한불교청년회 전국불청지도자 연수(1일 · 02-738-3368)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만해 시인학교(4일 · 02-736-8320)
◇대한불교진흥원 98 불교신행단체 지도자 연수(8일 · 02-719-1855)
◇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하계연수(17일 · 02-292-8502)
◇조계종 교육원 제14기 행자교육원 개원(17일 · 02-732-4923)
◇성남 정토사 · 아산 인취사 연꽃축제
◇선우도량 제14회 수련결사(26일 · 02-742-6916)
◇도선사 칠석 청소년문화한마당 견우 · 직녀선발대회(28일 · 02-993-3162)
◇인각사 일연스님 탄생 7백8주기 추모대재(29일 · 0578-83-1161)
◇무안군 연꽃축제(31일)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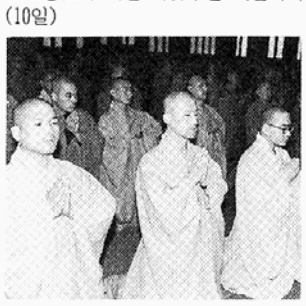
◇동산선원 개원 9주년 기념법회(1일 · 02-732-1206)
◇제주여성불교단체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4일)
◇완규당 동헌스님 15주기 법회(5일 · 0664-782-7600)
◇경북도의회 정각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5일)
◇청주불교실업인회 영규스님 추모대재(0431-294-0429)
◇우리는선우 2학기 개강(02-278-8672)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02-781-2314)
◇국민회의 연등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16일 · 02-784-2060)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교사불자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19일 · 02-720-6742)



◇길상사 직장인 수련법회(02-3672-5945)

10월

◇제2회 노인의 날(2일)
◇조계종 포교원 15차 방송작가 세미나, 포교사 고시 응시원서 접수(02-720-7060)
◇통도사 개산 1353주년 개산대제(10일)



◇조계종 포교원 하반기 포교사 연수 (12일 · 02-720-7060)
◇불광법회 창립 24주년(12일 · 02-402-3200)
◇제24차 어린이지도자 연수회(15일 · 051-808-4570)
◇제7회 보우제 봉은사 보우대사 순교 433주기(22일 · 02-511-6070)
◇천태종 남대충 대종사 열반 5주기(22일 · 02-233-6210)

11월

◇성철스님 열반 5주기(1일)
◇만해기념관 개관 2주년(9일)
◇불교대구방송 개국 2주년(11일 · 053-427-5114)
◇인천 자비의 전화 개통 5주년(15일)
◇운문승가대학원 개원 2주년(20일)
◇대각국사 의천스님 제 897주기 추모대제(23일)
◇군승단 창립 30주년(25일)



◇제21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98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광주불교합창예술제(062-376-3223)

12월

◇독일 광법사 개원 3주년(1일 · 032-663-7777)
◇인천 종교인협의회 창립 2주년(3일)
◇한국은행불자회 창립 13주년(6일 · 02-759-4504)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창립 2주년(12일 · 02-3672-5373)
◇은평구청 불심회 창립 2주년(12일)
◇부산 사하불교연합회 창립 11주년(13일 · 051-205-9301)
◇송광사 구산스님 열반 15주기(13일 · 0661-755-0107)
◇싱가폴 연화사 개원 2주년(13일)
◇맑고향기롭게 제5회 가족음악회
◇길상사 개원 1주년(14일)
◇광주사암연합회 합창제



◇원정사 만화선사 16주기 추모재(0374-32-6664)

佛紀 2542年 戊寅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 年年是好年 月月善明月 ●

한해동안 보살펴주신 후의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충만하소서!

한국불교금강선원
(불교정신문화원)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계간 세계불교사 ·

사 장 정을수
발행인 한정섭
편집인 한수갑

한국불교금강선원 포교사 · 법사회

명예회장 노정우
총 회 장 김성륜
포교사회장 고법성
법사회장 김호현
포교사회부회장 김성주
법사회부회장 강청작
감 사 원종성
구자원외 회원 일동

총 재 안덕암
이 사 장 한정섭
대학원장 이월담
대학원장 전용만
감 사 전태수 김도원
강혜원 송공면
권용득 김차혜
임직원 일동

전법 ·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총 재 : 이외윤 이 사 장 : 정성도
상임이사 : 이정숙 원 장 : 백운월

이 사 배창윤 이윤재 이용규 김창수 유명식 이수생 황연환 유춘득 배정길 구자일
감 사 강정산 박충서
임 원 법경 명현 운선 현진 지암 설산 금강 법농 해동 명화 한세천 남강수 이병탁 이해옥

대 의 원 일 동 단체등록사찰 주지 · 신도회 일동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6-16
TEL : 964-8044, 8085 FAX : 965-3143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주 지 차동광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 종무소 : 993-3161~3 ■ 주지실 : 993-5002
■ FAX : 993-3164

도심속의 포교, 교육, 기도도량

수도산 봉은사

■ 조 실 : 석 주 큰스님 ■ 주 지 : 무 상

대 중 일 동

◆ 법회 및 기도안내 ◆

● 생 일 불 공 : 매일 오전 9시
● 신 중 기 도 : 매월(음) 1일~3일
● 미륵재일법회 : 매월(음) 7일
● 보름포살법회 : 매월(음)15일
● 지장재일법회 : 매월(음)18일
● 관음재일법회 : 매월(음)24일
● 인 등 기 도 : 매월 관음재일
● 철야정진기도 : 매월 셋째주 토요일
● 성 지 순 례 : 매월 1회

▶ 종무소 :511-6070~4 전송 : 544-2141

전국 99곳 활동…지역포교 '교두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자치단위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양식이 형성되면서 지역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불교는 그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에 밀착돼 있으며,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불교단체인 사암연합회의 결성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내 사암의 참여 저조로 자리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암연합회는 해당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밀착돼 있어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불교정책 토론회 모습.

본지가 신년특집 '지역불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사암연합회 회장에게 듣는다'를 기획, 구랍 5일부터 20일까지 78개 사암연합회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결과, 사암연합회는 회원사암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한 지역민과의 신뢰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제주, 청주·청원, 충주, 고성, 마산·창원 등의 경우는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해 사암연합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율 저조 종단 화합해야

사암연합회는 대외적으로는 지역민과의 친목도모(9.4%),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한 신뢰감 형성에 기여(33.3%)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회원 사암간의 화합과 권익보호(32.3%), 관청 상대 창구단일화의 역할(8.3%)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운데 16개 사암연합회는 "회원 사암들의 비협조로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친목단체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56.6%로 비교적 저조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암들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사암연합회 참여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종단간·사찰간의 불화(64.8%)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의 한 사암연합회의 경우는 회장 소임을 놓고 종단간의 알력이 발생, 사실상 와해위기에 놓여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 지역에 같은 명칭의 사암연합회가 두 곳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계종과 그 외 종단이 같은 지역에서 별도의 모임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한 스님은 "각각의 사찰들은 잘 한다. 그렇지만 합치는 것은 아직 모자라다"고 꼬집고 "특정종단이 여러 종단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사암연합회의 1년간 지출규모는 대부분 6백만원~1천5백만원 수준이었지만, 활동력이 왕성한 곳은 5천만~6천만원에 이르렀다. 월 회비를 내고 있는 곳은 15곳이었으며 임원 및 회장이 연지출에서 50~60%를 부담하고 있다. 행사가 없어 지출도 없다고 응답한 곳도 2곳이었다.

사암연합회는 대부분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노인 후원, 교도소 위문 등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춰 군법당 지원(9곳), 불교방송 지방국 건립(강원불교연합회)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4곳의 사암연합회가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강릉, 제주, 청주·청원, 충주, 고성사암연합회는 수륙재, 영규대사 청주성 탈환일 기념법회, 충주중앙탑 탑돌이, 진주성 연등제 등 불교고유의 의식을 지역의 주요한 문화행사로 치르고 있어 불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민 신뢰감 얻어…회원단합 기여 '한몫'
소년가장·노인·교도소 등 이웃돕기 주력

인천은 모든 區에 연합회

90년 결성한 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이듬해부터 매년 언론·예술·문학·사회봉사 등 네 부문의 시민불교문화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불교의 가치관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적극적인 사례로 꼽힌다. 성남사암연합회는 올해 성남시에서 건립하는 납골당과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확보, 사암연합회에서 운영키로 했다.

관청과 사암연합회와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남지역의 1곳씩에서 타종교를 믿는 공무원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사찰의 신·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거의 군림하는 관청의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암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암의 동참 유도, 모임의 정례화 등 지역내 사암들의 화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따라 40%에 이르는 사암연합회가 회원 화합을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중점사업 계획은 각 사암연합회의 특성에 맞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천불교연합회는 모든 구(區)에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연수구불교연합회 부평구불교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안에 8개구 모두에 사암연합회를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구별 사암연합회 활동이 정착되면 종합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도해스님(능해정사 주지)은 "구단위 연합회 구성은 지역정서에 기반한 현장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성 7만신위 위령재(진주), 경기불교사암연합회 결성 추진(성남), 시민불교대학 개설(거제), 1사찰 1복지시설 운영(은평, 속초), 종합복지관 건립(동해), 불교방송 지방국 건립(대전, 강원), 불교문화관 건립(부산 남·수영, 대전, 조계종인천사암연합회) 등의 사업이 눈에 띄었다.

친목단체 포함 120여곳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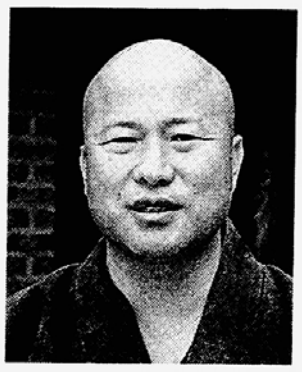
전국 24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암연합회가 구성된 곳은 120여곳. 이 가운데서도 사실상 활동을 못해 연락이 두절된 곳이 많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암연합회 99개인 것으로 밝혀졌다.〈도표 참조〉 사암연합회의 창립은 84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적절한 포교·대사회활동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와 걸맞는 조직이 요청됐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사암연합회 구성율은 40.5% 수준에 머물러 기존 사암연합회의 활성화와 함께 미구성 사암연의 구성이 과제로 대두됐다.

정리=정성운 기자

◇전국 사암연합회

사암연합회	회장	연락처
서울 강동사암연합회	지흑·강동포교원	(02)482-7244
강북불교협의회	등광·도선사	(02)993-3161
관악구사암연합회	종하·관음사	(02)582-8609
서울·경기 사암연합회	현근·조계사	(02)732-2115
노원불교사암주지연합회	학림·학림사	(02)932-1411
노원불교사암연합회	고담·광덕사	(02)936-5263
성동사암연합회	법경·능인정사	(02)462-1339
성북구사암연합회	증본·경국사	(02)914-5447
은평사원연합회	성운·삼천사	(02)359-7766
부산장서구사암연합회	성림·육주사	(051)971-0042
금정구사암연합회	계전·국청사	(051)517-5003
기장군사암연합회	정암·용궁사	(051)722-7744
기장군사암연합회	원각·연통사	(051)721-4162
남·수영구사암연합회	지원·문수사	(051)624-3754
동구사암연합회	경담·구봉사	(051)468-4937
동래구사암연합회	도문·도림사	(051)552-1283
북구·사상구사암연합회	종학·불광사	(051)313-5948
부산비구니금련회	지원·보림사	(051)501-0049
사하구사암연합회	종원·정원사	(051)205-9302
서구사암연합회	보광·보타원	(051)254-0546
부산시불교연합회	성오·불교회관	(051)867-0501
연제구사암연합회	원광·정수사	(051)758-6022
영도구사암연합회	덕진·대흥사	(051)416-4605
진구사암연합회	혜총·감로사	(051)803-0188
해운대구사암연합회	화명·도성암	(051)743-7623
경남 거제불교연합회	원정·수도암	(0558)681-3908
거창불교연합회	무현·거창포교원	(0598)944-2093
고성불교사암연합회	지성·옥천사	(0556)72-0100
김해불교사암연합회	무애·천불사	(0525)22-8323
남해사암연합회	동욱·보리암	(0594)62-6500
마산·창원불교연합회	경호·원각사	(0551)43-5593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혜봉·용정사	(0527)53-1196
사천불교사암연합회	백산·도충사	(0593)34-3450
진주불교사암연합회	무착·호국사	(0591)41-4394
진해불교사암연합회	상문·정암사	(0553)42-5538
창녕불교사암연합회	정문·인왕사	(0559)33-2295
통영불교사암연합회	법광·약수암	(0557)43-5723
함안불교사암연합회	지점·봉불사	(0552)87-2023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원명·관음사	(053)427-2963
경산시사암연합회	혜문·혜광사	(053)815-0341
달성사원주지연합회	인호·장원사	(053)614-7911
성주군사암연합회	지산·관문사	(0544)933-2176
포항·영일사암연합회	허주·죽림사	(0562)42-8294
상주군사암연합회	만성·극락암	(0582)33-2588
안동군사암연합회	철우·법륜사	(0571)53-4837
의성군사암연합회	법의·대곡사	(0576)862-4222
의성군조계종사암연합회	만성·주월사	(0576)33-5638
김주불교사암연합회	상명·상변사	(062)263-7096
전남 고흥군사암연합회	법현·선운사	(0677)61-1422
남원시군사암연합회	도법·실상사	(0671)34-3031
담양불교사암연합회	수진·용화사	(0684)81-2683
여수여천사암연합회	진만·흥국사	(0662)685-5633
전북 군산불교사암연합회	제곤·관음사	(0654)471-0198
전북불교연합회	도영·금산사	(0658)548-4441
익산불교사암연합회	지광·숭림사	(0653)862-6394
인천 강화사암연합회	계성·콘벤트수원원	(032)934-7859
인천불교연합회	도하·교육회관	(032)519-5551
조계종인천사암연합회	선일·브루나포교원	(032)576-9741
경기 가평사암연합회	무공·청오사	(0356)84-0705
경기 고양사암연합회	홍선·용화사	(0344)62-8387
남양주·구리사암연합회	법공·봉선사	(0346)555-5974
동두천시사암연합회	적연·일련사	(0351)865-4120
부평불교연합회	홍제·관음정사	(032)801-8800
부천시불교연합회	영담·석왕사	(032)657-3575
성남사암연합회	청곡·무심정사	(0342)754-4661
수원시사암연합회	성근·수원포교당	(0331)255-2692
안산시불교연합회	현진·선재정사	(0345)409-8080
안성사암연합회	도황·칠장사	(0334)72-7777
여주군사암연합회	영정·흥왕사	(0337)82-0631
의정부사암연합회	칫승·의정부포교원	(0351)875-6214
이천사암연합회	혜봉·용악사	(0336)34-5728
파주사암연합회	효림·보광사	(0348)942-7701
평택시군불교연합회	성루·수도사	(0333)82-3169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현수·용문사	(042)585-6803
조계종대전승가회	현수·용문사	(042)585-6803
대전비구니정림회	성욱·회전사	(042)271-8321
충남 공주시사암연합회	법해·남가암암	(0416)841-7979
논산시사암연합회	항법·지장암	(0461)32-5629
부여군사암연합회	만청·미암사	(0463)32-1187
서산시사암연합회	지만·서광사	(0455)64-2001
온양·아산주지협의회	혜민·인취사	(0418)42-6441
연기군불교사암연합회	청하·황룡사	(0415)864-7000
예산군사암연합회	자원·향천사	(0458)35-3556
천안시사암연합회	육조·보광사	(0417)551-8487
청양군사암연합회	승도·보안사	(0454)43-2654
충북불교연합회	혜광·법주사	(0433)43-3615
제천사암연합회	혜봉·영천사	(0443)47-6835
청주불교사암연합회	이두·관음사	(0431)56-6254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원봉·보현사	(0431)59-4926
충주사암연합회	혜성·동가섭사	(0441)852-0548
강원 강릉사암연합회	혜운·법왕사	(0391)647-9450
동해시불교사암연합회	원행·삼화사	(0394)34-7661
강원불교연합회	도후·신흥사	(0392)636-7044
삼척사암연합회	시명·만경사	(0395)53-1567
속초사암연합회	도후·신흥사	(0392)636-7044
원주사암연합회	삼지·구룡사	(0395)44-8100
화천군사암연합회	정담·법장사	(0363)441-6260
제주불교사암연합회	혜운·국청사	(064)55-3131
제주불교총연합회	중원·보현사	(064)53-0895

인터뷰 서울 은평사원련회장 성운스님



"지금은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중앙집중적인 포교방법으로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정서 부응 자비실천해야 불교발전"

서울은평구 사원연합회 회장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와 요구에 부응하는 불교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운스님은 지역 사암연합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매우 현실적인 면에서 찾는다. "관청과의 대화에서 지역발전의 공헌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지역공헌이 없는 가운데 사찰 진입로를 넓히거나 포장하려 해도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존재의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비실천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찰들로서는 엄두를 내기조차 어려운 일도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사암연합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꼽히는 은평구 사원연합회. 관내 1백여 사암 가운데 50여 사암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0년 성운스님의 발의로 결성됐다.

"수행한 것만큼 돌려주자. 물질이건 정신이건 모두 지역사회에 즉시 회향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고 주위 스님들에게 호소했다. 조계종만 고집하지도 않았다. 무당도 받아들였다. 일부 사찰의 망설임도 있었지만 "부처님도 외도를 받아들여 제자로 삼지 않았느냐"며 설득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는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송년·신년법회, 6월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민 기원법회를 구청과 합동으로 봉행한다. 매년 20~30명의 공무원자녀 장학금지급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경승활동도 사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스님들을 구정자문위 치안자문위 등 각종 직능위원회에 참여시켜 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매월 한 차례 월례법회는 회원 사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법회 후에는 공양과 함께 각 사찰의 문제, 지역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은평사원연합회가 올해 중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은 '1사찰 1복지시설 운영'.

"회원 사찰마다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1개 이상씩 운영케 하는 것입니다. 사찰이 그 지역의 정신적·문화적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원력이지요."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 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 박사(상락향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방종(인성개발연구원장)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 사회 복지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정승석(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영태(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전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7년 12월 20일~ 98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불교회관 및 동산빌딩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겔러리 4층)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 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 문 서 점(257-0161)
⊙광주 : 불 일 서 점(232-7542)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 특전사항 : ❶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❷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이송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1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 • • 佛紀 2542年 戊寅年 • • • •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부처님 마음으로

진 관 사
주 지 진 관
사부대중 일동 신 도 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359-8410
■진관사 부설■ 보현정사포교원
코끼리유치원
코끼리어린이집
포교원장 각 성
코끼리 유치원
코끼리어린이집 직원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19번지
TEL : 0344-978-0997~8

청 계 사
신도일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
TEL : 0343-26-2348
25-2670

옥수동 미타사
주 지 재 호
교 무 명 수
재 무 법 련
대중일동 · 신도일동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95
TEL : 02-297-1992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관인)영화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TEL : 02-444-4321, 7215

해 원 사
주 지 경 운
신도회장 배 복 례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793-1
TEL : 02-914-0879

인 과 선 원
주 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TEL : 993-3706
907-3706

정 각 사
주 지 이 광 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7-12
TEL : 742-1231

법 성 사
주 지 이 석 천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2가 산 23-14
TEL : 651-4382

청룡사 마야합창단
주 지 김 법 운
합창단 · 신도일동
▶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TEL : 612-0609

대각사 **대각선원**
석가여래부촉법 제 70세법사
조실 · 주지 불심도문
부주지 무 심 보 광
총 무 각 천 청 청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TEL : 02-765-0972

한국불교미륵선종
불 광 사
주 지 강 자 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3 (진고개)
TEL : 032) 932-8083

대한불교법화종
청 용 암
주 지 김 영 숙
신도회 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산 5-12
TEL : 813-1820

대한불교총화종
정 은 사
주 지 이 기 태
신도일동
▶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4동 18번지 21/2
TEL : 032-875-5280, 3459

대한불교조계종
홍 제 사
주 지 도 영
신도일동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호
TEL : 736-0367, 737-0238

서부은평사원연합회
회 장 서성운(삼천사)
부 회 장 한자용(수국사)
부 회 장 김혜진(시연사)
부 회 장 이법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인(신흥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성운
부설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어린집
종암어린이집
수색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 서울 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TEL : 359-7756, 363-3004

낙 산 사
주 지 송 지 홍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 0396-672-2448

은실화랑표구
대 표 조 경 실
▶ TEL : 02-682-7536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천마산 수진사
주 지 전 남 정
신도일동
대중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TEL : 0346-591-7710
FAX : 0346-591-3364

대한불교총화종 원로원장주석
승 룡 사
조 실 전 야 옹
신도일동
대중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00-61
TEL : 814-7536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 지 종 후
신도일동
청림반야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內
TEL : 353-5016

한국불교태고종
지 리 사
주 지 김 법 일
신도일동
▶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121-2
TEL 032-694-2836

염 불 암
주 지 성 수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7
TEL 0343-71-2300, 3680

한국불교조계종
선 원 사
조 실 선 산
주 지 성 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신도회일동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1-1
TEL 032-934-8484, 933-8834
933-8236

한국불교조계종
법명사(부루나 포교원)
주 지 선 일
부설기관
부루나 어린이집 (577-5123)
특수아동 조기교육원 (583-1669)
부루나 청소년교육회관 (577-0266)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84-5
TEL 032-576-9741 FAX 032-577-0267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포교원
원 장 박 지 상
신도일동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2-16
TEL 547-8268, 8269 FAX 547-8220

한국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안 동 일
이 종 구
황 석 동
박 정 애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서울 종로 견지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TEL : 732-1216
FAX : 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반야회	
학 장	무진장	회 장	김재일
이사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TEL : 732-1206~8 FAX 732-1207

북한산 무량사
주 지 무 량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
TEL : 02-355-5264, 351-3789

마이산탑사
주 지 혜 명
신도회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7
TEL 0655-33-2900, 32-0652
32-0072

유아교육의 명원
불교유치원
원 장 편 백 운
▶ TEL : 0361-55-5040

'순간의 기록 영원한 역사'.

'98 사진 영상의 해가 밝았다. 한컷속에도 무궁무진한 메시지를 전할수 있는 사진예술. 올해 불자 사진작가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사진전과 작품집 발간 등 다채로운 계획으로 사진영상의 해를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사진영상의 해 개막테이프를 제일 먼저 끊은 작가는 관조스님(범어사). 스님은 1일자로 9번째 사진집 〈한줄기 빛〉(시각 출판사 刊)을 냈다. 돌위에 흩뿌려진 낙엽과 솔잎, 꽃처럼 화사한 이끼낀 돌 등 사찰 주변의 돌, 이끼, 야생화, 낙엽 등을 포착한 40여 작품이 마치 회화처럼 독특한 감흥을 준다. 관조스님은 이밖에도 티벳 네팔 등 히말라야를 사진으로 담은 '淨土' 주제의 사진집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봉스님(하동 보문사)은 2월과 8월 두차례 대대적인 사진전을 개최한다. 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진주 경남예술회관, 8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에는 사찰의 불상, 탑 등 문화재와 사찰에서 본 일출, 일몰 등 불교의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는 40여 작품을 전시하며 이에 맞춰 작품집도 발간한다.

관조스님 9번째 사진집 '한줄기 빛'
선암스님 5월 '연꽃' 주제 개인전
안장헌씨 작품집 7권 출간계획
육명심씨 한국대표예술인 40명 담아

사진전-작품집 '봇물'

'사진 영상의 해' 맞은 불자사진작가들 새해 설계



◇관조스님이 새 아침에 펴낸 사진집 〈한줄기 빛〉에서. 바위 위에 흩뿌려진 낙엽을 회화처럼 포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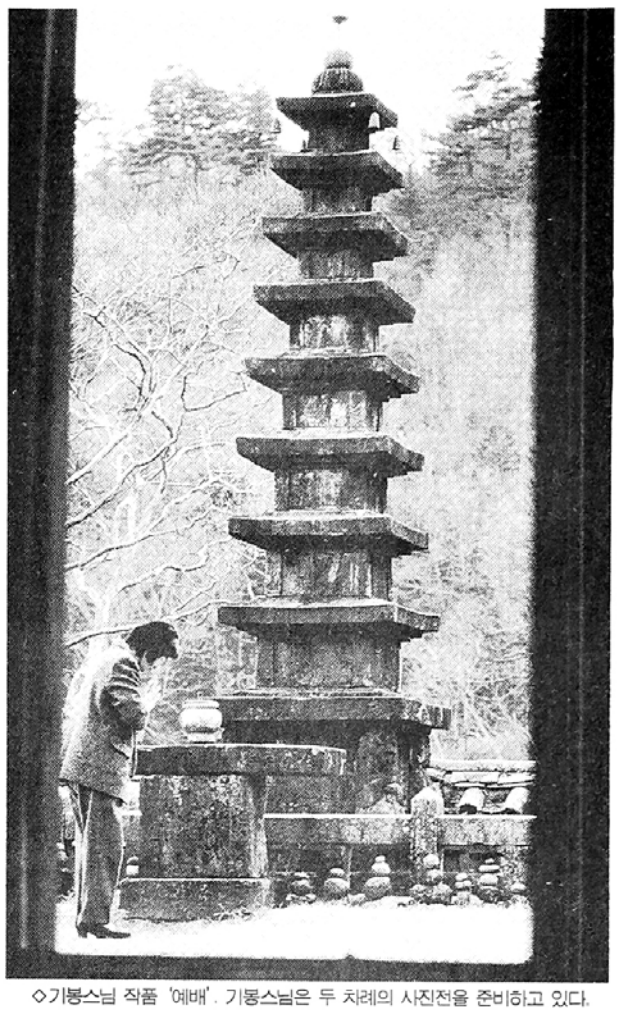
선암스님(신촌 봉원사) 역시 5월 동덕갤러리에서 연꽃 주제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 가시연꽃 겹연 백련 홍련 등 각종 연꽃의 다양한 모습을 찍은 사진 150여점을 선보이는 스님은 6월에는 대만에서 대만비구니 오공스님과 함께 연꽃전시회를 또한차례 가질 예정.

〈석불〉〈열반의 미소〉〈선의 세계〉 등 묵직한 불교소재 작품집을 낸 바 있는 안장헌씨(신구전문대 교수)는 올해 7권의 작품집을 대거 선보인다. 열화당출판사의 '우리문화의 재발견 시리즈' 일환으로 〈젙집 문살문양〉 〈사천왕상〉 〈범종〉 〈飛天〉 〈부도·탑〉 등과 〈서원〉 〈낙선재〉 등이 차례로 나온다. 〈절집 문살문양〉은 내소사 정수사 쌍계사 등 사찰의 화려하고 독특한 문살문양을, 〈사천왕상〉은 보림사 불갑사 등 각 사찰의 사천왕상의 모습을, 〈범종〉은 상원사 등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지닌 종의 모습과 세부 문양들을, 〈비천〉은 탑, 바위, 범종, 부도 등에 새겨져 있는 주악·천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것. 이 책들은 영어로도 번역돼 해외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예술가들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담아 사진집으로 엮는 이들은 육명심씨(서울예전 사진과 교수)와 박상훈씨. 육명심교수는 서정주 고은 장욱진 박서보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모습과 그들에 관한 얘기를 같이 엮어 작품집을 낸다. 박상훈씨 역시 문인 미술가 연극인 등 40여 예술가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집을 준비중이다. 육교수는 또한 참선후의 느낌들을 포커스에 담는, 선의 세계에 대한 영상적 추구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순태씨(신구전문대 교수)는 10월 삼성포토갤러리에서 티벳 파푸아뉴기니아 등 세계 오지의 자연과 삶을 찍은 '오지탐험' 전시회를 갖는다. 또 대원출판사에서 사진안내서 〈풍경사진론〉을 발간한다. 이승민씨는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인천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시가 머무는 곳'을 주제로 우리나라 사계를 담은 풍경사진전을, 불교사진연합회장 이병윤씨는 회원들과 더불어 부천과 조계사 그리고 지방에서 연차적으로 불교주제 기획전을 갖는다. 불교사진을 즐겨 찍는 김대벽씨는 4월 현암사에서 〈한국건축〉을, 5월 대한교과서에서 〈신 국토기행〉을 낸다. 〈한국건축〉에는 무량사 화엄사 무위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조건축 사진이 신영훈선생의 글과 함께 소개된다.

이경숙 기자



◇기봉스님 작품 '예배'. 기봉스님은 두 차례의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

"원효 體·用論 서양사상 새 틀 제시"

국제원효학회 워크샵 '원효학 세계화' 모색

체용((體用·몸과 몸짓)의 논리로 집약되는 원효스님의 사상이 국지적 해석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해석으로 나아갈 때, 서양 종교·철학관에 새로운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12월15~20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금강경〉을 탐독하고 불교·인간·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효스님의 사상적 자리매김을 시도한 원효학 워크샵을 개최, 이같은 가능성을 확인했다.

워크샵에는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박성배 석좌교수(동국대)를 비롯해 전현(시카고 매코믹 신학대) 이명섭(성균관대) 김용표(동국대) 조성택(뉴욕주립대) 교수 등 불교학자 신학자 철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원효학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배 교수는 "원효스님의 사상적 여정은 참다운 몸·몸짓(體·用)을 찾아가는 길"이라며 스님의 사상을 정의했다. 또 "스님은 삼독심(三毒心)에서 시작된 아상·번뇌·망상 등 헛된 몸과 몸짓을 경계했다"며 "이것은 기독교 수행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교수도 "스님의 지적·신앙적 탐구는 몸·몸짓의 관계 속에서 인간 문제를 고뇌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또 "몸·몸짓 논리를 수용하는 자체가 기독교 신앙·사상 상의 난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라며 "〈금강경〉과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몸·몸짓 논리에 의지할 때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수는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서양에 전하는 것은 사유 방식이 다른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되어야 하고, 서양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표교수는 '불경이 제기하는 해석학적 문제'를 통해 "흐름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으로서의 경전 독법과 몸짓을 몸으로 돌이키려는 끝없는 공화(空化)의 수행이 곧 경전해석학"임을 밝혔다.

이명섭교수(성균관대)는 '不'字로 풀어 본 〈금강경〉의 즉비(卽非)와 데리다의 문자학:원효의 몸/몸짓본적 시각'에서 "해체철학자인 데리다의 사유방법은 불교의 공관과 유사하나 체(體)를 찾지 못하는 몸짓"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호암미술관 명품도록 CD제작

화엄경 변상도등 343점 수록…영어·일어로도

삼성문화재단은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국보196호), 아미타삼존도(국보218호) 등 호암미술관의 대표적 소장명품 343점을 CD롬으로 제작했다. 우리 미술문화의 찬란한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보고 그 우수성을 국내 외에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CD롬은 각 분야의 다양한 명품 343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2장의 CD로 구성됐다. 한국어 영어 일어 등 3개국 언어로 지원되며 메뉴마다 각 분야별 특징을 살린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도입해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국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제1권에는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국보133호)를 비롯 청자분청사기 백자 등 171점이, 제2권에는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등과 불화 사경 전적 고서화 불상 불구 금속공예 토기 등 172점 명품들의 제작기법, 특징과 제작연도, 작품명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작품을 크게 확대시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확대보기와 지명에 따른 위치보기, 용어해설도 제공된다.

'한국의 전통예술' 등 문화유산도서 3권 출간

"우리 문화유산 자부심 갖자"

전국민에게 우리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세계문화유산〉과 〈한국의 전통예술〉 등 세권이 출간돼 화제다.

문화유산의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서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펴낸 〈한국의 문화유산〉은 우리문화의 흐름을 정리한 문화사와 함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건축·성곽·회화·공예·조각·전적·문양·지도 등을 현조하는 유물과 유적에 근거해 기술했다.

문화유산의해 조직위와 삼성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펴낸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 석굴암, 종묘, 해인사 장경과 판전, 창덕궁, 수원화성 등 우리문화유산의 역사적 의의와 현황 등을 칼라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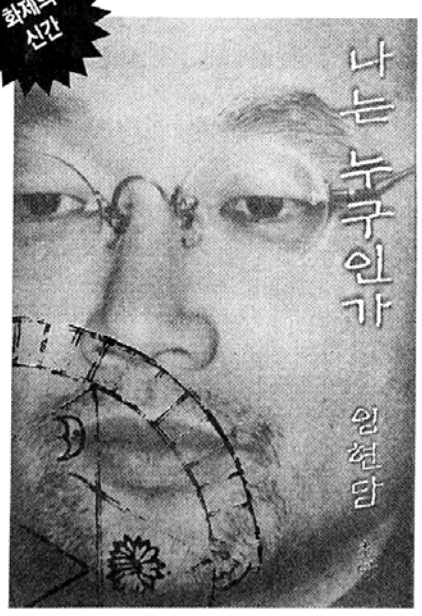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예술〉은 음악·무용·놀이·연극·의식 등의 유래와 내용, 현재까지의 전승과정을 소개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도관 사진자료를 실었으며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았다.

이들 문화유산 도서들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보다 상세히 알게 이끌어주고, 자주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앞에 던져진 영원한 화두!

화제의 신간



나는 누구인가

임현담 지음 / 값 7,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인도와 히말라야의 오지를 떠돌던 의사 임현담.
그가 수액(樹液)처럼 쏟아낸 깨우침을 향한 목소리.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마침내 얻어낸 참된 길.
그 무소유의 삶을 투명한 언어로 담아낸 보석 같은 명상집!

내 앞에 놓인 삶과 죽음의 비밀, 그것은 까르마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아이가 내민 생활기록부의 부모 직업란을 응시하면서 문득 나는 의문에 빠졌습니다.
내가 누군인지 빈 칸에 채워지는 글자대로의 내가 나인지.
그곳에 채워지는 나의 모든 것들이 진짜 나의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비람이 몹시 심하게 불던 어느 날, 나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묻고
또 묻다가 가만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로, 아프리카로, 히말라야로, 사막으로
나를 찾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나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도서출판 초당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8-131호 대표전화 717-1085 팩스 717-1087

이·세·상·에·감·춰·진·진·정·한·우·리·의·행·복·찾·기

바우이야기

고통과 행복의 틈, 좌충우돌하며 진정한 삶과 행복을 향하는 끊임없는 구도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시의 형태로 표현해낸 아름다운 서사시이다. -미네사

대단히 고급스런 문체에다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 음악으로 치자면 명상음악같은 음율을 지닌 멋과 맛이 있는 책이에요. 근래에 읽은 도서 중 가장 정성을 다하여 읽었습니다. -시인 김경수

'바우이야기'는 삶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시인 양정자

"전국 주요서점에서 구입하세요."

지은이·적 경
정 가·7,500원

도서출판 한 길
전화 0346 574 5585 팩스 0346 574 080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5

육조의 의발 ④

혜능은 638년 광동(廣東) 지방인 영남(嶺南)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노(盧)씨.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다가 남해(南海)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모자는 장작을 패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한 손님이 장작을 주문했다. 물건을 가게로 배달해 주고 돌아서 나오는데 문득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혜능의 마음이 문득 환해졌다. 물어 보았더니 〈금강경·金剛經〉이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황매산에서 법을 펴고 있는 5조 홍인의 제자라고 말했다. 혜능은 당장 달려 가고 싶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었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낯모르는 한 독지가가 나서서 선뜻 은 열냥을 생활비로 내놓았다. 노모와 작별한 혜능은 한 달이 넘는 긴 여행 끝에 황매산에 이르렀다.



그림 · 이준석

5조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 혜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新州)의 백성입니다. 화상을 찾아 뵌 것은 부처를 이루고자 해서입니다." 5조는 혜능이 심상치 않은 그릇임을 직감했다. 기쁜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떠보았다. "영남이라면 오랑캐 아니냐. 그런데 어찌 부처가 되겠다고 나서는가." 영남은 중국문명의 중심지인 중원에서 보면 미개한 오랑캐가 사는 지방이었다. 옛부터 이들을 남만(南蠻)이라 하여 멸시했는데, 5조는 일부러 그같은 인종적 지역적 편견을 꺼내 혜능을 시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혜능은 이렇게 응수했다. "사람이야 남과 북이 갈리겠지만 불성에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5조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젊은이와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둘러 앉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참았다. "물러가서 맡은 일을 잘 하게." 5조의 이 말에도 혜능은 거침없이 대꾸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음의 지혜가 밝아 참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무슨 일을 또 시키시려 하십니까." 여기서 혜능의 선관(禪觀)이랄까, 진리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사유를 읽을 수 있다. 5조는 이 말에 짐짓 화를 냈다. "오랑캐놈이 입이 잽싸구나. 썩 뒷마당으로 꺼지거라." 혜능은 고참의 지시로 절 뒤의 방앗간에서 장작을 패고 절구를 찧었다.

8개월이 지날 때쯤 5조가 혜능을 찾았다. "나는 네 견해가 보통이 아닌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혹 나쁜 무리가 너를 해칠까 염려하여 일부러 거리를 둔 것이다. 알고 있었더냐." "저도 그 점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 계신 곳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혜능에 대해 당의 시인 왕유(王維)는 〈육조혜능선사비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학도들이 마당을 메운 가운데서 혜능은 묵묵히 5조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한번도 자기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다. 평소의 생활은 극히 고매한 무아의 경지였다. 자기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누더기옷을 걸치고 언제나 수행삼매로 정진했다."

그 후 어느날, 5조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늘 생사(生死)가 중대하다고 일렀다. 그런데도 하루종일 밥만 축내고 복만 바랄 뿐,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같다. 자신의 본성을 꿰뚫지 못하고는 구원은 없다! 너희들은 이제 각자 돌아가서 자신의 지혜의 본성을 보아 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송 하나씩을 지어내라. 만약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나타나면 6대 조사로 삼아 대대로 전해진 가사를 물려주마. 한시가 급하니 꾸물대지 말고 어서 가라. 머뭇거리며 생각을 더듬고 있어서는 소용없다. 제대로 된 그릇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당장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칼을 휘둘러 적진에 뛰어들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여 천도재의 본뜻을 저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월례행사처럼 천도재를 지내 산 사람이 망자에게 묶이는 형국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빼버린 사십구재나 천도재는 무의미하다. 업에 의해서 만난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간의 인연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며 남는 것이라곤 슬픔 회한 통곡뿐이다. 집착과 갈애 때문이다. 49재와 천도재는 인연의 애착심을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놓아 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죽은 자 가기 싫고 살아있는 자 보내기 싫어 울부짖는 마음에서 인연은 고통이요 허무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마음과 마음끼리 얽어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내 것으로 여겨 세상에 연연하고 미련을 둘 것인가를 배워 죽은 자는 자유롭게 떠나고 산 자는 미련없이 보내야 하는 것이다. 산사람 마음에서 죽은 사람의 천도가 안된다면 그 천도재는 잘못된 것이요, 죽은 사람 마음에서 생전의 인연들이 천도가 안된다면 그 천도도 미완성의 천도재이다.

어떠한 마음가짐과 견해를 가지고 사십구재를 맞이하고 천도재를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法數로 배우는 불교

〈45〉

49재

사후 49일에 불보살 초청 업보푸는 공양

산사람·죽은사람 다함께 집착심 놓아야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슨 액운이라도 끼었나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신을 불러 점을 치던 무당이 시어머니를 보고 "집안에 젊어서 죽은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너무도 영험하다는 표정으로 "오래전에 친정을 방문한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다며 자살한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무당은 그거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였다.

시어머니는 "절에서 사십구재를 지내 주었는데, 딸이 아직도 저승을 못갔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나 무당은 그렇게 지낸 것은 소용이 없고 원혼을 다시 불러 큰 굿을 해야 죽은 딸도 편안하고 집안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가 "어머니! 그 천도재 제가 해주면 안될까요?"라며 "집에 가서 대칼을 갈고 물을 한솥 끓여 무덤에 꽂고 부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죽은 귀신이 어찌 산 귀신을 괴롭힙니까"라며 강몰하게 말했다.

순간 안색이 하얗게 변한 무당은 "이 노릇 삼십 년만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합니다. 신령님조차 며느리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라며 두 사람을 쫓아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무당집엘 드나들지 않게 되었고 딸에 대한 애착도 끊게 되었다. 무당집에서의 며느리 말이 진짜 천도재 역할이 되었는지 복잡하던 집안도 평온을 찾았다.

여기서 며느리의 천도대상은 시집의 죽은 딸이 아니었다. 바로 슬픔과 원한으로 자리잡혀 있는 죽은 딸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십구일째 되는 날에 천도재를 지낸다. 재(齋)란 공양이라는 뜻이다. 〈구사론〉 〈지장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49일동안을 몸이 없는 중음신(中陰身)으로 떠돌다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7일마다 불보살을 청하고 음식을 베풀어 법문을 들려주면 그 공덕으로 좋은 몸을 받게 되거나 왕생극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 사람에게도 공덕이 된다고 한다.

천도의식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업보를 부처님 앞에서 함께 푸는 작업이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사십구재나 천도재의 목적인 것이다. 스님들이 천도재 때 읊는 경문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망자의 넋 뿐만 아니라 천도재에 참석한 유족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자들이 알고 있는 천도의식은 산사람에게는 향해져 있지 않고 모두 죽은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다. 불교의 모든 의식은 마음을 밝히고 깨달아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의미를 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불자들이 사십구재나 천도재를 하나의 제사의식으로만 여긴 나머지 비는 사람, 비는 불공으로 되어 버렸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면 조상이 천도가 안 돼서, 무슨 귀신이 붙어서 하는 식으로 생각하여 천도재의 본뜻을 저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월례행사처럼 천도재를 지내 산 사람이 망자에게 묶이는 형국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빼버린 사십구재나 천도재는 무의미하다. 업에 의해서 만난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간의 인연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며 남는 것이라곤 슬픔 회한 통곡뿐이다. 집착과 갈애 때문이다. 49재와 천도재는 인연의 애착심을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놓아 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죽은 자 가기 싫고 살아있는 자 보내기 싫어 울부짖는 마음에서 인연은 고통이요 허무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마음과 마음끼리 얽어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내 것으로 여겨 세상에 연연하고 미련을 둘 것인가를 배워 죽은 자는 자유롭게 떠나고 산 자는 미련없이 보내야 하는 것이다. 산사람 마음에서 죽은 사람의 천도가 안된다면 그 천도재는 잘못된 것이요, 죽은 사람 마음에서 생전의 인연들이 천도가 안된다면 그 천도도 미완성의 천도재이다.

어떠한 마음가짐과 견해를 가지고 사십구재를 맞이하고 천도재를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3

불교와 수학

38

진리와 분별

김 용 운

佛俗 안녕하신가?

불교 불법과 세속은 '俗佛一如'

수학 유한의 논리 무한세계로 연장

강단에 앉아 있는 임제에게 마곡이 물었다.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어느 것이 정안(正眼), 즉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천 개의 눈과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스스로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를 구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고사리와도 같은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고사리의 어느 하나를 보아도 전체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또 그 부분의 한 개의 잎을 떼어 보아도 전체와 같은 구조이다.

수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자기닮음(Fractal)이라고 한다.

'관음보살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디가 정안이냐?'고 묻는 마곡의 질문에 답이 있을 수는 없다. 마곡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구현되는 불법의 진수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제는 '대비천수안(大悲天手眼)의 어느 것이 정안이냐'고 같은 물음을 마곡에게 반복해 던지면서 빨리 답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마곡은 강단 위의 임제를 밀어내고 자신이 상좌에 앉았다. 임제는 마곡에게 다가서며 '안녕하신가'를 물었다. 마곡이 당황하자 임제는 마곡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 마곡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고 임제도 자리에서 내려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천수천안 관음의 천 개의 눈 가운데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냐?는 물음이며, 둘째는 임제와 마곡이 차례로 두 번이나 자리바꿈을 했다는 의미이다. 강단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내리고, 아래 있던 사람이 강단에 오르고, 또 한 번 그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오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리 교체하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수많은 눈과 손으로 중생을 대하지만 천 개의 눈 가운데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다. 임제는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이라 해서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계를 대하며 그 하나하나의 눈 역시 관음보살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해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를 베풀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떤 입장에 선다해도 그것은 이미 관음보살의 일부분만을 선택한 결과가 된다. 그것은 곧 전체(관음보살)를 그 부분으로 파악하는 일이 된다.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의 철학을 전제로 해도 하나를 택할 때는 一卽多임을 의식할 수가 없다.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면 일(一)은 어디까지나 일(一)이다.

'대비천수안 어디에 正眼(진리)이 있는가?'의 물음은 이미 전체와 일(一)을 나누어 생각하는 분별의 세계이다. 정안의 불법을 떠난 분별(俗)의 세계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임제 자신도 분별의 세계에 들어가 그에 관해 '너 자신이 대답하라'는 것이다.

속(俗)의 물음에 대한 속(俗)의 대답이다.

강단 위에서는 불법의 입장이며 그 아래서는 분별(俗)의 입장이다. 이때 마곡은 불법의 입장을 의식하자 강단 아래서는 대답할 수 없어 불가불 강단 위에 있는 임제화상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나 임제는 앞서 분별의 입장에서 당한 질문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빨리 답하라'고 재촉한다.

분별의 말로써 불법의 진리를 말할 수 없고 불가불 俗(분별)의 세계에 내려가야 한다. 그리하여 '안녕하신가'를 강단 위에 앉은 마곡에게 던진다. 이들이 되풀이하여 강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불법과 분별의 세계를 구별한다. 그리하여 마곡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임제도 자리에서 내려온다. 불교적 진리와 분별이 항상 번갈아 갈 수 있는 속불일여(俗佛一如)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수학의 무한론에서는 유한의 논리를 무한세계로 연장하여 대소의 구별, 무한 세계의 계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한의 유한화이며 유한과 무한이 공통의 논리를 전개한다. 위 자리에 있는 무한과 아래 세계의 유한 사이에 논리의 다리를 놓은 것이다. 임제와 마곡이 번갈아 佛과 俗의 세계를 넘나들이 하고, 그것이 하나임을 '안녕하신가?'라고 속의 물음으로 표시했다.

불법에서는 불법(正眼)과 분별 세계가 범속(凡俗)한 곳에 있음을 보였다고 하면 수학에서는 유한과 무한을 한눈으로 보는 지혜를 가졌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최신간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뀨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뀨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뀨(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뀨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뀨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고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계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대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들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 MATZU 조 | 조 JOSHU 주 | 임 RINZAI 제 | 남 NANSEN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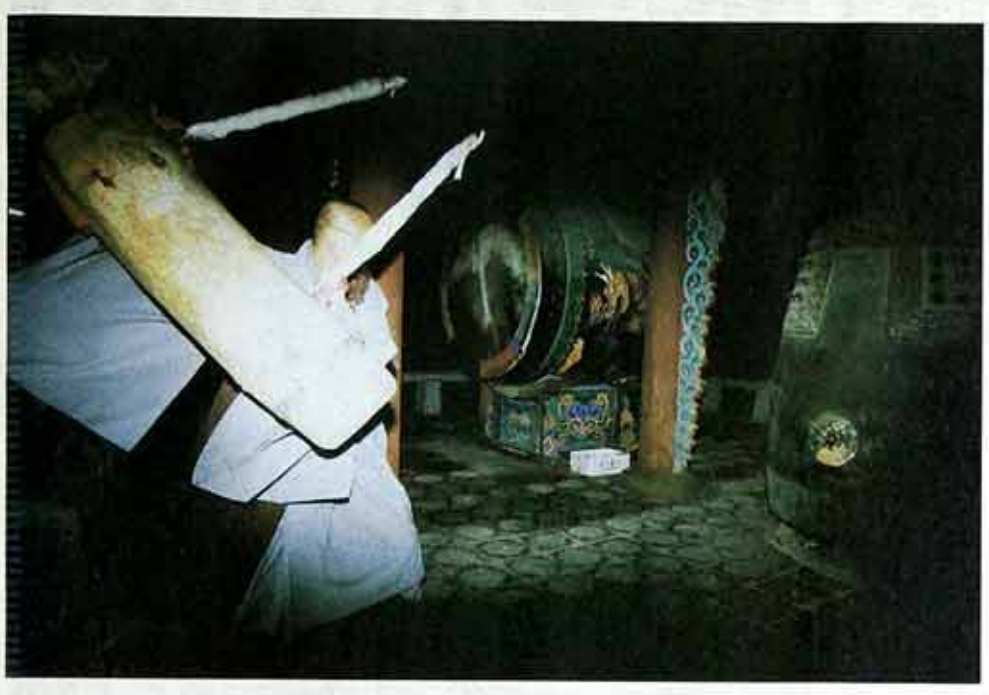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9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지옥중생의 고통을 제도하는 범종을 치는 스님의 힘찬 모습에서 무인년의 청정법계가 열리는 듯하다.

▶'지심귀명'의 화창으로 엄숙히 봉행되고 있는 법주사 아침예불.



"일체중생 어서 깨어나 새아침 맞자"

도량석과 아침예불



◇지상의 일체중생제도를 위해 법고를 두드리고 있다.



◇수중계 중생제도의 염원을 담고 목어를 두드리고 있다.



◇허공계 중생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며 운판을 두드리고 있다.

무인년 새해의 첫날 새벽 3시.

법주사 대웅보전 앞. 안개를 밟고 서 있는 스님의 손에는 커다란 목탁 하나가 들려 있다. 스님의 손이 움직이며 목탁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탁소리가 메아리쳐 온 산을 가득채운다. 속리산 계곡은 한 칸의 법당이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스님의 청량한 염불소리가 잇어지며 새해를 맞이하는 첫 도량석이 시작됐다. 법주사 뿐이겠는가. 이 시간 전국의 사암에서는 무인년의 희망찬 새해를 저 동해바다에서 두둥실 띄워 올리는 목탁소리가 일제히 메아리치고 있을 것이다. 산이 깨고 강이 깨고 들판이 깨어나는 소리, 마침내 온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 던지는 깨침의 소리가 도량석 목탁소리에 묻어 해조음처럼 법계를 채우고 있다.

사천왕석등(보물제15호)과 쌍사자 석등(국보제5호)을 지나 오백 아라한님이 계시는 팔상전(국보제55호)을 한바퀴 돌아 수미산처럼 우뚝 서 계시는 미륵부처님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천왕문과 금강문을 돌아 다시 법당으로 향하는 스님의 발 걸음은 안개보다 가볍다. 어쩌면 스님은 저토록 큰 목탁소리를 내며 저토록 청량한 염불을 하며 법주사 도량을 걷는 것이 아닐 것이다. 경제가 파탄 나버린 땅, 인륜이 혐콜어진 땅, 정치가 뒷걸음질 치는 땅의 고난 속을 걷고 있을 것이다. 언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듯 고난의 땅에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한줄한줄 묻고 있을 것이다.

산사의 도량만 청결히 하는 것은 도량석이 아니다. 법계의 온 중생이 맑은 눈을 뜨고 새날을 맞길 기원하는 자비의 의식이 바로 도량석이다. 그래서 도량을 가득채운 안개 마저도 숨을 멈추고 스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인가. 도량석은 하루를 여는 장엄한 의식의 제1막일 뿐이다. 어느새 불이켜진 법당에는 기러기처럼 줄을 갖춰(雁行) 들어 온 대중스님들이 정좌한채 새해의 첫 예불을 준비하고 있다.

법당안에서 쇠징을 치는 소리가 천상의 주악처럼 울린다. 단아하게 앉은 스님이 쇠징을 치며 게송을 읊는다. 일체 중생이 무명을 벗어나 지혜의 숨결로 살아가는 가르침이 한 구절씩 법당안을 채우고 있다. 한구절이 끝날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장엄스레 메겨 넣는다. 어느 성악가의 무대가 이처럼 엄숙하고 아름다울 것인가. 어둠 속에 대웅보전이 있고 대웅보전 속에 부처님이 계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수행승의 음성공양은 우주의 어둠도 한줌 안개인양 흩어 버리는 것을.

쇠징과 음성으로만 이어지는 게송이 끝나자 종고루에서 '두두둥 두두둥' 북소리가 울린다. 사물(四物)을 두드려 법계 중생을 이고득락(離苦得樂)케 하는 의식은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있어 더욱 장엄하고 엄숙하다. 네 스님이 북과 종, 목어, 운판을 차례로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허공계와 지옥계까지 짜렁짜렁 울리는 노래를 부르는 듯 하다.

무인년 여는 첫 새벽
목탁소리 이어지는 도량석
경제고난 이겨낼 힘
모두에게 있음을 알린다

범종-북-목어-운판
四物소리 가득한 도량
아침예불 올리는 마음
"일체중생 눈을 뜨자"

지상의 일체중생은 이 북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지옥계의 일체중생은 이 종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허공계의 일체중생은 이 운판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수중계의 일체 중생은 이 목어소리를 듣고 눈을 뜨라.
눈을 뜨면 보일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듯 환하게 열리는 청정법계가 보일 것이다.
새해에는 눈을 뜨자.
호랑이 같이 부릅뜬 눈으로
경제를 살리고 인륜을 세우고 정법의 길을 열자.
새해에는 호랑이같이 눈을 뜨자.

북을 치는 스님은 북소리 속에, 범종을 치는 스님은 종소리 속에, 목어를 두드리는 스님은 목어 소리 속에, 운판을 치는 스님은 운판의 소리에 묻힌다. 그렇게 스님은 없고 소리만 있는 종고루 위 하늘에서는 새벽별이 빛나고 있다. 중생계의 염원, 새해를 맞으며 발원하는 간절한 염원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법당에서 목탁소리에 맞춰 아침예불이 시작된다. '오분향례'로 시작되는 예불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20여 대중이 올리는 아침예불은 '지심귀명(至心歸命)'의 화창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제불보살님과 역대조사의 가르침을 따라 위없는 정각을 얻으리라는 서원이다.

새해 첫 아침예불에는 재가불자들 20여명이 참기했다.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은 예불이 끝나고 그들을 위해 짧게 설법을 했다.

"우리의 경제가 오늘의 과국을 맞은 것은 소욕지족의 도리를 무시하고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한 업보인 겁니다. 새해에는 모든 중생이 화합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소욕지족의 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도록 합시다."

어느해 보다 어려웠던 정축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이하는 무인년 새아침. 이 아름다운 아침은 온 우주가 법주(法主)의 도량되길 간절히 희구하는 법주사 도량석과 아침예불에서 밝았다.

글=임연태 사진=고영배 기자



◇도량과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새벽 3시의 도량석.

도량석이란
새벽 3시 도량돌며 청정기원

새벽 3시에 도량석(道場釋)을 봉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루 일과중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도량석이다. 도량주변을 살살이 돌며 염불이나 게송을 외우는데 흔히 〈천수경〉을 외운다. 그것은 〈천수경〉에 도량을 청결히 해주는 '도량게(찬)'가 들어 있고 각종 진언등이 도량석의 본래 정신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 '사방찬' '도량찬' '참회게'만을 외우며 도량을 도는 경우도 있다.

이중 '도량찬'은 법계에서는 도량게라 하는 것으로 "도량청정무하애 삼보천룡강차지 아금지송묘진언 원사자비밀가호"의 네구절이다. 여기에는 "도량이 청정해 티끌하나 없으니 삼보와 천룡은 이 땅에 내려 오소서. 내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나니 원컨대 자비가호를 내리소서"란 뜻이 담겨있어 새벽 도량석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찰에 따라서는 경을 외우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을 정근하거나 〈금강경〉의 게송이나 선사들의 게송을 외우며 도량석을 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천수경을 한번 외우는 경우가 많다.

아침예불은 글자그대로 아침에 하는 예불의식이다. 사찰에서는 아침과 낮(사시 즉 오전10시) 그리고 저녁에 각각 예불을 올린다. 아침예불은 우선 각단에 차나 청정수를 올리는 다게례부터 시작된다. 이어 사물과 종송이 진행되는데 종은 아침에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 예불문은 삼보에 귀의하고 문수 보현 지장보살과 역대 선지식께 귀의하며 그 덕을 찬탄하고 원을 세워 온 중생에게 회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발원문과 중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염송하는 것으로 아침예불이 끝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분노품(忿怒品) ②

常自攝身 상자섭신
慈心不殺 자심불살
是生天上 시생천상
到彼無憂 도피무우

항상 제 몸은 스스로 다잡고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 않으면
이것이 천상에 태어나는 길
거기에 이르러 근심 없으리라

意常覺寤 의상각오
明暮勤學 명모근학
漏盡意解 누진의해
可致泥洹 가치니원

마음이 언제나 뚜렷이 깨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닦고 배우면
번뇌 다하여 속박에서 풀리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고 말리라

人相謗毁 인상방훼
自古至今 자고지금
旣毁多言 기훼다언
又毁訥忍 우훼눌인

슬기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

如羅漢淨 여라한정
莫加誣謗 막이무방
諸人咨嗟 제인자차
梵釋所稱 범석소칭

저 아라한처럼 깨끗한 이를
모함하거나 헐뜯지 말라
뭇 사람이 그를 찬탄하고
범천·제석도 그를 칭찬한다

常守愼身 상수신신
以護口患 이호진에
除身惡行 제신악행
進修德行 진수덕행

항상 제 몸을 삼가지키고
성내는 마음을 잘 가둬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을 떨쳐버리고
덕행을 잘 닦아 가도록하라

常守愼言 상수신언
以護口患 이호진에
除口惡言 제구악언

"제 입 삼가 지키고 성내는 마음 가둬 법다운 말이 입에 익숙토록 하라"

亦毁中和 역훼중화
世無不毁 세무불훼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한다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으니
말 많으면 말 많다 비방하고
말 적으면 말 적다 헐뜯으며
중간을 취해도 또한 비방한다
세상에선 헐뜯지 않는게 없다

欲意非聖 욕의비성
不能制中 불능제중
一毁一譽 일훼일예
但爲利名 단위이명

욕심 내는 일은 성스럽지 못하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에
헐뜯었다 칭찬했다 속절 없거늘
모두가 이익과 명예 위한 것일 뿐

明智所譽 명지소예
唯稱是賢 유칭시현
慧人守戒 혜인수계
無所譏謗 무소기방

지혜가 밝으면 기림을 받고
어질다고 칭찬한다

誦習法言 송습법언

항상 제 입을 삼가 지키고
성내는 마음을 잘 가둬서
입으로 짓는 나쁜 말 끊어 버리고
법 다운 말이 입에 익숙토록 하라

常守愼心 상수신심
以護口患 이호진에
除心惡念 제심악념
思惟念道 사유념도

항상 제 마음 삼가해 지키고
성내는 마음을 잘 가둬서
마음으로 짓는 나쁜 생각 씻어버리고
오로지 도만을 마음에 두어라

節身愼言 절신신언
守攝其心 수섭기심
捨諸行道 사에행도
忍辱最强 인욕최강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제 마음 다잡아 잘지켜서
성냄 버리고 도를 행하라
인욕이 가장 강한 도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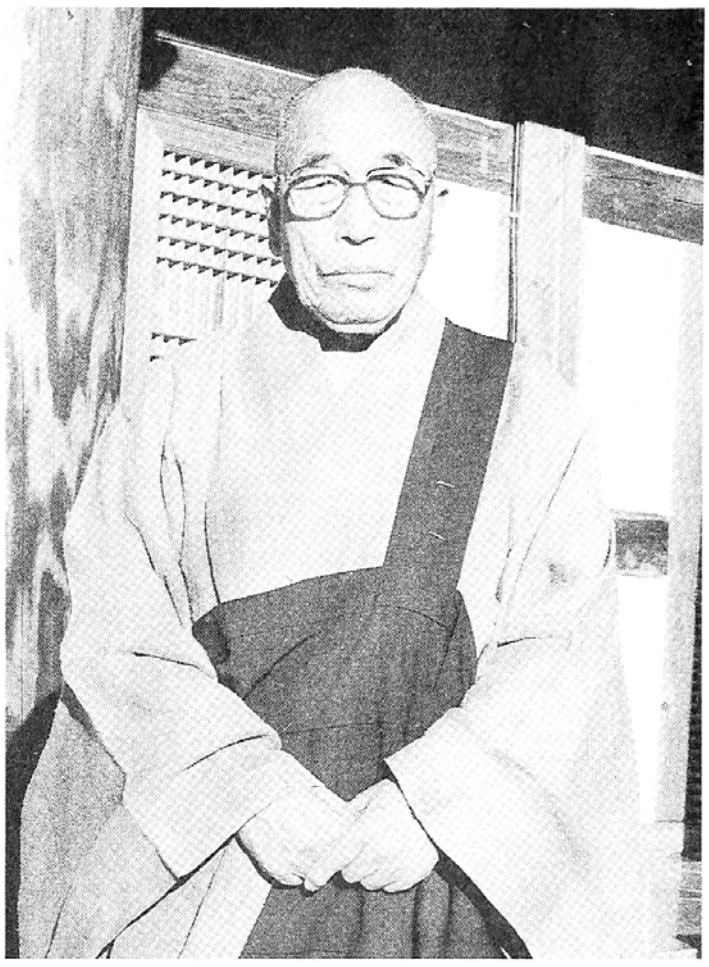
龍眼

새아침 수행한담

"나라 어려움 이기려면

월하스님 〈통도사 방장〉

나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은 삼독 일으키지 않도록 마음 다스려 지탄받지 않는 지도자 되길…



약력
- 1915년 충남 부여 生
- 40년 통도사에서 보살계·비구계 수지
- 55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56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 58~80년 통도사 전계화상
- 72년 통도사 조실
- 75년 동국학원 이사장
- 79년 조계종 총무원장
- 93년 4월 조계종 종정 추대
- 84~현재 통도사 정변전 주석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무인년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움으로 차 있습니다.

무인년 새해는 희망찬 출발이라고만 볼수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지혜를 모아 나가야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현재 경제는 외국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조를 받았으니 지시를 받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요새 어느단체에서 반지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진 사람이 모두 하나씩만 내놓아도 큰 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그간의 행동을 반성하고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서 나왔고 그러한 잘못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탓하기전에 하나된 국민의 힘을 보여준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해는 더욱 복되고 밝은 해가 될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따라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것이니 복된 새해 살림살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부터 차근 차근 실천해 나가는 지혜를 보여야 할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은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출가자는 출가자의 직분을 다할 때 국가나 종단, 개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스님이 나서서 나라를 위하는 선전을 하고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것이 더욱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자기 맡은바 직분을 잘 행하는 것이 충성하는 길이지 대통령이나 높은 이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것은 사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각계각층의 공무원들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다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자기이익만 바라니 뇌물을 주고 또 그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부정부패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과감히 부정의 고리를 끊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분을, 승려는 승려의 직분을, 국민은 국민의 직분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밝게 정화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이 집권당시 저질렀던 부정으로 옥고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마음을 잘못 써서 대통령으로서 직분에 어긋나는 사사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의 통치권자가 된 대통령은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대통령의 직분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에 주어진 돈을 개인의 돈으로 알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축재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왔다고 자기것으로 알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시주했으니 복받겠지' 생각하면 성품 밝히는 일 멀어져요 일념으로 근본자리 찾으세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은 부처님 말씀의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가다보면 그 이상 잘 하는 대통령이 없다 할만치 될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전에 많고 숱하지만 인간살이에서 중요한 것은 간단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선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서 출발해서 더 여력이 있어 남을 도우며 살아간다면 더할나위가 없지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했듯이 자신의 실천으로 보리를 구하면서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사는 것이 바로 불제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요즘은 내 젊은 시절에 비하면 살기는 풍족해 졌는데 나누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그것은 모두 욕심으로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하거든요. 육바라밀에도 있듯이 보시의 공덕은 한량없는 것입니다.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보시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서 '내가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보시라고 볼수 없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었다거나 해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어려운 이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시의 공덕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마음이라도 힘이 되어야죠. 오히려 이 마음은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이 되어 여건이 맞으면 행으로 실천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은 자신의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만이 느끼는 기쁨을 맛보게도 해줍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출가자의 길을 선택해 그나마 개인의 욕심에 매이지 않고

무당산 장삼봉

武當派 현지 수련회

내가기공(內家氣功)과 내가권법의 발상지이자 무림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신화적 인물 장삼봉 조사의 현문정종(玄門正宗) 무당파(武當派)-중국 호북성 균현 무당산 소재-에서 우리나라에 공인대표부를 설치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본문 무당파에서는 중국 무당파 본산 주최, 무당파 주한대표부 주관사업으로 현지 수련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수련내용은 무당파 적전의 기공비법과 무공절예(武功絶藝)이며 무당기공은 리자진인 현원자(무당파 제 14대 장문인인 동천진인 유현덕 도장의 4대 적전제자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이자 한국인/현재 무당파 주한대표부 주지)도장이, 내가권법은 전ㄹ 양(무당파 삼봉무교 총교련/자소궁 출가도사/유현덕 장문인의 수제자)도장이 각각 직접 전수 합니다.
※ 12월 29일 스포츠서울 사회면 무당파 기사 참조

■ 수 련 내 용 ■

〔1과정〕 내가기공(98년 1월~7월, 28주 총 56시간 수련)
비종내공, 선천 단기공, 내외기수방공(장풍, 지풍), 무당경신공(경공법), 무당오행내가종수 외.

〔2과정〕 무공절예(98년 8월 3일~9일. 6박 7일 합숙수련, 무당산 삼봉무교)
무당태극권(장삼봉 조사가 창시한 모든 태극권의 원조이며 속가의 태극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태을 소요장(팔괘자을 능가하는 비전의 掌法), 기문병기(奇門兵器).

♠ 등록
· 인원제한 : 선착순 20명 마감
· 회 비 : 250만원(왕복 비행기, 호텔숙식, 교육비 일체포함)
· 회비납부(온라인) : 국민은행 301-01-0611-324 (주한무당파)
상업은행 402-05-018440 (주한무당파)
※ 신용카드(12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 특전
한번 등록하신 회원은 평생 무당파 문하제자로 관리되며 정기적으로 집회하여 현지의 최신정보와 수련법을 수시 제공합니다.(회원증, 사범자격부여)
천년에 한번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삼봉 무당파 주한대표부(무당산 자소궁 주한 포교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1리 600-1 전화 : 0361)261-9733
장문인 理慈眞人 玄元子 합장

한마음 전통메주
청농식품

천등산 한마음 메주의 특징
충북 충주시 산척면민이 재배한 순수 메주콩(백태)를 천등산 맑은 청정수로 씻고 삶아 황토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효시킨 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수장을 담그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리 메주입니다.

천등산 한마음 메주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울고 넘는 박달재를 소재한 천등산 자락의 광동부락에서 부락민이 직접 정성들여 씨뿌리고 재배하여 수확한 햇콩만을 사용합니다.
· 천등산 자락의 맥반석 단지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을 씻고 삶아 만듭니다.
· 신비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황토 온돌방에서 볏짚을 이용 순수하게 자연발효시켜 전통적인 맛과 향이 나는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농식품이란?
본 청농식품은 1996년 농림부가 전통식품 제조업체(메주)로 지정한 확실한 우리농민의 업체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부락민 5인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신토불이의 정신과 국민건강증진을 최대목표로 한겨울 내내 열심히 우리의 맛과 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5-1
● 전 화 : 0441)853-9982
● 핸드폰 : 011)467-998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숙(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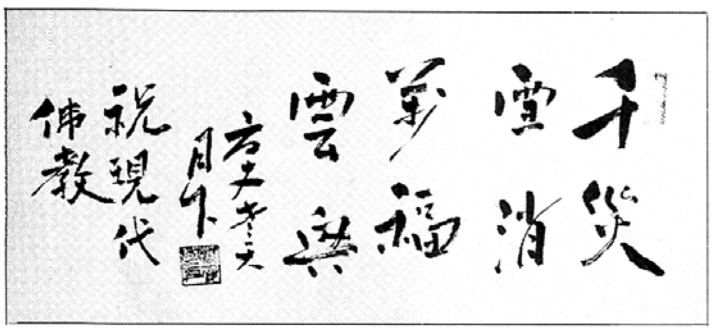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새아침 수행한담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월하스님의 신년휘호 '千災雲消 萬福雲興(천가지 재앙은 눈녹듯 사라지고 만가지 복이 구름일듯 일어난다)'

서로 옳고 잘낫다 주장하는데서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지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것 해결

백가지 말보다 한가지 실천 중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받아 들이세요”

살아가게 된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나의 출가는 현상계로 짚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지만 참으로 고마운 인연입니다.

내 고향은 부여인데 그곳에 가면 고란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고란사에 종종 가곤 했는데 갈때마다 공연히 그곳이 좋아보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님네들을 보면 그때 생각으로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곳에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네들의 생활이 퍽 고상해 보이는 데다가 '아무나 이런데 와서 사는것도 아니고 어째서 이런데 와서 사는가'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다 18세 때 '나도 절에 가서 절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고 결심하고 한달가량 절에 가 있는다고 한것이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절에 온 이후 속가 부모님께 세 번이나 붙잡혀 갔었습니다. 잡혀가도 하룻밤 자고 도망치듯 나오니까 결국 부모님은 그렇게 세 번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더군요. 그 ㅇ후 부모님께서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는 한편으론 '이제는 잡으러 와 줄 이도 없구나' 하는 허전한 맘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한가지 걱정을 잊어버린 듯 하더군요.

출가해서는 은사이신 구하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도반들과 함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은사스님의 말씀이라면 힘들다 어떻다 이유는 꿈도 못꿨어요. 스님의 말씀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대로 따른것입니다.

구하스님께서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대중에게 지탄받지 않게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언행하나 하나에 마음을 쏟아야 가능한 일이라… 그대로 그저 그 가르침에 따르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여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욱 분발하려고 애를 썼지요.

요즘은 자유로워진 시대분위기를 타고 수행풍토가 많이 무너졌지만 그때는 철저했거든요. 요사이 출가한 이들을 보면 수행력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엉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행은 개인의 몫인데 일일이 나서서 간섭할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 각자가 부처님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거든요. 출가자들이 각성을 하고 수행에 전념하지 않으면 불교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불교지 다른 말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계받은 이들은 보살계의 정신에 입각해서 생활하고 부처님말씀에 가깝게 행동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교를 살릴수 있고 수행풍토를 되살릴 수 있는 첩경입니다. 또한 종단차원에서도 행정 포교 교육등 각 방면으로 부처님 말씀에 저촉안되게 해서 수행력을 높여야 해요. 그래야 다른 대중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효과도 극대화 됩니다. 그 실천력만이 허물어진 수행풍토를 다잡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종단차체의 수행풍토가 허물어져 있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는 것이죠. 수행풍토가 허물어지니 저마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 들지 않고 자신들 편한 대로 갖다 붙이려 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양화된 시대에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서로 옳고 잘났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싸움이 일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세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두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안됩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 입으로만 불법을 말하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가운데서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이나 다른 이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언행을 해도 자신을 낮추고 받아 들이게 되는 것이죠.

흔히 아상을 없애야 한다고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여의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도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오히려 아상만 높이고 있는 듯 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나라고 내세우는 생각조차 없애는게 진정한 하심(下心) 입니다.

나는 요즘도 대중공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한은 대중들과 함께 공양할것입니다. 나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혼자 따로이 상을 받는 것은 표본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주지만 되어도 독상을 받고 다른 상보다 잘 차려먹고 자기 생일이라고 신도들이 해주는 특별상을 받고 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일의 공덕은 부모님의 몫이지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질 못할것입니다. 나도 생일이면 밑에 권속들이 생일이다 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서 피해다니곤 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번거로와 그럭저럭 지내기는 하지만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나칠 정도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먼것입니다. 나는 내 거처 주변의 잡다한 일들은 가능한 내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남의 손이나 생각을 빌려면 내가 하는 것보다 열번은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는 움직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다가 가야죠. 백가지 말보다 한가지의 실천을 생활속에서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잎은 반드시 나무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처럼 자신이 나온 근본처에 대한 간절한 귀의가 자연의 이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 근본처에 귀의하고자 하는 수행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 불교입니다. 세상살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부모 등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출가자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본래 밝아있는 성품을 찾고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가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품을 밝히는 일에 간절한 일념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자기 성품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복을 짓는 시주와 불사금 동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시주했으니 복받겠지' 하는 그 교만한 맘으로 자칫 오히려 성품을 밝히는 일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복의 인을 지으면 복의 과를 받게 되므로 자신의 불성을 밝히는 노력이 흐릿해져 버리기가 쉽지요. 편안히 살고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면 참선하고 염불할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선도 악도 짓지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연으로 과를 받아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육체가 살아있는한 지극히 염불하고 참선해야 합니다. 불제자는 마땅히 불성을 밝히는 노력으로 자신의 성품자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대발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삶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마침내 부처님과 같이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묵묵히 가야 할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나와 경전 〈36〉

숫타니파타



홍 사 성
불교TV 편성제작국장

〈숫타니파타〉는 한역 불경에는 없는 남전대장경 소부에 들어있는 경전이다. 숫타(sutta)는 팔리어로 경, 니파타(nipata)는 집합이라는 뜻이므로 굳이 한문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경집(經集)'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숫타니파타〉에는 작은 제목의 경이 70개가 들어 있으며 이 경들은 사품(蛇品), 소품(小品), 대품(大品), 의품(義品), 피안도품(彼岸道品)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전의 형식은 대체로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70개의 경은 모두 1149수의 시로 구성돼 있어서 읽기가 아주 쉽고 편하다. 경전의 주된 내용은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심이지만 중요한 교리문제에 대해 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 경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불교경전의 초기원형을 간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전 편찬자들의 주관적 의지가 최소한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짐작하기에 최적의 경전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경이 갖는 가장 뛰어난 장점은 아무래도 내용의 소박함과 평이성일 것이다. 대개의 경전이 딱딱한 교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이 경은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관한 설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을 읽다보면 마치 부처님이 지금 우리곁에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자상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의 경우 많은 경전은 읽지 못했지만 〈숫타니파타〉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전은 별로 보지 못했다.

이 경전이 최초로 출판된 것은 1969년이었다. 법정스님의 번역으로 〈지혜와 자비의 말씀〉이라는 표제를 달고 역경원에서 간행됐다. 내가 이 경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생 때인 1971년 작고한 서경수 교수께서 필독서로 추천해 준 인연으로서다. 대승경전에 길들여져 온 입맛으로는 좀 싱겁게 느껴졌으나 읽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다. 나는 그해 겨울내내 밀쳐놓았다 펼쳐보며 이 경전을 읽었다. 그후 나는 이 경전을 늘 책상위에 올려놓고 시간날때마다 펼쳐보고 있다. 책을 꺼내놓고 아무데나 펼치면 금방 이런 가르침이 눈에 들어온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며,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제1장 8절, 자비〉

'손위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제2장 8절, 도덕〉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인은 그것에 동하지 않는다. 성인은 무슨 일에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제4장 3절, 분노〉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않을 때, 화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져 짜증이 날 때, 누구든 펼치면 금방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경이다. 경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불자들이 이 경을 한권씩 갖춰 놓고 틈틈히 읽는다면 그 종교생활은 더욱 진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의 마음자세 다룬 운문 1149수

“세상사 힘들때 펼치면 위안 얻어요”

- 머릿글 -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며 제방을 뭉개고 농토를 짓밟았다. 강둑이 무너지는 소리는 세상이 한꺼번에 함몰되는 듯한 극한이고 절망이었다.

무겁고 처참했다. 초가삼간 누옥마저 물에 잠겨버리고, 등골이 휘도록 땀을 흘려 베어놓은 들판의 보릿단도 수마에 휩쓸려 가고, 더러는 그것들이 낱알을 달고 애물처럼 마을로 떠밀려 왔다.

그나마 물에 젖어 연방 싹이 나는 보리를 건져다 무쇠솥 뚜껑에 말리는 참상은 60년대 가난한 보리 흉년의 현주소였다. 마치 전쟁 같았다. 생존과의 투쟁, 어린 새가슴은 상처로 얼룩졌고,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내 최초의 끈질긴 질문이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듯 모질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까닭이 궁금했다. 아예 세상이 열리지 않았다면, 천지(天地)간이 고요 속에 평화를 누릴 터인데 고해(苦海) 같은 세상사를 지은 신(神)이 원망스러웠다.

대관절 삶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의도에서 났다가 돌아가는 곳은 어드맨지, 나는 또 누군지, 끝없이 치솟는 의문의 불길로 가슴을 치다가도 제 풀에 지쳐 "내가 나지, 뭐긴 뭐겠나" 자답해 보지만, 금세 갑갑했다. 넘치는 불길은 다른 어딘가로 분출하기 마련이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곧추 서있던 미욱한 만용으로 한때는 막시즘에 심취되기도 했었다.

다행히 그것을 계기로 불법(佛法)을 만났고, 곧 '나'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있고, 천지간에 오직 하나뿐인 나 자신이 바로 대우주와 동격을 이루고 있음을 비로소 느꼈다. 난생 처음의 희열이었다.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자신이 천지의 태동과 함께 존재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어쩌다 서럽게 생겨난 목숨으로 오인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었던 셈이다.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공존함이 분명하며 그 억겁의 시공속에서 우리가 무시로 짓는 악업이나 선업들이 먼지만한 오차도 없이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현세의 오묘한 질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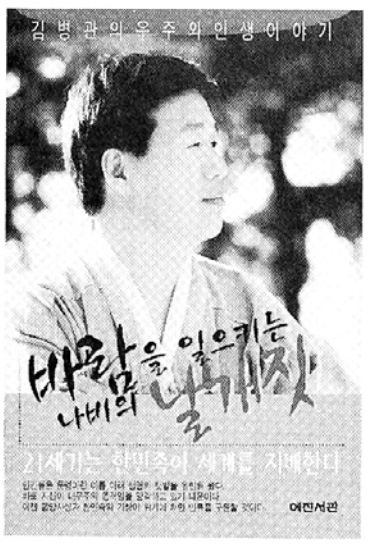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ㅇ제 보다 성숙한 과학이 필요하다. 기하학에서 프렉탈 도형은 약간의 조작으로 매우 다양한 현상이 연출된다 아무리 빈약한 생김새도 전체의 구조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보일 듯 말 듯한 지극히 경미한 오차가 반복되면서 기하급수적로 증폭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나비효과'이다.

오늘 종로 거리에서 날던 나비 한 마리가 일으킨 바람이 내일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 질서의 순환성을 의미하겠으나, 모든 순환의 고리는 '인연'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음은 '나비효과'의 가공할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윤회'사상도 즉 '나비효과'의 순환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天佑神助로 불법을 만난 것은 생(生)의 축복이었다. 선근(善根)이 부족해 중도 하차한 것이 애석하나, 어느 집단 어느 땅이나 구가하는 바의 가치를 함축한 실(實)이 있음을 확신하며 또 체험해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기적 국운의 개벽기를 떨리도록 기대하면서 우리 민족의 잠재된 기상과 정신을 일깨우는데 미련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뜨거울 뿐이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새로운 정신문명을 발아시켜 어려움에 처한 인류를 머지않아 이 땅의 우리가 구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자긍심과 의지는 곧 '폭풍의 눈'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의 저자
생활체육 버드민턴 서울시연합 회장 김병관
TEL : 02)3428-3668 FAX : 3426-3469



도서출판
혜진서관
TEL : 332-0672
FAX : 335-0698

김병관의 삶과 우주의 이야기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

제3회 신행수기공모 당선작 발표

시상식 1월24일 오후2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한 '98 제3회 신행수기 공모에 총 1백2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불자도 참여해 분길을 끌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바른 신행의 실천으로 큰 감동을 주는 7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월24일 토요일 오후2시 현대불교신문사.

◇대상(유마상)

백일기도

이매림(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자동명 법등명

이태순(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우수상(본사 사장상)

"어머니 불교를 다시 믿으시다"

박윤희(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특별상(종단협회장상)

'미국까지 와서 불교를…'

김연장(뉴욕 유니온가 29-12)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진실한 믿음

조영숙(대전시 대덕구 법동)

나한도량에서 맺은 인연

김재화(울산시 중구 대원동)

◇특별상(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참회의 눈물

안금숙(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심사위원 △법산스님(본사 논설위원·동국대 불교대학장)
△고은(본사 상임고문·시인)
△김광삼(본사 사장)
△최정희(본사 편집국장)

백 일 기 도

이 매 림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남편의 부도 실직으로 찾아온 절망 시어른·아이도 내 삶의 뿌리 흔들고 '나는 왜 이런가' 의문에 어머님 모습이…

(1)

겨울의 문턱에서 나는 또 백일기도를 시작한다. 오늘(97.11.28)이 입재. 내년 3월 초순 내 생일이 회향일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 작년 기도는 절실하고 절박했던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올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고행도 벗어나면 그리움으로 남듯이 작년 나의 삶이란 얼마나 곤고(困苦)했던가. 애년(艾年)을 눈 앞에 두고야 삶이 만만찮다고 실감하며 부처님 전에 오체투지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인가.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을 신산했던 날들로만 반추하지 않으니 어찌 부처님의 위력을 의심하리. 삶이란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씩 꺼치고 가는 길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렇다. 분명 그것은 사실이었다.

큰애의 중학교 입학식 날부터 나에게는 불행과 줄긋기를 하는 단어들이 앞을 다투어 춘아져 나왔다. 회사부도·채무자·채권자·실직·해약·담보….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까지 합세하여 협공해 올 줄이야.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시어른마저 퇴직금 전액을 바람에 날리고, 당신들이 거처할 곳으로 우리의 눈치를 살필 줄이야.

나는 고통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그 절망은 그대로 큰애에게로 전이되어 갔다. 자연히 녀석의 학교생활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다.

시어른·남편·아이. 이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사람들이었다. 끝없이 밖으로 향해 쏘아대던 원망의 화살이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로 되돌아옴을 느꼈다.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인 것을.

자생력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온 내 삶이 문제였다. 결코 나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이러한가?' 하는 자괴심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이십여 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는 나에게는 관음보살이었다.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시절, 그래도 어머니는 그 시절의 어려움을 굳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열두 폭 치마 폭으로 사남매를 이리저리 감싸면서 넉넉하게 우리를 키워주셨던 어머니. 이제사 간절히 어머니가 그리워지니, 나 또한 어머니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허방을 짚고 몸져눕며 어머니를 부른다. 천수천안(千手千眼)을 가진 어머니시니 어디 계신들 막내딸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랴.

"아가, 울지말고 부처님 품에 안기어라. 거기 길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이 선연히 떠오른다.

새벽예불로 아침을 열고 관음정근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평생을 신심에 의지하셨던 어머니. 스님 대하기를 부처님 친견하듯이 행하셨던 어머니. 알음알이만을 좇는 우리들의 신심을 향해 "무조건 믿어라. 기도의 끝은 있다. 기도의 끝은 분명히 있다"를 강조하셨던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신심을 맹신이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삶이 이토록 과괴해진 것일까? 죄책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래, 얼마인들 삶이 어찌 버겁지 않았으랴. 기도의 끝은 있는거야. 무조건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나는 분연히 일어나 기도처를 찾았다.

도봉산 관음암을 찾아가던 날은 10월 관음재일이었다. 집을 나설 때부터 간간히 내리던 빗방울은 마당바위를 지나면서 눈발로 바뀌었다.

첫눈이다. 불혹의 고개를 넘은지 오래이건만 첫눈이 내릴 적마다 나는 소녀가 된다. 서설(瑞雪)이리라. 만장봉을 바라보니 이미 백발의 부처님은 입정에 드셨고 사방은 극락세계이다. 관음암에도 백의관음이 시현하셨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은 조급해졌다.

눈길을 재촉하며 두어 시간 만에 관음암에 도착하니 용허리는 땀으로 흥건하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로 목을 축이고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여기가 천상이 아닌가. 수많은 돌부처님은 백의관음이었고 간간히 울리는 풍경소리는 대웅전 처마 마루에 올라앉은 산까치와 화답을 나눈다.

눈사람이 되어 들어서는 나에게 주지스님께서는 놀라움 반, 반가움 반으로 얼른 문을 열어 주신다. 녹차향 그윽한 아랫목에서 스님은 온아한 미소로 옛날 이야기 하듯이 법문을 설하신다.

'영향상종(影響相從)'의 경구를 인용하며 신(業)은 실체요 행(行)은 메아리인 것을 어찌 나누어 생각하겠느냐며, 넌지시 나의 오만함에 벼락을 울리듯 하셨다. 덧붙여 종교를 거부하는 과학은 교만이요, 과학을 거부하는 종교는 미신이라며 행의 지극함과 기도의 성취에 대하여 여러 일화를 들려주셨다. 백일간의 관음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세번은 부처님 전에, 나머지 날은 집에서 지극 정성으로 행한다면 주변에서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신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다.

오전에는 천수심경·관세음보살 보문품경·고왕경·몽수경·법성게·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백팔참회와 명상으로 하루의 기도를 끝맺으라고 하셨다.

결연한 각오를 하면서도 이 한 겨울, 도봉산에서 제일 높은 관음암을 일주일에 세번 오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몸 고달프다고 어찌 기도를 포기할 수 있으랴. 차라리 청산이 받는 고통을 몸이 대신할 수 있다면 어디인들 몸을 못 던질까 하는 처절한 오기가 치솟았다.

(2)

96년 12월8일에 시작했던 백일 관음기도 입재일을 잊지 못한다. 근 한해를 폭음과 미혹에 빠져 무명 속을 헤매던 남편도 선뜻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배반으로 되돌리는 인심을 향해 무수히 주먹질을 하다 지친 끝에, 운(運)을 바꾸어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정법을 멀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신심을 기리며 분연히 일어서는 나의 용기에 남편 또한 발심한 것이다.

스님의 낭랑한 독경소리에 맞추어 부처님 전에 절을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합장하고 고개 숙일 때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만 무성이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런 나를 묵묵히 내려다 보시는 부처님께 한없이 죄스러웠다. 그러면서도

佛紀 2542年 戊寅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 관음사(포교당) ◆
부 설 : 금천 유치원
주 지 현 법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29번지
TEL : 0391-43-2985/42-9975 유치부 : 0391-42-9976

대한불교조계종
◆ (재)한마음 선원 대구지원 ◆
지 원 장 : 혜 계
신 도 일 동
▶ 대구시 중구 남산동 2105-2번지
TEL : 053-426-2779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 지 현 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번지
TEL : 062-266-0326

◆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
신 도 회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 051-403-7077

대한불교조계종
◆ 묘봉산 혜원정사 ◆
조 실 고 산 주 지 효 명
고산장학회 선지식회
자 비 회 지 장 회
관음회 합창단 연꽃부부회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
TEL : 051-866-7771~3 FAX : 051-866-7777

심천서예
원 장 양시우(심천)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2동 695-6번지
TEL : 051-633-3338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 감 로 사 ◆
원 로 보 안 원 장 지 관
회 주 법 희 주 지 혜 총
총 무 경 법 교 무 경 성
재 무 경 원 지도법사 곽만연 이욱태 김영권
신 도 회 원 일 동 사무장 이 춘 성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TEL :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증 심 사
주 지 영 조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TEL : 062-226-0107

한국불교원각종
지장암 포교원
주 지 진 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4-6
TEL : 062-232-5774

천보공업사
대 표 박 영 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9-3
TEL : 051-315-2859

나는 친정어머니께 어리광 부리듯 부처님 옷자락에 매달려 간절히 발원했다. '부처님, 옛날 어머니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가정의 바람막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신심을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화·목·일요일, 아침 8시40분 집을 나선다. 현관문을 열면 절망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도봉산 봉우리에는 희망이 떠오른다.

속살을 드러낸 산속으로 들어서면 다람쥐·청설모·까치·박새·까마귀가 저희들만의 대화로 한 세상을 열고 있다. 엿듣는 나 또한 절로 환희심이 차오른다. 천지에 불법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그야말로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임을 실감한다.

가빴던 숨결을 천축사 돌계단에서 잠시 고르고 사시예불 시간에 닿게 걸음을 서두른다. 염송·묵언·묵상… 저절로 기도의 기운이 온 몸에 스며든다. 얼음판에 미끄러지고, 더운 숨을 내쉬고, 등덜미에 땀이 차오를 때마다, '아! 내 몸이 지금의 내 삶과 같구나. 그래도 고개를 넘으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해결해 주실거야.'

얼음판을 딛고 일어서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아울러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하여 주변의 친지들에게 백일기도 중이라는 이야기를 흘렸다. 한결같이 나의 신행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건강을 염려해 주었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증을 세운 셈이었다.

하루하루 생활은 활력과 희망에 넘쳤고 절로 경전의 경구를 흥얼거렸다. 무기력한 남편, 눈치만 보는 큰애, 의기소침한 시어른. 모두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신념까지 생겼다.

그러나 한껏 부풀었던 풍선이 순간 터지듯 보름정도가 지나자 기도에 대한 회의가 밀어닥쳤다. 흔히 말하는 마(魔)가 낀다는 것이었을까? 나는 서러웠다. 내가 이 한 겨울 눈밭에 몸을 던져 기도를 하지만, 결국 지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을 마음 편하게 인정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일까? 변화없는 현실에 절망할때 스님은 또 나를 닥달하실 게 분명하다.

"보살님, 신심이 부족해서 부처님 가피를 못 입은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요." 이런 모범답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인가!

나는 눈물 범벅이 되어 따지듯 스님께 대들었다. 스님은 단호하게 나를 꾸짖었다.

"보살님, 지금 기도 다 끝내고 하는 소리요? 매일 〈보문품경〉은 왜 독송하는거요? 보살님같은 사람 때문에 경전에 시고수상념(是故須常念)하되 염념물생의(念念勿生疑)라는 구절이 있지 않소. 조금도 의심을 내지 마소. 끝까지 기도하고나서 나에게 말하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는 주변을 위한 기도를 드리소. 기차는 혼자를 생각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여러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만든 차이잖소."

작은 내 그릇에 스님은 따가운 질책을 쏟아부었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며칠간 스님을 대할 수가 없었다. 허나,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의심없는 신심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한없이 평온하게 했다.

겨울의 꼬리 끝에 입춘이 고개를 내민다. 마른 나무가지는 소리없이 물을 올리기에 분주하고 양지녘에 서있는 진달래 꽃봉오리는 젖살 오르듯 봉곳하다.

회향을 보름 남짓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이 또 나를 조여왔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하나. 또 어디에다 마음을 붙여야 하나' 초조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얼굴빛은 맑아졌다고 주변에서 입을 모았다.

그러나 스님은 나의 외중을 알아차렸는지 하루는 차나 한잔 하자면서 나를 잡았다. 부드러운 미소를 띈 스님은 나의 기도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쑥스러운 마음과 함께 코끝이 시큰했다. 얼른 찻잔을 드는데 눈물이 먼저 손등에 떨어졌다.

스님은 회향의 의미를 간곡히 설하셨다. 마음은 입재 때와 같은 각오를 지니고, 모든 공덕은 부처님께 돌려야 한다며, 회향 3일 전부터는 매일 천배씩 절을 하라고 하셨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하산을 하는데 발걸음이 한층 가벼웠다.

(3)

97년 3월17일. 그날은 백일관음기도 회향일이었고, 내 생일이기도 했다. 굳이 일정을 그렇게 잡지 않았는데 묘하게 날짜가 일치하니 스님은 좋을 징조라며 나를 마음 편하게 했다.

처음으로 많은 절을 한지라 몸은 젖은 솜 같았지만 마음은 새털 같이 가벼웠다. 남편과 큰애도 정성스레 지고 온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함께 회향을 했다.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내가 해내었다는 자신감이었고, 또한 어머니의 신심이 내 심전(心田)에 발아하고 있다는 환희심이었다.

법당을 나서며 남편은 아무 말없이 내 두손을 꼭 잡아주었다. 마주한 우리의 눈에는 물기가 그득했다.

"기도의 끝은 있다"던 친정어머니의 말씀은 진리였다.

지난 5월1일. 남편은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첫 출근을 했다. 안정된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니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셈이다.

큰애 또한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10월 초, 체육특기생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이미 배정을 받았고, 지금은 탄탄대로를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있다. 단지 시어른만이 그대로일 뿐이지만,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무슨 욕심을 가지랴. 그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이라도 내 복이 아닌가.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니 어찌 감사의 기도를 안 드릴 수 있으랴. 오늘 백일관음기도를 다시 입재하며 간절하게 발원했다.

"해마다 입재 때 같은 마음으로 겨울기도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대상 이태순씨 신행담은 158호부터 연재〉

"조금도 의심 말고 주변 위해 기도하시오" 작은 내 그릇에 스님은 따가운 질책을…



당선소감



이매림씨

"터널 나와 새 세상 보는 느낌"

수상 소식을 듣고 얼른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바라보이는 도봉산 관음암 봉우리에서 친정어머니가 먼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것 바래이(그것 봐라). 기도의 끝은 있제"라며 어머니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이지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내내 행복했고, 그 사람들에게 적나라한 내 삶의 모습을 들추어낸 것이 실로 부끄럽습니다.

산다는 것은 남에게 거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감어인(鑑於人)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겨우 발걸음을 떼는 제 글을 세상에 내어 놓습니다. 부족한 글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순씨

"참회·포교로 남은 인생 회향"

고맙습니다.

부처님 불법의 인연으로 뜻하지 않는 큰 기쁨을 안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IMF 한파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와 자리이타의 동사섭정신이 우리 모두의 생활로 실행실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도 안타깝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포교하는 참회의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부끄러운 제 글을 헤아려 주신 심사위원님, 종교를 믿는다는 것, 이기적인 신앙심을 키워내기 위해 절에 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달은 제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평

기도영험 수기보다 이웃에 회향하는 육바라밀 체험담 기대

올해 신행수기 응모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 소재 등 내용면에서 다양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됐다.

신행수기에 주된 흐름은 수행·정진·기도와 가피를 통한 신앙적 확신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정법신행에 소홀하기 쉽다. 그저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것만을 목적삼을 때 불법에 다가서는 것이 간과되고, 그때는 참된 신행이 될 수 없다.

특히 기도는 영험을 바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하면 신심에 젖어 부처님 가피로 자신의 불성을 깨달을 때까지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은 생활이기에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기에 실천에 옮겨졌을 때 가치를 발현한다. 그런 점에서 이매림씨의 '백일기도'와 이태순씨의 '자등명 법등명'을 공동으로 대상작에 뽑았다. 두 작품 모두 진솔한 신행체험 속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신앙적 확신을 심어주는 감동을 절절히 보여준다.



◇현대불교신문이 공모한 제3회 신행수기 심사장면.

신행수기를 쓸때는 문장을 착실하게 쓰는 행위 그 자체도 기도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심사기준에서 내용의 감동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기를 기술하는 그 순간도 수행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 좋은 많은 작품을 기대한다.

佛紀 2542年 戊寅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주택방앗간
대 표 박 대 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18 13/5
TEL : 051-404-2868

금강약국
오 길 준 · 정 미 영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9번지 15/2
TEL : 051-245-7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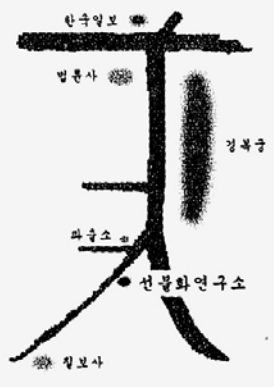
백산종합해사
대 표 백 문 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38-1
TEL : 051-413-9600

한라청과
대 표 최 행 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구청앞
TEL : 051-413-3273

불심으로 한마음되어 상담과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美 치과의원
원 장 박 태 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61-6번지
TEL : 051-403-9727

삼홍기업사
대 표 조 홍 래
▶ 부산광역시 북구 덕포동 372-1
TEL : 051-305-6431

불광불교미술원
원 장 박 갑 용
▶ 경기도 가평군 하천1리 418-2
TEL : 0356-84-3952

선불화연구소
탱화/벽화/개청


연구소를 이전하여 인사 올립니다
화나 박경귀 두손모음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 택 733-0731

불원 미술원
원 장 김 진 구
▶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36-6
TEL : 02-477-9178

불교포교자료원
생활한복, 승복
야외법회용괘불
다중용 법요집, 천수경
※ 통신판매 가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TEL : 02-723-4600
황 톳 길

우정아트기획
대 표 박 인 숙
광섬유 연등·연꽃
불단 장엄
▶ 서울 종로구 인사동 37번지 삼우 B/D 502호
TEL : 02-725-5003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732-1522(直)
FAX (02)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컨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와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4)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 · 비만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 집안에 송충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당사
FAX로 집구조, 방향, 주소록 적어 보내시면 수맥 감정해 드립니다. (이중은 ₩20,000)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국민은행 011-21-0595-462 (이 준 수)
농 협 059-01-247105 (이 준 수)
※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관 강 좌 관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신원
0593)34-1115~6
012)598-1015

신 생 아 작 명
역 학 개 인 지 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스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직응법 지도

학 생 모 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청직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4. 수업기간 2년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명상개인지도
쿤다리니 · 소주천각성
근육이완, 호흡조절, 체온조절
단전호흡, 생각 끊는 방법
02)596-5546 玄 星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 대 불 교 신 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사주학 개인지도
사주학 핵심비결 저자인 송월스님께서 사주학을 알기쉽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 교재는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군산 **성 홍 사**
전화 : 0654)64-0050

관 구인 · 구직 관

◆수양 · 공부 · 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사찰음식 · 건통찻집 운영하실분
◆위치 : 인천부평 동아시티 백화점 부근 오지
◆건평 50평, 방 2 포함
◆최고급 민속전통 인테리어 완비
◆사찰건물 1층(즉시 입주 영업가능)
◆신심있는 사람에 한함 (비구니스님 환영)
◆보증금 1,000만원 (연월세 3,000만원) - 권리금 없음.
032)501-5177

관 불교 미술 관

佛 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教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희왕사(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목련합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 貴 王 합장

관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관 사 찰 안 내 관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대 지 : 48평
- 임법당 18평, 방 2칸,
-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 가 격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2)937-3729
011)302-372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 수 : 5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사 찰 및 부 지
◇ 위 치 : 경남 진주시
◇ 부 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 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법 당 : 평토작업 완료
◇ 기 타 : 약 1,000평 작설차 나무 식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 특 징 : 공원에서 제외된 산속요지의 엣사찰터(건축등 허가 됨)
016)589-056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초역 100미터, 법원 건너편 3층건물 지하 60평
◇ 현재 사찰 3년째 운영중
◇ 대법당(심존불 및 지장불)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완비
◇ 시설 투자비 2,000만원 소요
◇ 건물 임대 보증금: 3,000만원(월임대료 120만원)
◇ 뜻있는 분에게 입대 보증금만 받고 무상 양도합니다.
02)583-0014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344)64-4827
017)263-6908

사찰 및 포교원
◇ 건평(총평수)32평
◇ 법 당 : 1칸(최고급자재로 시설완비)
◇ 거실(방) 2칸, 주방(부엌) 1칸
◇ 화장실 및 샤원장 1칸
◇ 현재 재적신도 : 약 300가구
◆ 양도금 총액 2,800만원중 건물보증금 1,000만원(월세 55만원 별도)
◆ 시설물인수금 : 1,800만원
서울 마포구 성산2동 200-57호
02)374-5295/011)742-2955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부 지 : 125평
◆법 당 : 33평
◆가 액 : 1억 3천만원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특 징 : 서울에서 40분거리에 소재한 사찰로서 입주즉시 법회할 수 있는 기도 도량으로 정법대로 불교 중흥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분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 평 수 : 1,200평
- 법당, 요사채
◇ 가 격 : 1억 8천 5백만원
직접 보신후 상담요망!
◆ 나병환자도 낳았다는 유명한 약수물 있음
0597)63-7175
0597)62-2029

절 터 매 매
◇ 평수 : 약 1,100평
◇ 상태 : - 준 농림지역(즉시 건축가능) -전기 · 지하수 6M 도로
◇ 가격 : 약2억(적절진화 문의요주인적)
◇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제리 (양산 신도시터널 개통시 5분거리)
051)504-9944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 사용평수 : 약 100여평
- 법당 · 용왕전 · 산신각 별도
- 요사채(구옥) 3칸, 기름보일러
◇ 가 격 : 5천만원
0351)63-6735
012)346-2136
011)271-2136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내 전철역부근
◇ 평 수 : 50평(3층건물 3층)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창고
◇ 가 격 : 보증금(시설비포함) 2,500만원 월 50만원
0343)96-6734
011)334-0820

사찰부지 안내
◇ 사찰부지 : 10,000평
◇ 대웅전 : 33평(완전 목조 7조립)
◇ 요 사 : 8평×방5
◇ 매 가 : 5억
◇ 위 치 : 원주에서 30분거리
(바위가 어우러진 암반위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는 집입로를 따라 노송이 우거진 산중턱에 자리잡은 곳으로 기도처 및 복지시설로 최적지)
⊙ 보십시오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사찰부지 500평~수만평까지, 사찰 5천만원~10억까지 많이 확보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0371-762-0101
011-466-1802 / 012-397-6003
(주)천 운 한 상 철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 와룡리
◇ 평 수 : 1,767평(대지로 전환가능)
- 법당겸 요사채 30평
- 논과 밭 1,767평
◇ 가 격 : 5천만원
◇ 생활권 : 삼천포
(삼천포에서 5km, 마을에서 1km)
011)535-9165
0525-21-6660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 평 수 : 임야 - 800평
· 전 - 112평 · 답 - 700평
◇ 건 물 : · 대웅전 - 10평
· 산신각 - 3평 · 용왕각 - 3평
· 요사채(2동) 40평 · 창고(2동) 20평
◆ 가격절충 가능
0634)33-9861
062)224-6696
(광주해동불교백화점)

사 찰 안 내
◆ 사정상 급매
◇ 위 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 사찰명 : 용 화 사
◇ 평 수 : 종교용지 410평
◇ 가 격 : 평당 16만원
0556)73-0818
012)1164-3004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찰명 : 법 화 사
◇ 평 수 : 30평(포교당용도로 등록완료)
◇ 산중불 모두 모셔 있음
◇ 가 격 : 약 2,500만원(상담후절충가능)
◆ 현재 아파트 5동 들어와 있음.
0346)577-2485
0346)577-9976

관 기 타 관

◆ 사 람 찾 음 ◆



◆성함 : 이 밀 란(女)
◆나이 : 25세(73년생)
◆집 : 서울 구로동

1997년 12월 20일, 출가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남기고 집을 나감. 평소 알고 지내던 불교 스님및 친구들이 밀란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굳이 잘못을 막지는 않겠으나 집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모님 잠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있으니 주위분 알고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02)851-2038
032)770-8436
(오빠연락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락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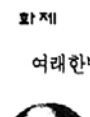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관념의 누더기 벗어버릴 수 있어야"

마음공부하는 이의 자세

문 저는 남달리 집착이 강하고 그러다보니 번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마침 마음공부를 해보면 번뇌도 다스려지고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제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법회에도 참석해보고 나름대로 집착을 떨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부가 시원치 않습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라 할까 혹은 마음가짐이라 할까, 아무튼 도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괴롭게 사느냐? 관습·집착 붙잡고 안간힘쓰지 말고 나온자리에 되놓고 가세요"

답 마음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생활이 재료니까 그걸로써 공부를 하시면 된다다만 다들 생각이 모자라니 그게 안타깝군요.

지금 각 종교를 보아도 그렇고 사찰을 보아도 그렇고 대부분 타의에서 구하려 하지 자의에서 구하려 하질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너 자신부터 알아라' 합니다만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그러기에 매번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슨 분리기인가 하는 기계에다 물건을 넣고 돌리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쳉겨지듯이 우리들의 영도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동적이지요.

하천세계로 떨어질 것은 그리로 떨어지고 중천세계 감은 중천세계로, 상천세계에 해당될 영은 상천세계로 분리가 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자동적이지요.

그러니까 하천세계로 떨어진 생명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먹고 먹히는 짐승들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겠는지…. 하지만 우리 중천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어느 때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제일이요, 이만하면 잘 나가는 게 아니냐며 사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 진화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으로 차원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까?

수억겁 지나온 세월 속에서 집착이다, 관습이다 그런 것에 얽매여 온통 누더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그때 그때 대치를 못하니까 누더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 드렸죠. 사람 사는게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아서 한 발 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또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또 한 발자국 없어진다, 바로 공해서 그렇다, 본래로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하니까 아무 것도 붙을 게 없다고 그랬던 겁니다. 헌데 그걸 곧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관습 때문에, 집착 때문에 아예 곧이 들으려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누덕누덕 달라 붙은 그 관념의 누더기가 그렇게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 누더기만 벗어 버리면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따로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여여하고 걸릴 게 없이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는 대로 맡기고 기쁘게 살자고 거듭거듭 말을 해줘도 기쁘게 살기는 커녕 조그마한 일까지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면서 그냥 아옹다옹,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더구나 저 하천세계의 생명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입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짐승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차원대로 꼼짝없이 나누어지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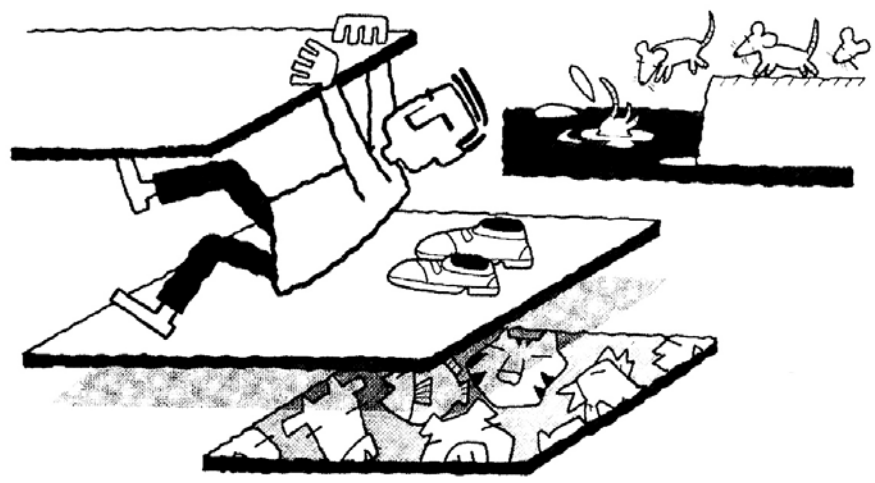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밖으로 찾으면 깨우칠 길 막막해요" 안팎에서 다가오는 경계 다 공부재료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찰나에 이 누더기를 벗어 버리기만 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라, 본래로 보는 것 듣는 것 가고 오는 게 다 공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로 살아라, 아니 초초살이로 살아라 그렇게 누누이 일러 주어도 누더기를 벗어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인데 살아가면서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든 밖에서 닥쳐오든 그대로 굴려 넘겨라 이 거죠. 그러면 싱그럽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괴롭게 사느냐?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어 놓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문제 하나에 집착을 하고 그게 습 이 되어서 앙금처럼 가라 앉게 되니까 떼려해도 떼어지질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자리에다 되 놓아라, 붙잡고 애를 쓰거나 떼어 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본래가 공한 것이니까, 본래 고정된 건 없으니까 공한 자리에서 나온 거 공한 자리에 놓고 가라 이 겁니다.

나도 여러 해를 두고 그렇게 실험을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나온 자리에 되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진짜로 믿는다면 됩니다.

죽으나 사나, 당장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껄껄 웃고 놓을 수 있을 만큼 믿는다면 누더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금새 '아이구 이만하면 그냥 저냥 살 수 있는데 그런 공부는 해서 뭘해. 죽으면 그만일걸'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인 걸요.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진리라고 할 것도 없겠지요.

참고로 옛날 얘기 한가지 해드리지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니까 벽보에다 써 놓기를 '내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옛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위로 삼겠노라' 고 했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 나그네가 찾아가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 부잣집 곳간에 큰 무리의 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쥐들이 굶주림을 면하려고 강 건너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 쥐가 앞장을 서고 할머니 쥐가 그 뒤를 따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쥐가 할아버지 쥐의 꼬리를 물고 그 뒤를 따라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들 쥐가 꼬리를 물고 따라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뛰어드는 얘기를 사흘 내리 계속했더랍니다. 그래도 듣기 싫다는 말을 안하니까 이 나그네는 열흘을 넘기고 보름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풍덩!' 하는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은 딸을 차지하고 사위가 됐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 그러니 어디에 끊어질 사이가 있다 하겠느냐, 끝간데 없이 돌아가니 어디에 이어졌다 떨어졌다 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크다 작다는 어디 있고 잘나고 못나고는 어디 있는가, 바퀴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먼지 붙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육은 지수화풍으로 돌고 돌며 영은 하천세계 중천세계 상천세계를 돌고 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살았다 하면 죽었고 죽었다 하면 살았고…, 이거는 이름일 뿐 영원토록 굴러가며 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2)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고 들일 수도 있다. 마음으로써 내가 만 가지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또 마음이기에 만 가지 사람이 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마음이면 우주를 조절하고 세상을 조절할 수도 있다. 세계평화, 남북통일, 개인적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도 조절할 수 있다."

사람마다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마음 씀씀이도 각양각색이다. 한가지 사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염려한다.

반 컵의 물을 보면서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다.' 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 고 표현할 수도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 수만의 층(層), 등급이 있다고 말한다. 차원이 제각각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 나쁘게 쓰는 사람, 넓게 쓰는 사람, 좁게 쓰는 사람…. 사람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르고 인품에 차등이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씀씀이가 다른데서 비롯된다. 고로 마음 한번 일으키는 게 삶의 질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

마음에 수천 수만의 층이 있다해서 그 본바탕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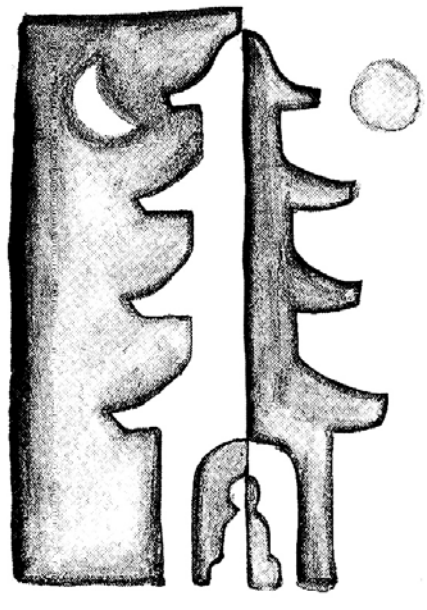
마음의 본바탕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갖춰진 능력 또한 같다.

다만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본래 타고난 응용능력은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자유자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본래는 다르지 않으니 마음의 원심력 구심력은 제불보살의 능력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한 생각 일으키기에 따라서는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가난을 면할 수도 있으며 온갖 고통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무한능력을 지녔다는 말이다.

마음의 힘을 말할 때 무한의 자력을 가졌고 무한의 광력, 전기력, 통신력을 구비했다고 한다.

무한의 자력이라면 무엇이든 끌어올 수 있는 힘이다. 무한의 광력이라면



빛보다 더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한의 전기력이면 어디에고 감응할 수 있음이다. 무한의 통신력이면 멀고 가깝다 할 것이 없이 두루 통한다는 뜻이다.

마음은 그런 힘을 종합해서 가진, 그야말로 무한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통하지 않을 게 없고 미치지 못할 게 없으며 이루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전지전능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그러한 전지전능의 힘이 주어져 있다면 달리 무엇을 염려하랴. 누구나 태어날 때 이미 부자요, 온갖 권세를 다 갖췄으며,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는 데 왜 사서 걱정을 하며 뭐가 좋아서 끌탕을 하겠는가.

다만 믿질 않고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믿질 않으니 힘이 없고 모르고 있으니 쓰질 못한다는 얘기다. 내 집에 보배를 잔뜩 쌓아 두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줄 모르니 밖으로 구걸행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못나고 안타까운 일이랴.

본래 기적이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완전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적은 애저녁에 기적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외면하고 있기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조그마한 능력 앞에서 눈을 비비게 된다.

마음이 앞서가면 어떤 보화라도 뒤를 따른다. 마음이 앞서가면 우주 법계가 뒤를 따른다. 그래서 각자 마음의 능력은 이 세상을 다 준다해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더구나 마음은 물질처럼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욱 날이 서는 칼처럼 잘 들게 된다.

마음엔 자력·전기력·광력·통신력이 두루 갖춰져 있으므로 마음은 오신통에 자재하다.

그걸 믿자. 나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고

협 찬 : 조하원 · 박성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번뇌망상, 부처될 거름이요 씨앗"

☞ 17면에서 계속

따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저 영화배우들이 이 영화 저 영화마다 배역이 바뀌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자기의 컴퓨터에 자기가 집어넣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 나오는 자리에 되놓으면 녹음테이프가 지워지듯이 그렇게 지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뭐 놓는다 안놓는다 할 것 없이 저절로 놓아지지요. 이름을 붙일 것도 없이 맡입니다.

착을 놓아라 하는 것도 이름이고 번뇌를 끊어라 하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본래 고정됨이 없이 여여하게 굴러가는 수레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붙잡는다도 놓는다도 없이 그대로 놓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자주 냅니다

문 해군하사관 후보생입니다. 군에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스님의 책들을 읽고 공부가 되는듯 했습니다만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서로간에 마음이 맞지 않는 일도 많고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공부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부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무겁게 믿어야 합니다. 내게 안팎으로 다가오는 경계는 다 나의 공부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굴 탓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다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요. 본래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어서 이 공부는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만 그걸 터득하기 전에는 몰록 놓는 작업부터 길을 들여야 하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경계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나쁜 경계는 돌려서 놓아보세요. 말하자면 좋은 일이거든 '주인공 감사해!'하고 놓고 나쁜 일이거든 '주인공 잘 되게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잖아!'하고 놓으세요.

이 공부는 내가 쑥 빠지고 주인공이 앞장을 서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시자(侍者)요 하인이요 몸종인 셈이지요.

관세음보살도 방편인지요

문 〈관음경〉〈지장경〉 등의 경전은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 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나의 마음 속에서 찾고 나중에는 그 보살님조차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답 어떤 경우라도 밖으로 찾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둘이 되어 아무리 빌어 본들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편이다 아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나중에는 보살님조차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이고 나중이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찰나로 나투며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에 무엇으로든 나툴 수 있습니다. 돼지를 건지기 위해 돼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무엇으론들 나투지 못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겐 약사여래가 되어주고 명 짧은 사람에겐 지장보살이 되어주고…, 그러기에 부처님은 32 응신이 구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중생의 마음에 따라 무엇으로든 나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을 나와 따로 보셔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마음과 주인공 마음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는 이가 드문 까닭

문 부처님의 무상심심미묘법은 '백천만겁난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귀한 줄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깨닫는 이도 드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밖으로 찾게끔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공덕이 없고 깨우칠 길도 막막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깨우치기가 어렵지요.

부처님께서는 네 안으로 너를 발견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찾으려 드니까 깨우치는 사람이 드물 밖에요.

참선하면 수마가 찾아와

문 참선을 하다보면 번뇌와 잡념은 없어지는데 자꾸 수마가 듭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럴 때는 잡생각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잡은 소를 놓아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요?

답 늘 말씀드리지만 자리들고 앉아야만 참선이 아닙니다. 하루 생활하는 중에 밥 먹고 똥 누고 일하고 잠자는 게 다 참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부재료라는 말입니다. 고로 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공부 하겠다는 분들께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거기에 맡겨 놓고 살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은 이 공부가 내가 죽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 최주현

"껍데기 아닌 참나는 일체만물과 공생 공식 공용 공심 공체 합니다 그걸 주인공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그릇 작으면 주어도 못받아"
'일체만물 하나' 나 알면 우주 알게돼

꿈도 생시도 둘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대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살다보면 어디 꿈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간 안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참으로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단돈 몇푼을 가지고도 아옹다옹하지 않나, 다 같이 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 의자 네 의자를 다투지 않나, 이건 도무지 말로 다 할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계가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기가 입력해 놓고 자기가 되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나온 자리에 되 놓아서 이미 입력된 녹음테이프를 지우는 수 밖에는요.

생시든 꿈이든 이게 다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져도 놓고 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꿈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시다면 그걸 물어서 답을 들으려 하기 전에 나온 자리에 되놓고 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꿈을 꾸게 한 것도 너, 그 뜻을 알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하고 말입니다.

마음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꿈이군요.

수계은사가 '책임진다'는 뜻

문 오래 전에 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받은 법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수계식에서 은사이신 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삼스레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불자라면 으레 오계를 받는 줄로 알고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보통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겁고 거짓없고 깊숙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받는 분이나 증명하는 스님들이나 결코 한데에 떨어지는 말을 해서도 안되고 행을 해서도 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비밀스럽고 최상승인 법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시면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고 누구라도 받아주고 응해주시면서 중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당연히 불법을 받아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거기엔 아무런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내 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내 말이, 내 행이 한데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되겠기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수 없이 내 자식이요, 호적에도 올려야 할 테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신 불잡혀 가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살 거라면 세세생생에 끝간데 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비를 하는 것은 그런 다짐입니다.

그러나 오계를 지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스님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를 받은 분들이 법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오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본다면 말입니다. 땅을 치며 울어도 시원치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써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게 많지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응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의 크고 작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응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오고감이 없이 나투며 그렇게 하시지만 다만 여러분의 그릇이 모자라서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응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게 돌아가지요. 하지만 본래 둘이 아니니 그 책임은 바로 자비의 책임입니다.

나는 법회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자 여러분이 쫌더 분발을 하고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옷을 벗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자기 몸을 벗어나지 못할테니 어느 때에 조상의 묵은 빚을 갚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그 인과의 지옥고를 벗어날 것이며 자기가 뿌려 놓은 자식들을 건져 둘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독안에 들어가도 못 면할 테니 말이지요.

그래서 아집이다 아상 아만 욕심 따위를 다 놓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끊으라는게 아니지요. 삼독이든 번뇌망상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 수 있는 불씨가 될테니까요. 가령 번뇌망상이 없고 삼악도가 없고 지옥고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믿으면서 일체를 놓고 들어가기 바랄 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

문 옛 성현 말씀에 '너 자신을 알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자신을 알라고 했는지요.

답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그것은 고에 속합니다.

잘 났든 못 났든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고 바로 상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 자식 형제가 있고, 정치다 경제다 또는 회사가 어떻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나 하나, 이 나 하나에 온갖 진리가 다 서려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싶거든 너 자신부터 알아라 이것이지요.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있으니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 세상만물이 벙그러졌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합니다만 일체만물이 본래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고 부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대서야 무엇을 달리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내 탓이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는 말을 철두철미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내가 없다면 경계는 다 뭣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풍비박산을 내는 것도 다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잘 났든 못났든 자기가 자기를 진실히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는 바로 이 껍데기가 아닌 찐짜의 나, 주인공이 한다고 믿어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해결하라 이겁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항복을 받음으로써 전체의 항복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버려서 나를 발견하는 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아상 아만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나를 몽땅 버리니 몽땅 얻게 되더라'하는 뜻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태초에 어떻다더라 하는데 태초는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게 바로 태초입니다. 자기가 있어서 모든 게 있으니 자기가 첫번이지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안했던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그 말을 글쎄 자기가 제일이라는 말로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그냥 안하무인으로 아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너는 껍데기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 나, 그러니까 나라고 세울 게 없으면서 일체만물과 공생·공식·공용·공심·공체하는 나인 것이지요.

나는 그걸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전체와 가설이 되어 있는 한마음의 주인공이지요.

한번쯤 되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나다, 내가 했다 하는데 찰나에 아버지가 되었다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형제가 되는데 어느 거 할 때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큰 일 할 때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나라고 할까요?

우리 몸뚱이도 비유하자면 집인데 이 집 속에서는 인연따라 모인 수십억의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걸 꼭 집어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 움직이는 거, 한생각 들고 나는 거, 생명의 에너지를 다 뭉뚱그려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믿어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좀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지금 관법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편, 즉 몸을 단련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요. 가령 그런 방법을 통해 몸 속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깨달음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답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는것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통신이 됩니다. 나온 구멍에 진짜로 놓았는지, 그 구멍으로 진짜 들어 갔는지, 그래서 통신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뇌 소뇌를 거쳐 사대로 통신이 된다면 자기 마음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수습할 것은 수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부처될 자격이 있는데 제 부처를 진짜로 믿는다면 마음은 천차만별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몸을 먼저 생각합니까? 몸따라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따라 몸이 편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잘 될려고 하지도 말고 못 될까를 염려하지도 말고 어차피 믿고 맡길 것이라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충실한 하인이 되어야지 뭘 더 따지겠습니까?

하인은 주인이 하는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 됐느니 못 됐느니를 따지지 마세요.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하인이 왜 따지느냐? 그러다가는 종문서에서 풀려 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세요. 믿는다면 말입니다. 아니, 못 믿겠다 싶어도 이치가 그러하니 그렇게만 맡기세요. 종 노릇을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예전엔 한번 종이 되면 자식까지도 전부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종문서에서 벗어나려면 종다웁게 종노릇을 해야 풀려날 기회를 잡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해보세요.

주인 역할에 끼어들고 참견을 하다가는 그냥 맞아 죽기 십상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지도 못하고 주인도 찾지 못하고 마니 자자손손 종노릇을 면할 길이 없게 되고 말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부처, 부처 아닌 부처가 본래 있으니 그것을 진짜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런 저런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산 사람이니까 번뇌 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내가 살아오면서 입력해 놓은 것들이 연방 솔솔 풀려 나오는데 번뇌다 잡념이다 하는 게 없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송장이나 목석이게요.

그러니 번뇌다 잡념이다 탓할 게 없습니다. 다만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놈도 내 잠재 의식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온 자리에 되놓고 가라 이거죠. 번뇌를 걱정하고 잡념을 걱정한다면 그게 또 입력하는 꼴이 될 테니 그래서야 어느 때에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일체는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 거기다 맡겨 놓고 여여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수마가 끼어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놓으세요. '주인공, 잠이 오게 하는것도 너, 오지 않게하는 것도 너이니 알아서 하라!'고 턱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몸에서 지렁이가 빠져나와

문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초파일 제등행렬을 마친 그 날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연못가 길을 지나고 있는데 악어들이 잡아먹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몸 속에서 긁은 지렁이들이 빠져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잡아 빼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렁이는 흔적없이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누차 얘기합니다만 일체만물이 본래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고 부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대서야 무엇을 달리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내 탓이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는 말을 철두철미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내가 없다면 경계는 다 뭣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풍비박산을 내는 것도 다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잘 났든 못났든 자기가 자기를 진실히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는 바로 이 껍데기가 아닌 찐짜의 나, 주인공이 한다고 믿어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해결하라 이겁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항복을 받음으로써 전체의 항복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버려서 나를 발견하는 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아상 아만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나를 몽땅 버리니 몽땅 얻게 되더라'하는 뜻입니다.

협찬 김건배 · 최선옥 · 김수연 · 김수정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576

자비사상 인류문제 해결 '열쇠'

한국불교 "禪 이미지 강하다"
종교화합위해 이해·대화 필요
"각국불교 정보-신행 연대를"

인터넷이 세계를 한동네처럼 연결해 주는 첨단정보시대를 맞아 본지는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세계 유수 불교사이트들에게 △현대사회에 있어 불교의 최우선 과제 △종교화합을 위한 방안 △비불교도들에 대한 포교방안 △한국불교를 알고 있는가 등 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의견과 고유의 포교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이트설문조사에서 미국불교도평의회, 남부웨일즈평의회, 달마라이프 등 14개 불교단체들은 환경파괴 등 현대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치유하고 종교간 화합을 위한 불교적 과제로 삼독심을 없애고 정견, 공, 연기 등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야 하며 폭넓은 대화로 서로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답변했다.

비불교도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달마라이프)' '생활속에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참선, 강연회 등을 꾸준히 마련하는것(미국불교도평의회)' '불자의 도리를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불교의학·치료센터)' 등의 답이 나와 불교계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선불교'라고 대답한 곳이 4단체, '조계종'과 '원효, 보조스님'이 각각 1곳으로, 상당수가 한국불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한국불교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고 있는냐'는 질문에도 대다수(10곳)가 '없다'라고 답변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과 이에 대한 각 단체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설문내용

①현대사회의 병폐인 환경파괴, 민족·종교갈등, 인간소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불교계의 최우선 과제는?

②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간 갈등 해결과 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③각국의 불교계가 서로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방안은?

④비불교도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파시키는 방법은?

⑤귀 단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행활동중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⑥현대과학문명과 불교교리·사상체계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⑦귀 단체의 홈페이지에 실리는 불교정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⑧한국불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⑨한국불교계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있습니까?

■내면으로(Access to Insight·태국)
http://world.std.com/~metta/

1. 팔정도의 정견(正見)만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
2. 진리는 한 종교만의 '독점상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3. 잘 모르겠다.
4. 불교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불교축제' 같은 행사 개최.
5. 특별한 것이 없다.
6. 타학문과의 접목에 앞서 깊은 수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상좌부 관련 문서파일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8. 모르겠다. 9. 없다.

■달마 라이프(Dharma Life·영국)
http://www.fwbo.org/dharma_life/

1. 고양된 윤리와 자비심.
2. 현재 종교간에 첨예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종교간 교류. 이것은 자신의 종교에서 결핍된 것을 찾을 때 가능하다.
4.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는 것.
5. 수행과 교리의 균형, 올바른 삶과 우정 등을 강조한다.
6. 의견이 없다. 7. 호응이 높다
8. 선(禪) 전통.
9. 대학에서 '한국불교' 주제강연을 듣는다.

■만주쉬리 센터(Manjushri Center·미국)
http://www.the-spa.com/ed.stutsman/manj.htm

1. 공(空)·자비사상 등을 널리 가르쳐야 한다.
2. 종교간 인내가 필요하다.
3. 불교종파간 이해 선행되어야 한다.
4. 비불교도의 문화적 특징 존중해야.
5. 위빠사나 수행.
6. (무응답) 7. 반응이 좋다.
8.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다는 것.
9. 없다.

■말레이시아청년불교연합(Young Buddhist Association of Malaysia·말레이시아)
http://www.founder.net.my:80/ybam/

1.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 시키는 것.
2. 고립된 문화는 발전이 없다. 종교간의 벽을 넘어야 한다.
3.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해 나가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4. 스스로 수행해 불법을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5. 청년이 선봉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교육으로 자신을 계발하도록 유도.
6. 모르겠다.
7. 호평을 받고 있다.
8. 모른다. 9. 없다.

■미국불교도평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미국)
http://www.wgn.net/~abc/abc.html

1. 아상에서 벗어나 자비로써 기아 고통 억압 등 삶의 굴곡을 풀어야 한다.
2.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
3. '문화를 가로지른 불교' 등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 개최도 좋은 방안.
4. 생활 속에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참선 강연회 등을 꾸준히 마련하는 것.
5. 불교적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신행을 권하고 있다.
6. 불교는 열린 공간. 과학문명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7. 좋다.
8. 신앙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다.
9. 없다.

■불교윤리(Buddhist Ethic·영국)
http://jbe.la.psu.edu/

1. 불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임을 강조해야 할 것.
2. 종교간의 윤리·수행·교리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로 이질감 해소 시켜야.
3. 문화·학술 교류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4. 올바른 불교 위상 정립이 최상의 포교 전략.
5. 불교논문·문헌을 제공하며 가상공간에서의 토론도 권장하고 있다.
6. 불교적 상상(想像)과 과학적 분석의 접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7. 매일 2백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8. 모른다.
9. 옥스포드·런던대 한국학 교수들로부터 한국불교를 소개받고 있다.

■불교필수(Essential of Buddhism·스리랑카)
http://home.earthlink.net/~srama/index.html

1.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삼독심(三毒心)을 간파하고 마음을 칫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2. 모든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종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3. 모르겠다 4. 모르겠다.
5.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실천하도록 항상 강조한다.
6. (무응답)
7. 교리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8. 모르겠다. 9. 없다.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Buddhist Council of New South Wales·호주)
http://www.zip.com.au/~lyal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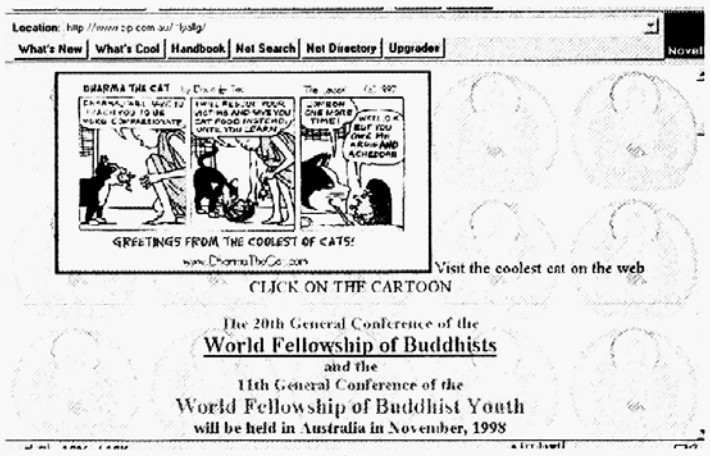
1. '이것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을 일깨워줘야 한다.
2. 지혜와 도덕. 지혜는 사랑을 가르치고 도덕은 바른 삶을 열어줄 것이다.
3.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4. 가진 것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한다.
5. 호주 안락사법 폐지등 사회문제.
6. (무응답)
7. 호주불교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호주불교의 단합에도 기여하기에 호응이 높다.
8. 선승의 참선.
9. 호주에 있는 한국사찰을 통해 한국불교를 소개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불교센터(San Francisco Buddhist Center·미국)
http://www.bluelotus.com/sfbc/calendar.htm

1. 중도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특정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서로 대화하는게 평화의 열쇠.
3. 모르겠다.
4. 불교가 자비의 종교임을 충분히 인식시킨다.
5. 동물·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6. (무응답)
7. 법회일정을 알기위해 종종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8. 보조·원효스님. 9. 없다.

■티벳망명정부(The Goverment of Tibet in Exile·티벳)
http://www.tibet.com/index.html

1. 무지에서 시작된 욕망과 합리적인 서원을 구별하면 된다.
2.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우주의 생성·소멸에 주목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종교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3. 언어를 배우고 정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4.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 불교를 찾게 될 것이다.
5. 보시행. 이것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며 인욕을 배우게 한다.
6. 우리의 영혼을 먼저 고양시키고, 과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7. 매우 좋다.
8. 2천년이 넘는 불교 역사와 선 전통이 강한 불교.



◇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

9. 한국의 스님·단체들과 교류.

■싱가폴 타이페이 협회(Singapore Taipei Organisations·싱가폴)
http://dabei.org.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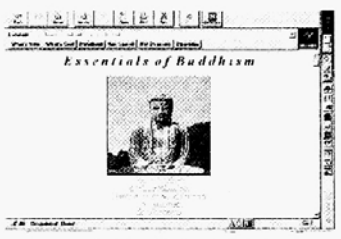
1. 시대의 결함을 바로 보고자 노력할 때 사회의 고(苦)가 해결될 것이다.
2. 부처님은 종교적 배타와 적대를 가르치지 않았다.
3. 인터넷도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다.
4. 부처님의 교화 방법을 연구-응용해야 할 것이다.
5. 명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서 참사랑이 생기기 때문.
6. (무응답)
7. 전자편지를 받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8. 선불교라는걸 알고 있다.
9. 모르겠다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미국)
http://www.igc.apc.org/b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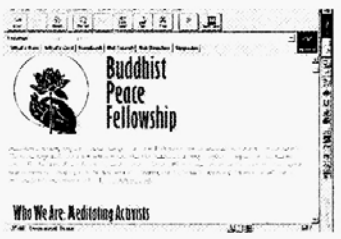
1. 서로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불교로 변할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2. 각 종교가 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변화에 노력하고 있어 좋아질 것.
3. 국제참여불교협의체, 화해와 조정기구 등을 조직해 협력관계 조성.
4. 특별한 사업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5.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며 평화와 이해를 엮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6. 불교가 올바른 가치관(사상, 철학)을 세워 줄 것이다.
7. 매우 좋다.
8.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 환원이 부족한 것 같다.
9. 국제참여불교협의체 활동을 통해 아시아 불교를 접하고 있다.

■불교의학·치료센터(Medicine Buddha's Healing Center·미국)
http://reality.sgi.com/mbhc/

1.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로써 대처하도록 힘써야 할 것.
2. 마음 속에서 해야할 일과 못할 일을 구분해야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소식지〉를 교환하면 좋을 것같다.
4. 불자의 도리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5. 실천과 나눔. 6. (무응답)
7. 좋다. 8. 모른다. 9. 없다.



◇ '불교필수'의 초기화면



◇ '불교평화연맹'

■국제창가학회(Soka Gakkai International·일본)
http://sgi-usa.org/

1. 억압, 차별로부터 자유를 찾는 불교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 종교는 상호관계로 출발해야 화합이 있을 것이다.
3. 각국의 불교가 동일한 목표(사명)를 찾아야 한다.
4. 불교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5.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찾고 불법을 실천하는 것.
6. 가능하다고 본다. 7. 좋다.
8. 교리보다는 신앙 자체를 강조.
9. 없다.

정리=오종욱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심장병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85-1
전화(053) 753-7?
신 인
저는 59세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처녀시절부터 심장이 좋지않아 결혼때 늘 이러버
호흡의 잘되지 않았으며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서 좋다는 약과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가을부터 고혈압과 심장마비등
뇌멘병등 합병증이 와서 이번에는 서울의 유명한 한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결과 뇌졸증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당시의 나의증상은 왼쪽어깨와 목뒤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지 목걸이등 여러가지 옥과목로 만들어진 혼합제품을
이용한결과 지금은 정상의 몸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옥산가옥 옥공한 업체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7. 1
신 고현

백옥 옥 옥
팔반 팔 팔
염주 지 찌
옥 옥 옥
벨 네 이
트 윅 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본점 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 • • • 佛紀 2542年 戊寅年 • • • •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부처님 마음으로

석 굴 암
주 지 법 달
▶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번지
TEL : 0561-746-9933

한국불교원각종
호남종무원
원장 석정암
종도일동
▶ 종무소 : 강진옴천사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TEL : 0638-33-2233

농촌한식
▶ 강릉시 임당동 176-2
TEL : 0391-647-6696

라피도 (강릉점)
대표 최종명
▶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106-20
TEL : 0391-648-9942

쌈 지 (강릉점)
대표 김종시
▶ 강릉시 금학동 53-1
TEL : 0391-42-3490
FAX : 0391-42-3490

대한불교 조계종
영 각 사
주 지 현 법
신도일동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22-3
TEL : 0345-498-7700

반야라이온스
회 장 김종호
1부회장 김창희
2부회장 조한제
3부회장 장기윤
총 무 김학열
재 무 박태영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73-17
TEL : 051-761-1478

티피코시(강릉점)
대표 김경남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36-2호
TEL : 0391-648-8511

푸른주유소
소장 곽시진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64-1
TEL : 0391-646-9666

동양한의원
원장 최종백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95번지
TEL : 0391-43-7575

대 경
광고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직원일동 ♦
카다로그 / 전지출판 / 광고기획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40-25 남양빌딩 604호
TEL :051-441-0445 (代)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단장 박채주
총무 강갑수
단원일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051-403-7077

통도사부산포교원
부 설 문화관
시민선원 연꽃어린이집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051-816-2241 FAX 051-806-2430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 설 지혜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타
노인의집
공창노인대학
▶ 부산시 북구 금곡동 53-1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부산지부
바라밀포교원
원 장 효 종
신도회장 양수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81-51
TEL : 051-633-6412
부산시립의료원법당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부산시립의료원 內
TEL : 051-864-2137

전법 · 도생 · 정진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한재구
학 장 이하우
부학장 박주천
총무처장 현익채
교직원일동
불자신용카드사업단
본부장 박주천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8-8659
FAX : 051-807-7351

釜山佛教醫師會
總 務 徐日錫
會 長 陳聖太
顧 問 吳洋孝
韓東大
理事長 朴同烈
TEL : 051-514-1845
818-7671

경제난국에도 "불교신협"의
신뢰도는 변함없습니다.
불자들이 서로믿고 찾는 은행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사상호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4-20
TEL : 051-633-9120

천년미륵용화도량
지리산 보문사
증명 월하
주지 기봉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81-2(달리암)
TEL : 0595-83-8000
H · P : 011-591-8000

대한불교
홍 제 종
종정 운공
총무원장 정타
종도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3동 산 51의2 (사명사)
대 표 051-806-6327
종무소 051-804-1037
FAX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선 우 사
주지 지연
신도일동
▶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1122번지
TEL : 0527-356-1946

청 정 회
부산 선원
주 지 휴 담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55-24
TEL : 051-516-9104
서울 선원 02-878-1843
대전 선원 대구 선원

세상을 바꾸어가는 자비실천의 전당
부산불교자비원
사회복지법인 대각자비원
부산불교대학 자비의전화
무료법률상담소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3-4 일력빌딩 3층
TEL : 051-465-8307, 461-0009
FAX : 051-441-2719
영도봉래산 **미륭사**
주지 김정각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 : 051-404-2100, 403-4300
FAX : 051-403-3570

불교전시관
대표 : 조재원
▪ 탱화, 동불, 특수불, 개금, 단청, 범종, 탁자
▪ 불교서적, 테이블, 4 · 8용품
▪ 불교용품, 일체도산매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330-152
TEL : 051-647-7393
051-632-7393, 644-8092

소해조형연구소
대표 : 노정용
▶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 4-2 합동석재공예사
TEL : 381-2193
호출 : 012-988-0320

약사포교원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 회장
장각성
▶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TEL 02-474-0554
FAX 02-472-5292

頭陀山 三和寺
주 지 : (慈光) 李遠行
外 信徒一同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TEL : 0394-34-7661~2, 8313
FAX : 0394-34-754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 박종하
신도회장 : 유무심화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TEL : 02-582-8609

지장기도도량
본 각 사
주지 : 대붕 벽해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산 8번지
TEL : 02-655-0012~3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닦는마음 밝은마음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에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TEL : 02-742-0172

한국불교 태고종
석 왕 사
주 지 편백운
관인 석왕사부설 **룸비니유치원**
강원불교대학
학장 리선행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778-45번지
석왕사 52-5040, 유치원 55-5040,
대 학 51-5040

• • • • 佛紀 2542年 戊寅年 • • • •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부처님 마음으로

대한불교 천태종 백양산
삼 광 사
주 지 박 덕 수
총 무 박 해 석
교 무 곽 수 산
재 무 정 거 호
노 부 전 김 갑 성
장 춘 덕
서 석 진
고 재 철
신 도 회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TEL : 051-808-7111~5
FAX : 051-803-1332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포교당
원 광 사
주 지 전 건 암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4-12
TEL : 051-501-6025

대한불교 조계종
육 주 사
주 지 현 엽
신 도 회 자 은 회
관 음 회 청 년 회
초·중고등 학생회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657-1
TEL : 051-971-0042

대한불교 조계종
수 안 사 (수안불교대학)
주 지 박 세 민
◆수안불교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
이지관 스님(금강경)
목정배 교수(한국불교문화사)
권기종 교수(기초불교교리)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4-12
TEL : 051-501-6025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명예회장 : 월 단
고문 : 호진 지하 직전회장 : 암도
회 장 혜 총
수석부회장 원 성
부 회 장 장산 일우 지홍 삼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동 1506호
TEL : 02-723-5264/736-6203
FAX : 02-736-2365

대한불교 조계종
문 수 사
회 주 유덕암
주 지 최지원
신 도 회 지 장 회
관 음 회 선 행 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61-3
TEL : 051-624-3754

예공종합건축사
대 표 정 운 영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24
TEL : 02-569-5290
FAX : 02-483-5724

문화재수리 단청기능 708호 · 도금기능 821호
탱화 · 단청 · 불상조성
한국 불교 미술원
원 장 정 규 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TEL : 02-730-8072
02-648-0930(야)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청 년 회

경제를 살립시다
어머님 부담을 적게 하겠습니다.
다빈 음악 미술 학원
원 장 김 미 리
학 원 생 일 동
▶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252-31
TEL : 051-517-5518

경제를 살립시다.
LG 우당 대리점
대 표 홍 종 인
자 동 차 보 험 · 화 재 보 험
단 체 보 험 · 연 금 보 험
기 업 대 출 · 개 인 대 출
▶ TEL : 051-465-8988
호 출 : 012-504-7226
휴대폰 : 011-573-4832

불교의 자존심 - *부다가야 · 대한기획이 지켜나갑니다.*
부 다 가 야
4.8용품 · 예수재 · 49재 · 불사
탱화 · 불상 · 기획상품
▶ 양정R:TEL : 051-865-4383
FAX : 051-865-4821
대 한 기 획
불서출판 · 사보편집 · 팜플랫
달력 · 기획인쇄
▶ 양정R:TEL : 051-866-7818
FAX : 051-864-7075
●부산 · 경남에서는 유일한 불교기획 전문 회사입니다●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 선 자
부회장 김옥자 이윤옥 허명애
총 무 안영자 심춘자
재 무 이미춘 도정애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0-34
화엄회관 2층
TEL : 051-809-3166/817-316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정 사
주 지 해 선
신 도 일 동
▶ 경남 창원시 봉곡동 127-12
TEL : 0551-87-0930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상임부회장 : 서 춘 석
고 문 : 강 병 중
부 회 장 최용원 조영준 김윤환
백봉도 최 찰
감 사 박수복 총무이사 박영근
재정이사 배영호 사업이사 김진석
회 원 일 동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7-14 O/P 1805호
TEL : 051-466-7174~5
FAX : 051-466-7176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성지 **표 충 사**
주 지 신 허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TEL : 0527-52-1150,1070
FAX : 0527-52-1836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지 은
대 중 일 동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39번지
TEL : 0522-95-7655

금 산 보 리 암
주 지 동 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65
TEL : 0594-62-6115,6500

지장기도도량
용 문 사
주 지 중 현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번지
TEL : 0594-62-4425

불교의 미래와 번영을 생각하는 모임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사장 벽 파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57
TEL : 051-403-7096
FAX : 051-403-9810

부산불교녹야회
(현대불교화요선방)
매주 화요일 저녁
화요선방을 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회 장 : 이 종 판 (도원)
총 무 : 김 자 행 심
▶ TEL : 051-634-5114

사단법인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 류 진 수
상임부회장 : 임 채 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TEL : 051-464-2020
FAX : 051-464-4786

재단법인
불심홍법원
고 문 : 조 정 관
이 사 장 : 하도명화
상임이사 : 이 혜 총
이 사 감 사 일 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통도사 부산포교원 내 203호
TEL : 051-818-4769

백양산 **선 암 사**
법 주 : 중 원
주 지 : 원 타
대 중 일 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TEL : 051-803-7573,7522
FAX :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금강불교아카데미
원 장 : 석 지 형
동 문 일 동
회 원 일 동
▶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2-5
TEL : 051-621-8548/621-8549

자비실천회
찬불가교실
찬불가 · 가곡 · 가요등을 무료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회 장 : 한 영 옥
지도강사 : 이 옥 희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TEL : 051-898-1547
FAX : 051-634-5114

대한불교 조계종
해 운 정 사
금 모 선 원
조 실 : 임 진 제
주 지 : 하 명 언
대 중 일 동
▶ 부산시해운대구 우1동 412번지 32/4
TEL : 051-746-2256/746-4812
FAX : 051-741-8882

부산불교보현회
회 장 : 안 성 이
상임법사 : 김 덕 기
고 문 성도헌 감 사 황인욱
총 무 오복순 재 무 하창선 조영희
▶ TEL : 051-636-4531/862-0720
부산보현홍법청년회
회 장 : 박 홍 제(명호)
부회장 : 이 명 애
감사·기획 김 해 남
감 사 전 진 호

흥국종합건설
대 표 권 영 적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8-8
TEL : 051-866-3331~8
흥국자동차학원
대 표 권 영 적
▶ 부산시 중1동 718-8번지
TEL : 051-741-5551~5

불교교육회관
사회복지법인 **공 덕 원**
주 지 : 석 효 선
총 무 : 석 지 광
신도회 일동
▶ 부산공덕원:부산시 남구 용호동 370-5
TEL : 051-625-2253,2254
▶ 대구공덕원: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17-4
TEL : 053-741-0077,0088

대형법회·신축불사 '자제'

종단·신행단체 등 'IMF 한파 녹이기'

불교계가 IMF 한파 극복을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11월25일 종단차원의 경제살리기 실천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12월부터 1월까지 교구본사 단위로 잇달아 교구종회와 본·말사법회를 열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실천운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신행활동도 봉사위주에서 벗어나 오계실천등 수행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시 불교사암연합회가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백양사 월정사 동화사 금산사 쌍계사등 교구본사들은 종회와 경제살리기법회를 통해 우리경제 살리기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말사에서 동시에 절약생활화운동에 들어갔다. 결의문에서는 과소비추방, 수입물품 안쓰기, 해외여행자제, 각종사업비 10% 절감, 1인1통장 개설, 불교적 경제생활의 실천을 실파키로 했다. 또 법주사도 철야기도나 법회시 설법내용을 '절약'으로 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동방대를 올해말까지 건립해야 하나 기금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으로 매년 봄·가을 두차례 열어온 대형법회를 올해는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이달초 종단간부회의를 열고 IMF한파에 따른 사업계획 차질및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천태종은 종단 재정수입이 상당부분 줄어들어 한해 평균 30~40건정도 진행돼온 신축불사를 억제한다는 계획.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가급적 각종 행사를 줄인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이달 중순에 열릴 종단 간부회의를 통해 경제살리기 10대 자비실천 실행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사업중의 하나인 종단사무전산화도 단계적 추진에 의한 비용부담분산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사암승가회 은평불교사암련 대구광역시신도회 대한불교진흥원 동산반야회 이웃을 돕는사람들 생명나눔실천회 불교방송 불교TV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명성여중등 각 사암련과 단체, 방송사, 종립학교도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을 벌이면서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홍보에 치중하는등 경비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특히 대한불교진흥원이 구랍 23일 이사회에서 다보빌딩에 입주한 각기업체의 임대료 장기연체로 교계 기관및 단체·행사에 대한 지원목적사업을 유보키로해 교계 학술및 신행단체의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불교TV는 '한달에 한주 사기운동'을 펼쳐 매달 2억원에 이르는 제작비로 충당한다는 계획. 또 20% 경비절감 방안으로 회사차량 이용, 임금동결, 상여금 6백%로 인하하는 안들을 내놓고 있다. 불교방송은 당초 지방국 4개, 중계소 5개 설립계획을 수정해 중계소만 9곳에 설립키로 하고 △수익사업 능률화 △조직의 내핍화 △지방국 운영현실화 등 98년 경영방침에따라 임금을 동결할 방침.

이와함께 각 단체에서는 외환위기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에 건립중인 복지불사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불교기아도움기구와 이웃을 돕는사람들이 네팔 현지에 건립중인 초등학교와 불교센터가 대표적이다.

전등사 재무국장 서강스님은 "이제부터라도 사찰경제를 불교경제관에 입각하여 사분법(四分法)에 맞게 투자 지출 저축 베품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중들에게 IMF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원우·한명우·강지연 기자

◇불교TV·불교방송 신년특집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시간
불교TV	신년특집쇼	1·2일, 10:00	불교방송	차한잔의 선율 신년특집	1·3일, 09:05
	신년특집 명사대담	1일, 09:10		'지구촌 새해맞이'	
	전통문화시리즈 '석등'	1일, 10:55		거룩한 만남 신년특집	2일, 09:05
	신년 인터뷰 '월주스님'	2일, 09:10		지혜와 자비의 소리, 온누리에	1~3일, 10:05
	특집다큐	2일, 10:55		노래실은 연하장	1~3일, 12:20
	'늘 푸르른 세상을 위해'			삼보를 찾아서	1~3일, 14:10
	인터넷으로 여는 불교	3일, 09:10		출발 1998년 1·2부	1~3일, 14:10
	특집다큐 '호국불교 전통'	3일, 17:45		세해, 세마음으로	1~3일, 17:10
	신년특집 '뜰앞의 잣나무'	3일, 11:20		원로와의 대담(가제)	1~3일, 18:15
	전망 '98	3일, 17:45		영화속 세상보기	1~2일, 22:05
불교방송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부	1일, 자정		IMF시대, 우리영화계 전망	3일, 22:05
	안녕하십니까?	1·3일, 07:15	대구BBS	큰스님 신년법어	5일, 08:25
	무인년 새해아침입니다			보도특집 새해설계	5일, 19:25
	신년특집 좌담	1·2일, 11:05		성도절 행사 1·2부	6일, 14:00
	다시 뛰는 무인년 1·2부				

"1백억재산 한방병원에 써달라"

암투병 권이재씨 동국대에 쾌척

"지역노인 의료혜택 받았으면..." 학교측 "12월까지 병원 개원키로"



◇권이재씨가 동국대에 기증한 100억상당의 빌딩. 원내는 권이재씨.

독실한 신심을 가진 한 불자가 한방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1백억원대의 빌딩을 동국대에 기증해 IMF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권이재씨(48세)는 이달 초순경 동국대 송석구 총장과 만나 아무런 조건없이 이 건물을 내놓겠다는 의사와 함께 건물기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씨가 내놓은 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규모에 자산가치가 1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강서구 방화1동에 소재한 정곡빌딩으로 주택가와 상가를 끼고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동국대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권씨가 빌딩을 동국대에 기증하게 된 이유는 "재산을 좋은 일에 쓰라"는 선친의 유훈과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에 기증하자는 신심깊은 불자인 부인 두양숙씨의 권유때문.

화곡동 전세아파트에서 살며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건물 옥상에 2평짜리 방을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을만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오던 권씨는 2년전 암투병으로 고통을 겪은 후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건물일부에 한방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각박해지자 이때 선친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동국대 한방병원 건립으로 결정했다.

권씨는 "내 뜻이기 보다는 부처님과 선친의 뜻이다. 한방병원으로 운영돼 지역 노인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이상 바랄게 없다"고 겸손해 했다.

동국대는 기증받은 빌딩을 한방병원 건립에 사용키로 하고 올 12월까지 의료팀을 구성해 개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건물 인수팀과 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해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권씨에 대해서는 기부자예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예우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상주법우회 박용식 전 회장이 구랍 20일 송년법회에서 신임 김종하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불우학생 18명에 장학금

상주법우회 새회장 김종하씨 선출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거사림법회인 상주법우회(회장 김종하)는 구랍 20일 오후 상주농협 예식홀에서 '상주불교인의 밤'을 개최하고 지역포교와 보살행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발원했다.

또한 제22대 회장에 김종하 성림조경 대표 등 17명의 임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상주사암연합회장 만송스님(극락암 주지)등 지역스님 20명과 직지사연수원장 이양길법사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이상배 국회의원(한나라당), 유상근 경북도의원, 김근수 상주시장, 박두일 상주경찰서장, 김의정 상주시의원, 김성태 상주로타리클럽회장 등 불자 기관장·유지가 대거 참석, 상주시가 명실상부한 불교도시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상주법우회와 회원가족, 김천수 前국회위원 등이 호암룸비니(원장 현종·0582-541-7863)의 결손가정 아동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종하 "신임회장은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 어려운 때일 수록 불우한 이웃을 돌보자"고 말했다.

부산-경주 관광연계

亞게임 월드컵관광객 유치

해양도시인 부산과 역사유적도시인 경주를 연계하는 관광코스가 개발된다.

부산경주권 광역관광협의회(가칭)는 구랍 23일 부산 연안여객부두 관광유람선 테즈락호선상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의회는 금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경주문화엑스포와 2000년 아시안게임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물제작 △해외관촉활동 △관광정보교류 △관광상품개발 등에 나설예정이다.

태고종 종사·대종사 특별선발

법랍 40세이상 자격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구랍 24일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 및 종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중진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사와 대종사 법계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 종사의 경우 속랍 50세 이상, 법랍 40세 이상으로 종단 종무직에 오랫동안 봉직한 공로가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계 자격기준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승정과 대종사, 종사 법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승중기강 및 승가위상 확립을 위한 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가정 위안법회

마창불련, 50가구에 성금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원각사 주지)는 구랍 29일 오후 마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제8회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법회'를 봉행하고 성금등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식에는 마·창불교련 이사장 지태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김혁규 도지사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가 추천한 마산시와 창원시 거주 저소득 모자가정 50가구에 월동 주·부식비 2천만원과 생활용품이 전달됐다.

이어 위안법회에서는 대자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와 삼학찬불단의 음성공양 등 자비의 한마당 잔치가 연출됐다.

군인·경찰 등 위문

천태종, 4천여만원어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구랍 19일 위문단을 구성 충청 도내 각 군부대를 방문, 격려했다.

천태종은 이날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충북지방경찰청 기동대와 공군사관학교, 청운공사, 17전투비행단, 37사단, 67사단, 13공수여단, 공군 3515부대, 육군 3105부대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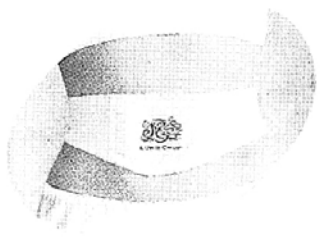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외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궁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브아토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축 개관

법륜사 수향회관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연로하신 노인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법륜사 수향회관과 함께 하십시오.



■ 완공된 법륜사 수향회관은? ■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 월말까지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선주리 (해인사 길목, 경남·경북 경계선)

· 주지: 운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명성여중 학생이 장애인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다.

명성여중생 41명 소쩍새마을서 봉사

대만여행 취소하고 자비실천

명성여중 학생회 간부 등 41명이 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운 나라사정과 사회분위기를 생각해 대만여행을 취소하고 소쩍새마을을 찾아 여행경비를 모두 후원금으로 내고 봉사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IMF 한파가 뭔지 잘 모르지만 보탬이 될까해서 1년간 계획했던 대만여행도 취소했어요. 하지만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장애인들을 보살피면서 마음은 더 뿌듯함을 느꼈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구랍 19일 소쩍새마을에 도착한 학생들은 곧 7~8명씩 조를 나누어 숙소 청소에서부터 점심공양 준비에 회복실 환자 시중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없이 맑은 눈만 깜박이는 자폐아들.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온종일 천정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만 하던 원생들이었지만 학생들은 조금씩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듯 보였다. 여자원생의 목욕을 거들었다는 김주연양(2년)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한 투정을 했는지 알것 같다"며 다음에는 꼭 부모님과 함께 와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별의 아쉬움에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의 뒷모습이 한뼘씩은 더 자라있는 듯 보였다.

원주=김정은 기자

대법원, 해인골프장 허가 적법 판결

"골프가 문화유산보다 중요한가"

교계 · 환경단체 "행정소송 불사" 강력 대응키로

국민회의 "대선공약 지키겠다" 취소 노력

대법원이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가야개발이 추진중인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해인총림대책위등 교계와 문화재 ·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최종영판사는 "가야개발의 골프장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여론에 따라 취소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는 이수성 전국무총리가 제183회 국회답변에서 해인골프장 문제와 관련 민족문화재수호 차원에서 철회토록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단체들과 협의하여 강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가야산골프장저지 해인총림대책위, 고령군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등은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27일 대구 인축사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재산권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적법할지라도 이번 대선공약에서 사찰환경보존을 약속한 만큼 관계기관 설득을 통하여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대법원 판결문을 조사분석하여 사찰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각 단체와 연대하여 선언문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올 성도절 내실있게 치룬다"

대규모 행사 자제…자비실천 · 철야정진 등 주류

6일 전국사암서 법회

1월6일(음력 12월8일)은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부처님 되신날(成道節).'

전국의 각 사찰은 뜻깊은 성도절을 맞아 연등불사와 철야정진 법회를 열고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불을 발원하는 발심의 장을 마련했다.

김천 직지사(회주 녹원)와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성도절 특별정진주간과 가해정진주간을 설정해 1일부터 6일까지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서울 조계사(주지 현근)도 1일부터 6일까지 성도재일 특별법회와 문화예술제 제등행렬로 성도절을 봉축한다. 또 은해사 등 전국 교구본사와 대부분의 사암은 성도절 전날 밤에 '성불등'을 밝히고 철야정진에 들어가 당일 사시에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 · 관음사 주지)와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 · 원각사 주지)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불자들이 함께하는 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대구사원주지련은 6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성도절 기념 봉축대법회를 거행한다. 또 마 · 창불교련은 5일 오후 3시 마산시청에서 강당에서 관내 2백여 사암이 참여하는 제1회 성도절 합동봉축법회를 열고 기독교의 '부활절'에 버금가는 행사로 육성키로 했다.

한마음선원 '수계' 3천여 신도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구랍 21일 안양 본원 법당에서 제9회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행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부산 · 광주 · 대전지원을 비롯 전국의 각 지원에서 참석한 3천여명이 5계를 받았다.

이날 대행스님은 수계법어를 통해 "계를 받는 것이 선업을 쌓아 상천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이된다"며 "계를 받을 때의 청정한 마음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자 성원에 감사

국민회의연등회(회장 박상규 부총재)와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언 부총재)는 구랍 20일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당선과 관련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을 조계사 앞에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뉴스 & 뉴스

BBS 사장 6일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구랍23일 제 7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교방송 새사장을 1월 6일 결정, 불교방송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방송 사장 추천건이 논의됐으나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신임사장의 소신과 인사관리 재정방안을 받아 6일 결정키로 했다.

한편 불교방송 사장 추천후보는 성낙승(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홍희흡(前 대구은행장) 김양일(울산광역일보 사장)씨다.

진관스님 상고 기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의 상고가 기각됐다.

구랍 26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 상고 선고공판에서 천경송 대법관장은 검사의 상고와 진관스님의 상고에 대해 모두 "이유없음"을 선고, 쌍방상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군포교자문위 구성 추진

군포교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군포교의 방향제시와 군승단의 감독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포교원내에 군포교자문위를 두기로 하고 구랍 26일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고 1월중 군포교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모범 자원봉사상 시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구랍 29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제2회 자랑스런 모범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단체상 대상에 대전맹학교 아나율 불교학생회, 금상에 보현행우회 영화사 방생회, 개인상 대상에는 문덕녀(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씨, 금상에 김태영(생명나눔실천회 자원봉사자)씨가 각각 수상했다.

신도교육 강화 '신행혁신'

조계종, '입문교육 의무화' 등 10대사업 확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전법의 해' 2년차인 98년이 '신도교육의 해'로 선정됨에 따라 '신도교육의 해 선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신도 교육화와 조직화를 통해 신행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신도교육의 해' 선정은 신도 입문교육과 수계, 심화교육과 조직화, 정기적 신행과 사회활동의 전개를 신행의 전형으로 삼아 호불호법의 튼튼한 신도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신도입문 교육의 필수화' 등 10대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10대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입문교육의 필수화=신도 입문교육을 종령 차원으로 의무화하여 연인원 10만명에게 입문교육을 실시. △교육기관의 설립과 확충=전법도량에 반드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고 본사별 불교교양대학 건립을 권고 · 지원. △교양대학 필수과목의 통일=입문교육의 교재는 포교원에서 발간한 〈불교입문〉과 발간예정인 〈신도교리서〉로 통일. 심화 교재는 종단에서 추천.

△교재 발간=〈신도교리서〉를 발간하고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 각 사찰은 3~6개월에 걸친 입문교육 체계를 구성. △지도자용 지침서 발간=전국 사찰에서 동일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각 교육과정에 대한 교안을 발간하여 이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 △수행 교육교재 및 방안마련 △강사 자료집 발간=강사 프로필과 전공과목, 발표 논문 등을 수록한 강사 자료집을 배포하여 유능한 강사를 발굴 · 활용.

△교육행정 체계 완비=본사 포교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본사 및 사찰 포교규정을 제정하고 포교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포교활동 평가와 인사고과 실시=포교활동 보고서를 취합,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하며, 필요시 실사 · 감사를 실시. △교육 지도자 과정 개설=신도교육 담당 스님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본말사 초임주지 연수 등을 활용해 추가 교육을 실시. 지역 불교대학 교육 담당자는 반드시 지도자 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목탄소리

위 영 란 〈취재1부 부장〉

DJ 성탄미사 불참 의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크리스마스인 구랍 25일 '성탄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부인 이희호여사만 김당선자가 다니는 서교성당을 찾았다.

좀처럼 미사를 거른 적이 없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당선자가 최대 의식이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미사 불참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자신의 종교활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당선자의 개인차원이라 하더라도 특정종교를 부각시켜 보이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다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 기간중 불교계를 둘러싼 파문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투표로 나타난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인파 속의 경호과정에서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한다.

어쨌든 이번의 불참을 두고 불자들은 "뭔가 다르다"며 "정권교체를 실감한다"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최근 5년동안 갖가지 종교편향으로 마음아파했던 불자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같은날 김영삼대통령이 신자로 소속된 충현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의 눈총을 받았던 것과 비교까지 돼 더욱 화제가 됐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김영삼대통령이 개인적 종교활동이라는 명분속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던져주었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청와대 예배 파문, 국방부시찰시 유독 교회만 찾아 예배를 보고 그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당시 상황은 타종교를 가진 국민들을 분노하게까지 했었다.

김당선자는 이번에 종교와 관련된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취임 전에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보인 것이다.

국가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종교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갈등을 솔선수범해서 막겠다는 귀한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修理寺의 첫눈

만산이 백산호와 같이
온산을 뒤덮고
환희의 기쁨을 안고
사바에서 극락까지
쉬지않고 멀어가는
가냘픈 중생의 마음
사바의 모든 것이
이 첫눈과 같이 깨끗하다면
아마도 극락과 사바가
유무에 대립 하지
않을 것을..

첫눈을 보면서
산사의 빈승은
이렇게 추억을 접어본다.

정축년 12월 12일
수리사 주지 성견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닥치는 모든일에 대해
어느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가 돼라.
무엇을 구한다, 버린다, 안버린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대(大) 수용의
대장부가 돼라.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장부가 돼라.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인간답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다운 삶 ! 모든것을 오직 주처에서
하는구나! 하고 믿고가는 삶,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다.

- 한마음 부산지원신도회 -

1998학년도 제7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 · 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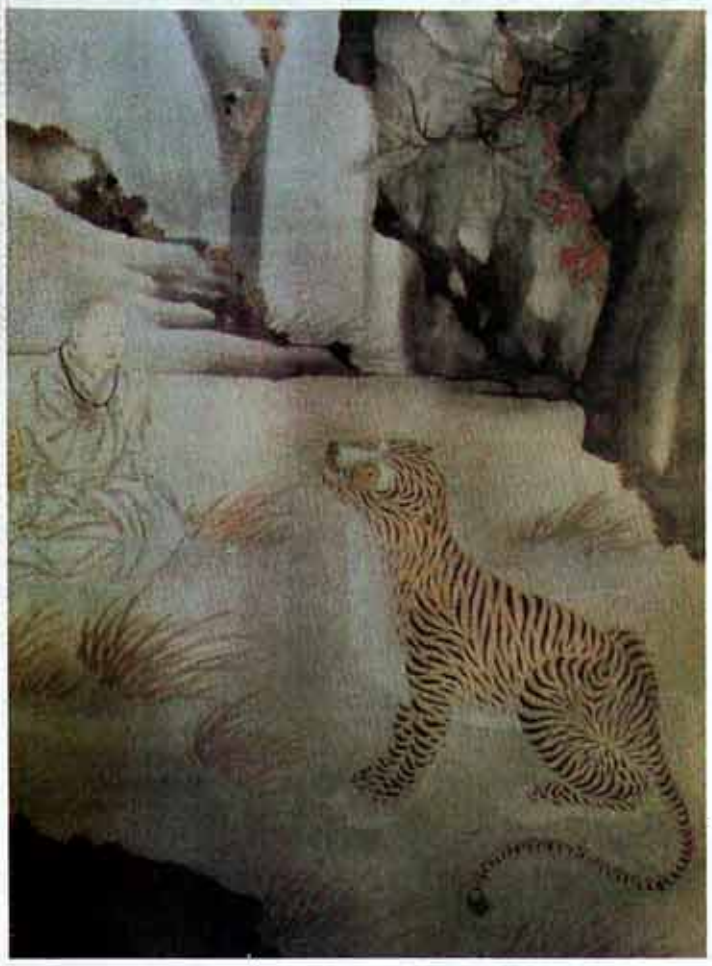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복덕이 무량광대한
부처님의 사절(使節)인 법사가 되도록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육화(六和) 수행 정진합시다 //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1월 5일 ~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37-5305

용맹·보은·護法 상징하는 영물



◇스님이 호랑이에게 '금강경'을 독경해 주고 있는 그림(부분도).

건국신화 등장…우리민족과 친숙

한국불교와 호랑이

무인년, 호랑이 해가 밝았다. 호랑이는 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선정될 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백수의 왕 호랑이는 강인하고 용맹스런 영물로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물론 여러 설화에 등장하며, 그림과 조각 등 많은 미술품에도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에 대한 숭배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강렬하다. 산에 대한 숭배는 그 속에 사는 호랑이와 연계돼 산신의 사자로 묘사되거나 호랑이 자체가 산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불교가 재래신앙을 수용하면서 호법신중(護法神衆)의 하나로 불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 증거로 사찰에는 산신각이 모셔져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산신탱화가 있다. 산신탱화를 보면 삭발한 스님이 손에 〈법화경〉이나 단주를 쥐고 있으며 호랑이가 그 옆에 다소곳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불교설화가 많다.

첫째 사찰연기설화에 나타난 호랑이는 자유자재로 인간으로 변신해 인간과 교류하거나 스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삼국유사〉의 '호랑이를 사랑하고 호원사를 창건한 김현의 이야기'를 보면 흥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은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호랑이가 변신한 것이었다. 이 소녀를 따라 호랑이굴에 들어간 김현은 소녀의 형제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게 될 뻔 했으나 소녀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다는 얘기다.

또 '희방사의 오누이탑에 얽힌 이야기'는 한 스님이 호랑이 국에 걸린 가시를 꺼내 준 보답으로 미녀를 얻었지만 마음의 흔들림없이 계속 정진하자, 이에 감동한 여인이 스님과 외남매를 맺고 함께 불도에 정진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둘째 화신(化身)의 예이다. 동진 융안2년(398)에 개달스님은 감초를 캐러 갔다가 오랑캐에게 잡혀 우리 속에 갇히게 됐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사람까지 잡아 먹던 때라 개달스님은 밤새껏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지극한 정성으로 외웠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큰 호랑이가 뛰어들어 개달스님을 구하고는 사라져 버린다. 관세음보살은 고통과 죽음의 액운을 당했을 때 믿고 의지하면 능히 벗어날 길을 베풀어 주신다. 자유자재로 변하면서 대중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이 호랑이로 화한 것이다.

산신탱화에 호법신중으로
속담·그림·조각 등 희화묘사

호랑이에게 몸을 던진 태자

옛날 어떤 큰 나라에 전단마제라는 태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비심이 깊었던 그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볼 때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주었다. 모든 것을 내주어 더 이상 어려운 이웃에게 줄 것이 없어지자, 태자는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기에 이르렀다. 자기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 사실을 안 부왕은 태자를 다시 궁중으로 불러들여,

베풀기 좋아하는 전단태자
굶주린 범위해 몸던져 보시
500수행자 발보리심 계기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남에게 베풀 것을 허락하였다.

한편 그 나라의 수도 가까운 산에서 용맹이라는 선인이 오백 명의 제자와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태자는 그들에게도 음식과 의복을 바쳤다. 어느 날 공양을 드리고 선인의 설법을 듣던 태자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입고 있던 비단옷과 치장을 궁중으로 돌려보냈다. 그 길로 선인들과 함께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왕후와 태자비는 몹시 슬퍼하며 태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태자의 수행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태자의 수행은 더욱 그 도가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산아래 깊은 골짜기에 사는 어미 호랑이가 새끼들 일곱 마리 낳았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큰 눈이 내려 어미 호랑이가 며칠째 먹이를 구하지 못하였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은 이미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조금만 더 지나면 굶주린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여 듣고 벼랑 위에 서서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의 가엾은 모습을 본 태자는 큰 자비심을 느꼈다. 태자는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벼랑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과거에 무수하게 지나간 생애를 하나하나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과거 생에서 자신은 중생을 위해 천 번이나 몸을 희생하며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을 하였고, 구백아흔아홉 번까지 실행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한 번 더 자신을 희생하면 그 서원이 모두 이루어짐을 알게 되자 기쁘기가 한량이 없었다. 이때에 부란장자라는 부호가 선인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왔다가 태자의 결심을 알고는 슬피 울면서 전송하였다.

태자는 엄장한 채 벼랑에서 뛰어내려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다. 굶주려서 기진해 있던 어미 호랑이는 태자의 살을 먹고 기운을 차려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고 마침내 새끼와 어미가 모두 살아나게 되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은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통곡소리로 가득하였다.

이 일로 용맹 선인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오백 명의 제자들도 크게 보리심을 내었다고 전한다. 호랑이를 위해 몸을 던져 보시행을 행한 태자가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다. 〈본생담에서〉

무인년 불교小史

고려 태조 팔관회 개설…황룡사탑 6차 중수

▲498년(고구려 문자왕 7년)=7월 고구려 금강사(金剛寺) 창건.

▲858년(신라 헌안왕 2년)=10월 보조체징(普照體澄), 왕명으로 가지산사(迦智山寺)에 머뭄.

▲918년(고려 태조 1년)=11월, 팔관회 개설,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음. 고려사에 따르면 전 왕조에 걸쳐 1백14회의 팔관회 기록이 있음.

▲1098년(고려 숙종1년)=△9월27일, 회경전(會慶殿)에서 〈인왕경〉을 3일간 강의. 왕이 몸소 승려 1만명을 공양. △황룡사탑 중수(제6차).

▲1278년(고려 충열왕 4년)=6월26일, 왕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담선법회(談禪法會) 변명.

▲1338년(고려 충숙왕 복위 7년)=△8월24일 원명국사(圓鏡) 충감(沖鑑) 입적(1275년 8월3일 출생). △흥왕사(興王寺) 광학회(廣學會) 설치.

▲1158년(고려 의종 12년)=△보조국사 지눌 출생(1210년 3월27일 입적).

▲1398년(조선 태조 7년)=5월, 대장경판을 강화 선원사(禪源寺)로부터 지천사(支天寺)로 옮김.

▲1458년(조선 세조 4년)=왕이 대장경 50부 이출(印出)을 지시, 승려 신미(信眉) 축헌(竹軒) 등의 감독으로 2월에 시역(始役)하여 4월에 마치고 각도 명산 거찰(巨刹)에 분장(分藏)함.

▲1678년(조선 고종 18년)=5월3일, 간성 건봉사(乾鳳寺) 화재, 3천1백83칸 소실.

▲1938년=△3월11일, 30본산 주지회의 개최(중앙불교전문학교 강당에서). △3월23일, 제24회 전국수좌대회 소집. △5월23일, 총독부, 보물·고적의 보호를 위해 표석을 세우기로 결정. △8월26일, 김제 금산사 미륵존불 및 건물 낙성. △10월25일, 각황사 대웅전 낙성(1949년 태고사로 개칭, 현재의 조계사)



◇홍명보



◇서정원



◇김병지

프랑스월드컵 16강
불자선수가 이끈다

홍명보 서정원 하석주 등 '불심 무장'

불심으로 월드컵 16강 고지를 넘자.

'98 프랑스 월드컵 국가축구대표팀(상비군) 36명이 꾸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축구의 자존심이라 불리우는 홍명보 서정원 하석주 최영일 김병지 장대일 선수 등 불자선수들이 포함돼 불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홍명보선수는 일본으로 이적하기 직전인 6월5일 축구 후배들을 위해 씨탈라며 장학금 5천만원을 쾌척했다.

현역 축구선수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기는 처음이어서 유난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는데, 홍명보선수는 "부처님의 가피로 월드컵 3회연속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것 같다"고 밝힌다.

홍선수와 함께 월드컵 3회연속 진출을 하는 서정원선수도 어머니와 부인의 간절한 기도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남한산성 망월사에서 올리는 기도를 떠올리면 날랜 돌이 서선수의 발놀림이 더욱 빨라진다는 것.

홍명보 서정원 선수의 3회 연속 월드컵 진출은 김주성선수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라서 이번 월드컵에서 그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한다.

'왼발의 달인' 하석주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장인정신이 부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집념이 "부처님의 구도정신에서 배운 것"이라 말한다.

이들 외에도 백전 노장 최영일선수, 수문장 김병지 선수, 떠오르는 샛별 장대일선수 등도 불심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착실한 체력보강에 들어가 16강 고지를 넘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홍명보 서정원 하석주 최영일 김병지 등 불자선수들이 불심을 바탕으로 마음껏 나래를 펴고 프랑스 그라운드를 내달리는 모습이 기다려진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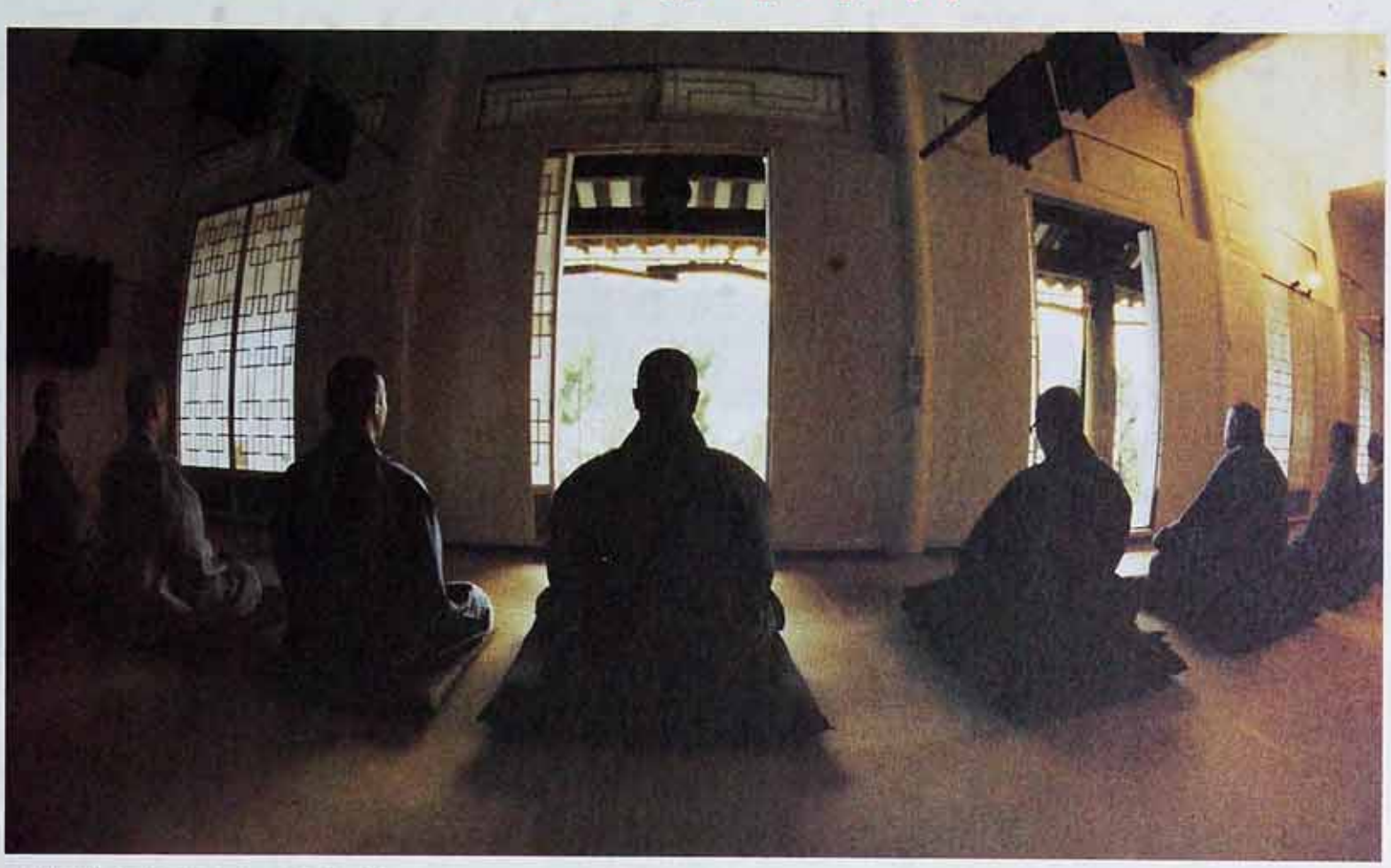
梵鍾 鑄造 47年!

韓國 梵鍾의 傳統을 이어갑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CO.
● 서울展示場
TEL : (02)733-6141, 4849
(02)734-6141
FAX : (02)733-4840
H·P : (011)268-1779(代表者)
● 本社·工場
京畿道 龍仁市 器興邑 古梅里 697-5
TEL : (0331)283-2083

21세기와 禪

과학의 시대 禪風 불고 있다



삼매

사진 · 안장헌

◇햇살이 비껴드는 선방에는 정적만 감돈다.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화두에 온 몸을 맡기고 좌선삼매에 든 스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를 날은 언제일까. 산문밖의 생활인에게는 삶의 현장이 곧 선수행의 자리다. 매순간 매시에서 삼매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으므로 '평범 충만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참다운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21세기가 바로 눈앞
인류는 과학에 대하여
물질만능에 대하여
위기를 느꼈는가
삶의 현장이 곧 수행처
'참나' 찾기에 나섰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
마음자리 꿰뚫어
부처를 이룬다"
이 무량한 염원
부처님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없다

21세기, 첨단 과학 정보화 시대에 선풍(禪風)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고대 인도의 사유문화가 낳은 '멍에를 벗어 던지는' 바람이기도 하고 동쪽으로 간 달마가 전한 '아픈 마음을 가져 오라, 내 아프지 않게 하리라'는 바람이기도 하다. 또 티벳의 성자들이 전한 '자기를 관하는' 명상이라는 이름의 바람이기도 하고 일본의 스즈끼 다이세쯔(鈴木大拙)가 하문의 체계로 전한 젠(ZEN)이라는 바람이기도 하다.

정치와 경제가 아닌 문화가 지배하는 21세기에 선풍은 어디서 어디로 불 것인가.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새로운 세기에 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삶의 현장이 곧 선수행의 자리가 되어 온갖 번뇌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형성되고 있으나 오히려 선을 잘 못 이해하면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

과학의 시대, 참 나를 찾는 열쇠가 선이라는 믿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선을 두고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선 그자체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의심의 자리에서 출발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많은 질문은 당연한 것이겠다. 무인년 새아침에 선을 향한 궁금증을 풀며 우리도 생활속의 선객이 되어 늘 화두를 챙기자.

임연태 기자

니련선하의 신새벽에 별빛 보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그 깨침의 요체를 어떻게 전했던가. 한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은근히 자리를 내어 주셨으며 관(棺)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였을 뿐이다. 이른바 말에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얽매이지 않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아름다운 전법이 세곳에서 이뤄짐(三處傳心)이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言語道斷), 마음 자리를 꿰뚫어(徑指人心), 본래의 성품을 봐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 이 무량한 염원은 부처님 이전이나 이후나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역대조사들의 활활발발한 깨침의 노래가 무명중생의 삶에 메아리처럼 전해 오는 것이리라.

겨울 햇살이 비껴드는 낙영산 공림사 감인선원.

붉은 끈으로 사방을 둘러치고 8명의 수좌들이 정진하고 있다. 바깥 사람의 출입을 막고 문 마저 닫아 걸고 스님들은 각자의 화두를 붙들고 문밖의 멧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적멸 속에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싸움이 끝나는 어느날, 가슴에 커다란 횃덩어리 떠 올른 한 수좌가 낙영산이 무너지는 벽력같은 소리로 진휴소의 울음 한 줄기를 토할 것이다. 그 순간 죽었던 부처와 조사들이 살아 와 별빛을 이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아니다. 깨침의 새벽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스스로 그 새벽의 주인이 되는 날까지 정진 또 정진 하라고 했다.

속리산 법주사 총지선원에는 31명의 수좌들이 하루 10시간의 좌선으로 부처와 조사들의 심인을 깍고 있다. 겨울 바람 속을 포행하던 진광스님은 문득 떠 오르는 한 구절을 놓칠 수 없었다.

"하늘가의 살림살이여/백운이 무심코 청산을 의지함은/그 옛부터 조사의 가풍일레라/그 뉘가 조사가풍 물어 온다면/눈은 푸르고 눈썹은 희다하리/… 미소짓다." 그러나 스님은 이 또한 언어에 걸림임을 잘 알기에 끝내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종이쪽지를 던져버린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스님은 말없이 선방으로 돌아갔다.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 쪽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기자에게 보여주고 "선승이 던져버린 것일지라도 한번 음미해 봄직하지 않은가"라며 웃어 보였다.

개달음에 산문 안과 밖이 따로 있겠는가.

도심의 선방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의 고난을 이겨내는 직지인심의 쾌활한 노래가락이 그립다. 직장을 마치고 찾은 선방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 떠나는 참선이라는 여행. 그 여행이 있어 살아가는 나날이 새롭고 만나는 사람들이 포근하다고 한다. 도대체 그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가.

과학과 기계문명으로 불편함 없는 세상을 꾸며낸 인류가 이제는 선수행에 매료되고 있다. 왜 그런가. 과학을 지배하던 인간이 과학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하는 본능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세계의 선불교 현황 26 특별대담 '21세기 불교 왜 禪인가' 27 선의 실제 28 선의 효과 29 선 문화 · 선 체험기 31

佛紀 2542年

謹賀新年



2천만 불자가 앞장서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열어 갑시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

세계의 선불교 현황

선의 태동 '동양' … 선의 활용 '지구촌'

한국불교의 근본사상은 화엄사상(華嚴思想)을 통한 대승적 세계관과 선(禪)을 통한 마음의 자각이다. 특히 깨달음을 대체(大體)로 삼는 선불교는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가장 강력한 전통과 사상적 영향을 이루고 있다.

전래 최초의 한국 선불교는 신라 진덕왕 4년(650) 법랑(法朗)선사가 입당(入唐)하여 중국 선종의 제4조 도신(道信)의 선법(禪法)을 전해온 것이 그 시원이다. 따라서 한국 선불교의 최초 전래는 이미 7세기 중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립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성립으로 대표되는 한국 승한 신라 선승들의 가르침은 신라 불교교단으로부터 이단시되었다. 신라 선승들은 점차 독자적인 선문을 세우고 나말여초라는 변혁기의 불교를 이끌어 나갔다.

전개 나말여초에 성립되어 한국 선문의 기틀을 마련한 구산선문은 고려 선종(宣宗)대까지 그 법맥이 계승되나 점차 선교융합의 길을 가게 된다. 이때 나타난 보조국사 지눌(智訥)은 교단의 부패와 선교(禪敎)의 대립으로 인한 고려불교의 난맥을 직시하고 선종의 중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우리나라 선종맥은 구산선문의 통일을 꾀한 고려 태고보우

한국불교의 선맥

나말여초 구산선문 禪불교 기틀
경허스님 현대 한국선 중흥조

선종맥의 성립과 전개는 783년에 입당,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남종선(南宗禪)을 이은 가지산문(迦智山門)의 개조(開祖) 도의(道義)를 비롯 입당 선승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구산선문이란 도의가 귀국한 821년부터 가장 늦게 이엄(利嚴)의 수미산문(須彌山門) 성립까지 932년에 이르는 112년간 나말여초(羅末麗初) 선승들에 의해 전개된 선문의 근본도량 아홉 곳을 말한다.

신라 하대(下代) 불교는 화엄을 중심으로한 교학불교의 이론적 번쇄함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고 귀족적이었다. 따라서 혜능(慧能)의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과 마조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자각을 계

(太古普愚)이래 조선 청허휴정(淸虛休靜) 문하의 4대문파로 그 법맥이 이어져 현대 조계종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성우(鏡虛惺牛)와 그의 법을 이은 만공월면(滿空月面)과 용성진종(龍城震宗), 한암중원(漢巖重遠) 등은 선과 교를 겸비한 고승으로서 수행과 포교, 후학 양성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전개된 현대 한국 선불교는 일년에 두 차례의 정기적인 수선안거(修禪安居) 전통을 회복, 현재 전국 70여곳의 선방에서 평균 2천여명의 수좌가 수행하고 있다.

◇구산선문(九山禪門)

산문(山門)	도량	개산조(開祖)	위치	종지(宗旨)
가지(迦智)	보림사 (寶林寺)	도의(道義) 783~821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무념무수 신해수증 (無念無修 信解修證)
실상(實相)	실상사 (實相寺)	홍척(洪陟) ?~828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무수무증실인법 (無修無證心印法)
동리(桐裏)	태안사 (泰安寺)	혜철(惠哲) 785~861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무설이설 무법이법 (無說而說 無法而法)
희양(曦陽)	봉암사 (鳳巖寺)	지선(智詵) 824~882	경북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	간심일언(看心一言)
봉림(鳳林)	봉림사지 (鳳林寺址)	현욱(玄昱) 787~868	경남 창원군 상남면 봉림리	제법개공 만연구적 (諸法皆空 萬緣俱寂)
성주(聖住)	성주사지 (聖住寺址)	무염(無染) 800~858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무념무염은 즉 대립되는 분별세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무념무염은 또한 즉 세계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념무염은 즉 세계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굴(闍堀)	굴산사지 (堀山寺址)	범일(梵日) 810~889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진귀조사 교외별전 (眞歸祖師 敎外別傳)
사자(師子)	법흥사 (法興寺)	도윤(道允) 798~868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목격도존 법이고준 (目擊道存 法而高峻)
수미(須彌)	광조사 (廣照寺)	이엄(利嚴) 870~936	황해도 벽성군 금산면 넝정리	조동종지 인능홍도 (曹洞宗旨 人能弘道)

선불교는 그 발생지 인도에서보다 중국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룬 불교의 중국적 형태로 평가받을 정도로 창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중국선은 초조 보리달마와 그의 직계그룹 혜가·승찬·도신·홍인 그리고 중국선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혜능(638~713)과 혜능의 동문이면서 북종선(北宗禪)을 세운 신수

중국 禪

수·당대 선종 면모 갖춰…송대 묵조선 부흥

(606~706)까지의 수당(隋唐)시대에 선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중국 선종은 4조 도신(580~651)과 5조 홍인시대에 독자적 의식과 청규의 원류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교단으로 정착됐다. 이어 6조혜능과 신수에 의해 선의 무대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종선과 북종선이라는 새로운 판도를 형성했다.

혜능을 정점으로 하는 남종선과 신수를 정점으로 하는 북종선은 중국 선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사상·계보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남종의 돈오와 북종의 점오'논쟁이 그것이다.

당대(唐代)중엽에 들어서 중국선은 각 계통의 선승들이 법맥과 선사상, 지역적 분포를 계기로 조동종, 임제종, 위앙종, 운문종, 법안종으로 총괄되는 선종5가의 시대를 열면서 황금기를 구가한다. 북송시대에는 운문종과 임제종이 활발한 운동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임제종의 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됐다.

이후 송대(宋代)에서는 선종5가와 임제종으로부터 파생된 황룡파(黃龍派)와 양기파(楊岐派)가 분립되고, 이 가운데 양기파의 대혜종고(大慧宗高, 1096~1163)로 대표되는 간화선과 조종종의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으로 대표되는 묵조선이 선불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오가칠종(五家七宗)시대의 막이 오른다. 화두를 참구해 견성을 목표로 하는 간화선과 좌선을 중시하는 묵조선은 송대 선종의 대표적 형태로 발전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원(元)·명(明)·청대(淸代)에 들어서 중국선종은 원대의 라마교 우대와 정토사상이 포함된 염불선으로 변용되면서 쇠퇴기에 접어든다. 그러나 조동종 선과 임제종 간화선의 전통은 그 맥을 잇는다.

문화혁명으로 쇠퇴했던 중국불교는 개방 후 선불교 연구를 빠른 속도로 그 폭을 넓히면서 깊이를 더하고 있다.



◇서구에서 선은 철학·예술·문학 등 각 분야의 학문적 연구토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인들이 모여 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

일본 禪

선어록·선문화·선연구 등 세계적 수준

중국에서 이식된 일본 선불교는 수많은 선어록과 연구서의 출판 성과를 남기는 등 세계의 불교학계를 압도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연구나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 선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송나라에서 임제종 황룡파의 선맥을 전해온 영서(榮西, 에이사이;1411~1212)에 의해서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 시기는 천태종 외에도 융통염불종, 정토종, 정토진종, 그리고 남종선의 임제종과 조동종으로 이루어진 선종, 일련종(日蓮宗), 시종(時宗)이 새롭게 등장하는 카마쿠라(鎌倉, 1185~1333)시대로, 일본 선종 각 파의 개조들은 송대 중국에 건너가 수행했으나 일본적 색채가 강한 일본 선종을 전개시켜 나갈 때였다.

이후 원통대응국사(圓通大應國師)라는 국사호를 받은 남포소명(南浦紹明, 1235~1308)과 대등국사(大燈國師) 종봉묘초(宗峰妙超, 1282~1337), 관산혜현(關山慧玄, 1277~1360)으로 이어지면서 응(應)·등(燈)·관(關) 3대라 불리우는 일본 임제종의 정통파가 성립돼 그 법맥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일본 임제종의 정통임을 자처하는 묘심사파에서는 백은혜학(白隱慧鶴, 1685~1768)이 배출돼 일본 임제종의 중흥자이자 일본 근세 임제선의 시조로 불리게 된다.

일본의 조동종은 중국 천동여정(天童如淨, 1163~1228)의 문하에서 수행한 도원(道元, 도오겐;1200~1253)에 의해 성립됐다. 도원의 선은 좌선을 강조하는 '지관타좌(只管打坐)'로 오직 좌선을 통해서만 참다운 자기발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도(江戶)시대에 이르러 조동종은 법맥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싼 영평사와 총지사의 대립, 승려들의 이권투쟁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는다.

서구 禪

20세기 명상등 수행법 활성화…동양으로 역수출

서양에서 선의 수용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본격화됐다. 그러나 그들의 선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응용되기도 했다. 서양에 최초로 선을 알린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쯔(鈴木大拙, 1870~1966)가 선에 대해 심리학적·철학적·형이상학적 요소를 가미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독일의 종교학자 루돌푸 오토(Rudolf Otto)가 선을 신비주의로 분류한 것이 그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선불교가 기존사회에 대해 비판을 가한 비트 젠(Beat-Zen)과 금욕과 엄격한 수행을 강조한 스퀘어 젠(Square-Zen)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 조동·임제종의 선 지도자들이 자파의 수행법을 지도한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수용한 것도 선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이식된 선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은 철학, 사상, 예술, 문학, 정신분석학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고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전문가들은 선의 사상과 가치관에서 영감을 얻고 새로운 사상과 작품, 새로운 치료법을 창조해내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들어 서구에서 유행하는 불교수행법이 국내에 유입되고 영어권에서 출판된 선문헌, 선 해설서가 역수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구사상과 문화에 맞게 정착된 불교와 이를 토대로한 명상법이 불교문명지에 뿌리내리려 한다. 1천6백년 불교역사를 지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명상, 과연 禪인가 "형태 과정 비슷하나 목적 달라"

명상을 선(禪)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학계의 정설은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선과 명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선과 명상의 과정과 목적, 그리고 북방불교와 남방불교의 관점에 따른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학을 공부하고 직접 수행경험이 있는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과 명상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단언한다. 형태와 과정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목적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성본스님과 혜환스님은 명상은 화두를 전제하지 않으나 선은 근기에 맞는 화두를 참구하고 모든 의구심을 타파하는 해탈의 과정이므로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관점' 즉 북방불교의 시각이 전제된다. 명상이 선과는 다르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서구의 명상이 티벳선이나 위빠사나같은 남방선과 유사한 형태와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종교학자나 명상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명상과 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명상 길라잡이〉를 출간한 박석교수(상명대 중어중문)는 서구의 위빠사나나 Zen(선) 등 메디테이션(meditation)으로 통칭되는 명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선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독일의 종교학자 하인리히 두몰린(Heinrich Dumoulin)은 그의 저서 〈선과 깨달음〉에서 세계적 현상으로 발전한 명상운동은 그 방법과 목표가 다양하며, 현대의 선 운동 역시 시대조류와 환경조건에 적응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결국 명상과 남방불교의 선수행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는 명상과 선의 관계규정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명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동·서양의 시각차, 그리고 북방·남방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

佛紀 2542年 戊寅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72-3100
팩 스 (0343)72-2746

● 국내지원 ●

● 금왕지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 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21-466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아산지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3통 1049번지 Tel : 0418-44-1464
● 울산지원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 0522-44-0884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 마산지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2~3층 Tel : 0551-42-6638~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91-746-8163
●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Tel : 0431-273-6946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강원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43-0642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지원)
● New York (뉴욕 플러싱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Fax : 703-560-5166
● Los Angeles (LA지원) 210 N Catalina St. LA.CA 90004 Tel/Fax : 213-382-1711
● Chicago (시카고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Fax : 847-674-0812

-CANADA (캐나다 토론토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of Argentina Tel : 541-921-9286/ Fax : 541-925-0054
● Tucuman (뚜꾸만지원) El corte (Frente Policia) Avenida. Aconquiza Yerba Buena Tucuman Rep. of Argentina Tel : 5481-25-1400

-GERMANY (독일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Fax : 49-2131-969552

대담: 21세기 불교 왜 禪인가

"선의 생활화 창조적 삶의 원동력"

선(禪)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선수행은 구도자들의 수행에서 생활인의 일상적인 수행법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만능의 시대를 구가하는 21세기를 여는 시점에 인류는 왜 선에 관심을 갖는가. 현대의 제문제들을 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21세기불교 왜 선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와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들어 본다.



박성배 교수

동국대 철학과 및 대학원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서 불교학 박사학위. 동국대 교수역임. 1969년 도미. 현재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 한국학과장. 동국대 석좌교수. 한국학시리즈 및 학술지〈한국사상〉편집장. 〈불교신앙과 돈오사상〉등 저서 논문 다수.



성본스님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 법주사 강원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일본 구택(駒澤)대학에서 석·박사학위 취득. 중앙승가대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중국선종의 성립사〉〈선의 역사와 선사상〉등 논저 다수.

"서구사상 한계 벗어나는 길 찾다 신선한 바람 禪을 만난 것이죠"

- 박성배교수 -

"부처님의 선은 사성제와 12연기 꿰뚫어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 성본스님 -

'평상심 道'는 미래문명 이끌 정신적 寶庫
'나와 전체 하나' 확신하는 삶 인간성 회복

▲박성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대란이란 말이 시시각각으로 실감나는 시기에 날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야말로 선수행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성본: 선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래마음 자리를 들여다 봄으로 자기의 실상을 깨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은 고대 인도의 사유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순이라는 자연환경이 사유적 수행을 낳은 것이지요. 그러나 고대 인도의 사유문화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은 아니고 부처님의 사유와 같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선은 사성제와 12연기를 꿰뚫어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은 중국에서 완성된 조사선입니다.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고대의 사유법은 후대 규봉종밀이 말한 '오종선(五種禪)'에서의 외도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성배: 그렇다면 조사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 주시지요.

▲성본: 〈육조단경〉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고 일체 경계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사상과 공의 실천이라는 사상적 완성이 단경이 말하는 좌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은 좌선 수행법이 일상의 생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마조의 역설은 선종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성배: 선이란 스스로 체험을 하는 데서 그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것에서 선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조의 '평상심이 도'라는 말과 선의체험 중시사상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성본: 사람마다 스스로 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선학이란 것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일뿐이고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을 밝혀 보는데서 향후 선이 인간생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배: 현대인들이 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지금 곽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물론이고 서양인을 지배했던 신중심의 정신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병은 늘어나고 사회악은 다양화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고 답답하게 된 것이죠. 그 답답함을 벗어날 길을 찾다가 만난 것이 선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신선한 바람을 만난 것이지요.

▲성본: 서구인들은 선을 상당히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과 일본의 선(ZEN)을 접하기도 하고 위빠사나 수행법을 따르기도 하고 요가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이라는 영역에서 이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안이 그런 수행을 통해 극복된다는 것이겠습니다.

▲박성배: 종교적 세계에서의 구원이나 자각을 말할때는 그에대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개인의 자각의 실천이 확산되어 사회의 공업이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개인은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성본: 현대의 우기상황은 바로 그런 조직성을 보는데 있어 개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데서 출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있고 개인은 없다는 의식에서 개인의 인간성이 도외시 되어 버린 결과 인간의 절대적 존엄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인간 개인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박성배: 따지고 보면, 개인이라는 것도 시간적으로 고대라든가 중세라든가 하는 성격에 걸리고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는 지역성에도 걸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개인은 지역성과 역사성 시간적 굴레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성본: 숲만을 보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나무만을 보면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숲과 나무를 한꺼번에 보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선수행의 역할이고 과제가 아닐까요. 결국 인간의 존엄과 인간끼리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현대의 병폐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안, 환경의 문제, 지역간 계층간 종교간에 야기되는 갈등 구조들도 모두 숲과 나무를 한꺼번에 보는 힘, 다시말해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선이 만병 통치약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잘 못 이해된 선은 오히려 더 큰 병을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배: 개인의 자각은 각종의 사회적 관심사와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철저히"라는 말의 의미도 여기서 더욱 새로워 지는 것입니다. 조사선에서 가르치는 '평상심'을 자각의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 큰 과제로 남은 셈입니다.

▲성본: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자각의 힘을 키워 내는 것, 정신세계에서의 평온과 자유가 밖으로 현전되어 사회조직 속의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때 과학이라든가 컴퓨터문화 정보화 사회로 치닫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래의 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와 선의 공존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박성배: 오늘날의 컴퓨터는 디지털화된 기술의 발전 속에서 그 기능이 한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컴퓨터라는 것의 구조는 1과 2를 구별하는 2분법에서 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확대되어가는 기능에 매몰되어 컴퓨터에 인간이 따라가는 꼴이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된 컴퓨터도 결국 '생명'의 문제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귀하디 귀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컴퓨터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리는 것은 가치전도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광고에서 아이가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요, 과학과 기술로 안되는 것이 없고…"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믿음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름다운 인형이 잘 팔렸는데 요즘은 오줌을 누고 눈꼽이 끼는 기능을 지닌 인형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그런 인형이 잘 팔리고 그런 상품이 양산 되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그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그리워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성 상실의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본: 인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곳에서 자연과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능성 개발과 하화중생의 보살도 구현을 위해 매진한다면 그런 사회가 바로 깨달음의 사회일 것입니다.

▲박성배: 개체로서의 나와 전체로서의 나는 결국 둘이 아닙니다. 그 둘이 아닌데 대한 확신을 얻는 것과 그 확신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된 선을 통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조사선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전개될 수 있느냐, 그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매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론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성본: 일본의 다도(茶道)에서 강조하는 말 가운데 '일기일회(一碁一會)'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찰나찰나에 한번의 기회가 오고 한번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매사를 창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추구하는 것 역시 일상사를 창조하며 사는 것, 매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자기"라는 말처럼 공간과 시간과 자기가 하나가된 삶, 몸과 마음이 일여(一如)한 삶, 자연과 사회와 내가 일체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선수행의 생활화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박성배: 그러나 지나치게 선이라야 한다는 당위성에 얽매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은 선이 아니다"는 귀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이어야 한다 것도 때로는 망상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는 진정한 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社團法人 韓國佛教大圓會
理事長 朴銑炘

●大圓法會●

상임법사 이지행
회장 김용직
부회장 배영옥
부회장 한채순
부회장 임광배
부회장 신성옥
부회장 오덕랑
부회장 심현옥
부회장 이호녕
감사 손정애
이사 문황진
이사 허성구
이사 이강인
이사 범행
이사 도의
이사 성열
이사 법진
이사 상월
이사 경희
이사 자민
이사 혜운
이사 도형
이사 동림
이사 오원
이사 성우
이사 정수
이사 윤치환
이사 배호구
이사 배영옥
이사 김학매
이사 김길성
이사 이상우
이사 고원규
이사 김용직
이사 임광배
이사 이원자
이사 이상준
이사 윤연
이사 전찬규
이사 권오현
이사 이지행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 10:30 ~ 12:30 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7733-9171
FAX 756-7258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

재단법인 선학원

"민족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상무이사 성문

이사 범행·도의·성열·법진·상월
경희·자민·혜운·도형·동림
오원·성우·정수
감사 정관·법운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02)734-9654~6 FAX 734-3410

禪에의 초대-禪의 실제

"자기 바로 보면 우주 보인다"

선종(禪宗)이라 할 때 '禪' 자는 인도 여덟 단계의 요가 중 제7 단계인 '디나(dhyana)'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감각이 교란됨이 없이 하나의 대상에 전히 집중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서 한자로는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뜻 '정려(靜慮)'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러나 선사들이 체험하고 가르친 선은 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하거나 고요한 태로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 마의 본체를 바로 즉각적으로 자각하려 것'이었다. '禪수행의 여러 방편'에는 선의 개념을 '마음의 본체를 자각려는 다양한 노력'으로 확대 해석했. 염불·독경·사경 등의 다양한 수행도 최종적으로는 선적인 깨달음에 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수행방편을 개한다.

간화선 간화선(看話禪)은 임제종의 대혜 종고 선사가 창도한 선으로 주제를 두고 심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話頭)를 들고 이 관문을 과해 가는 선수행법이다. 즉 '문제의 뜸 핵심'인 화두를 참구하여 언어 이의 소식, 사물 이전의 실처를 참구한는 뜻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을 깨는 방편이다. 화두는 여러 층의 의식 껍질들을 뚫고 가장 궁극적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 원나라 때의 고봉선사는 삼요설(三要說)을 주창하여 참선수행의 지름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큰 믿음'으로 마치 수미산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확고부동해야 하며, 둘째는 '큰 분노'로서 어버이의 원수를 만남에 즉각 한 칼로 베어 버리고자 하는 기개를 뜻한다. 또 셋째는 '큰 의심'으로서 오직 근원을 알고자 하는 의정을 말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억겁을 참구해도 성취할 수 없다 한다.

염불선 염불(念佛)은 부처님의 원력과 공덕에 의지하여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하고자 하는 타력신앙이다. 염불선에서는 중생의 업력 너머에 존재하는 법신 생명과 온누리에 충만한 무한한 빛과 생명의 세계를 '아미타불'이라 부른다. 즉 아미타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진리와 성불의 세계이다.

염불선은 네 가지 실천수행법으로 구성된다. △공경과 겸손을 담은 '예배문' △친절과 찬탄을 노래하는 '염불문' △명등과 정직의 '실상문' 등을 통한 자신의 정화, 그리고 △자비와 헌신으로 인간관계와 환경을 정화하는 '회향문'으로 요약된다. 이중 실상문에는 △법계에 충만한 광명세계만을 관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실상염불' △아미타불의 '송자만트라 슈릿'을 관하며 내가 염불의 소리가 되어 부처님께 나아가는 '범자염불(梵字念佛)' △호흡에 맞추어 아미타불을 염하는 '수식염불' 등이 있다.

독경 대부분의 경전에는 그 경을 '받아 지녀 독송'(受持讀誦)하는 공덕을 찬탄하면서 독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수지독송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와 성불에의 발심을 염두에 두고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등을 애송하고 있다.

특히 경전의 독송을 가장 중요시하는 법화일승법(法華一乘法)에 따르면 〈법화경〉을 수지·독·송·해설·서사(書寫)하는 5종수행을 강조한다.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광선유포가 근본수행이 된다. 또 '받아서 가진다'는 것은 〈법화경〉을 그대로 믿고 잊지 않는다는 뜻이 있으며, 이것이 곧 마음을 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읽고 외움'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외우며 요긴한 것을 취해 읽기도 하고 법본존(法本尊)인 '묘법연화경' 제목을 일념으로 끝없이 수지봉창한다. 아울러 억겁동안 6근으로 지은 모든 죄를 〈법화경〉을 독송하며 참회하는 참회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진언 '부처님의 진실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진언(眞言)'은 '신성한 사상을 표현한 진실한 말'이란 뜻을 가진 '만트라(mantra)'를 어원으로 한다. 만트라는 주술신앙의 주문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깨달음과 성불을 목적으로 하기에 밀교를 중국에 전한 불공(不空, 705-774)스님은 특별히 '진언'이라고 번역했다. 진언을 '다라니(dharani)'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는 것'으로 총지(總持)로 번역된다.

대승불교의 한 갈래인 밀교에서는 몸과 입과 뜻(부정적인 의미의 三業과 분리하여 三密이라 함)을 한데 모아 전심전력으로 진언을 외우며 수행한다. 몸으로는 수인(手印)을 맺고 입으로는 진언을 틀리지 않도록 또렷하게 외우며, 뜻으로는 자신의 보리심이 부처님과 하나되는 것을 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신과 하나인 자신의 법신을 깨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밀교종단인 진각종은 창종주 희당대종사가 전수한 '삼밀관행(三密觀行)'을 기본 수행법으로 삼고 있다.

사경 인쇄술이 시작되기 전에는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寫經)을 통해 불법이 전파되었기에 큰 공덕으로 여겨져 왔다. 가장 오래 된 8세기경 신라시대의 사경인 〈백지묵서화엄경〉(국보 196호) 등 거의 모든 사경 가운데는 경전 끝에 발문격인 발원문을 함께 써서 언제, 누가, 왜, 어떻게 이 사경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지금은 사경의 목적이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바뀌어 형식 보다는 마음가짐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초보자는 굳이 붓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반야심경〉 등 짧은 경전부터 시작한다. 처음에는 글씨 보다 기도에 집중해서 사경한다. 1자3배, 1행3배(一行三拜), 1자108배 등 적합한 절을 병행하면 된다.

사경은 발원을 공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 성격이 급해 참선이나 여타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는 불자들에게 권할 만한 수행법이다.

위빠사나 '위빠사나(vipasana, 觀法)'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빠사나는 여러 대상의 관찰을 통해 그것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측면, 즉 삼법인(三法印,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을 확실하게 꿰뚫어 본질적인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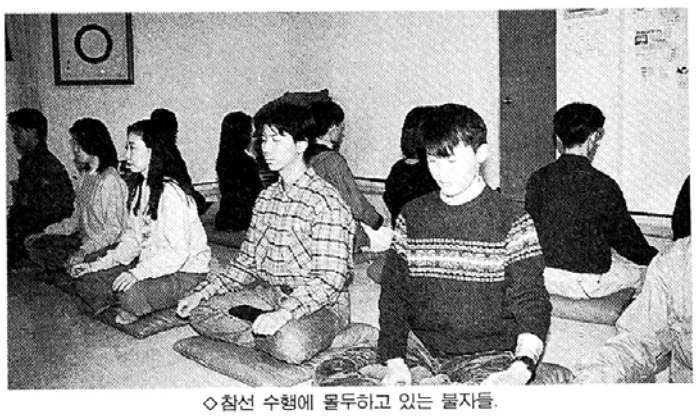
위빠사나는 주위깊게 관찰해야 할 네 가지 대상으로 몸·감각·마음·법을 설정, 신관(身觀) 수관(受觀) 심관(心觀) 법관(法觀)을 내용으로 하는 사념처관(四念處觀)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는 △마음 속으로 숨을 세는 수식관(數息觀) △호흡의 출입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식관(隨息觀) 등의 호흡관과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부정관(不淨觀) 시신관(屍身觀) 백골관(白骨觀) 등이 있다. 이밖에 △걸어 다니면서 발의 느낌 바라보기 △일상 속에서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바라보기 △호흡시 배의 움직임 바라보기 등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다.

선무도 선무도(禪武道)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실천적 수행방편이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고요함과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선무도는 부처님이 취하고 계시는 수인에 따른 동작들이 대부분이며 크게 앉은 자세의 좌관(坐觀), 선자세의 입관(立觀), 움직이면서 하는 행관(行觀)으로 나뉘고 이것은 다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나뉜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영정좌관과 영동좌관, 영정입관과 영동입관, 영정행관과 영동행관이다.

선무도는 몸·마음·호흡의 조화를 통해, 신구의(身口意) 3업을 정화시켜 참나를 찾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무도를 수련하면 기(氣)가 강화되지만 그것은 탐진치 3독심을 없애 참나를 찾는 작업에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다. 선무도는 호흡을 위주로 하며 직선운동이 아닌 원운동이어서 나이 건강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련이 가능하다.

김재경 기자

禪수행 가이드



◇참선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

간화선 화두들어 사물이전의 실처 참구
염불선 아미타불 원력의지 타력신앙
독 경 깨달음발원 일념 수지독송
진 언 몸·입·뜻 모아 가르침 모두 기억
사 경 한자 한자 새기며 발원 공고히
위빠사나 삼법인 꿰뚫어 지혜얻음 목표
선무도 호흡 조화통해 신구의 3업 정화

생활禪 실천하는 대표적 단체

"안팎경계 일체 '근본주처'에 놓자"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의 생활선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마음의 선'을 강조한다. 그것은 일체를 '근본 주처'(부처, 한마음 主人空)의 나툼이라고 믿어 내게 다가오는 일체의 안팎 경계는 물론 나라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놓으라고 한다. 그렇게 놓고 가다보면 홀연히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결국 날마다 마음의 불을 밝히고 관하는 것이 참선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늘 주인공 부처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이 참선이란 것이다. 내가 생긴 것 자체가 화두이니 따로 화두를 들 게 아니라 일체를 주인공이 한다고 믿어 모든 경계를 그 자리에 놓고 여여하게 생활함으로써 대자유인으로 거듭 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임을 체험

동사섭법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 가운데 하나인 '동사법'은 불보살이 중생과 함께 나누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한다. 용타스님(국신사 회주)의 동사섭(同事攝)법회는 중생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을 가르친다. 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는 사실을 체험케 해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나누는 수련을 통해 비로소 자신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5박6일 동안 계속되는 전체모임과 소모임을 통해 8정도와 6바라밀, 계정혜 3학을 자연스럽게 내면화 하여 '아는 것을 행으로 옮기는 것이 수행'이라는 사실과 '깨어 있는 삶'이 어떤 것인 가를 체험케 한다.

현실상황 마음에 바치는 염불 수행

금강경독송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금강경〉 독송을 통해 '마음 바치는 법'을 중요한 수행법으로 삼고 있다.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매일 매일의 현실 속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통해 그때 그때 올라오는 마음을 항복받아, 옳지 않은 습성이 배어 죄를 짓는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참거나 마음을 달리 먹거나 하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정면으로 그 마음에다 대고 조건없이 염불(미륵존여래불)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故 백성욱박사(前 동국대총장)는 마음 바치는 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바치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난 공경심이지, 거기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니라. 공경심으로 상응되지 않으면 '있다 없다'(有無)가 된다. 자꾸 바쳐서 공경심으로 상응되어 자연히 알아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규봉 종밀의 5종선 최상승선 도달해야 진여삼매

규봉 종밀(780-841)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선의 참된 근원은 선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과 수행을 포괄하는 불교의 원천이라며 선의 종류를 5단계로 분류했다. 종밀이 주장한 5종선(五種禪)은 외도선(外道禪),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최상승선(最上乘禪)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가 최상승선이며 나머지 4종선은 선행(禪行)의 모습일 뿐이다고 규명했다.

◇외도선: 내세에 사바세계에 태어나기를 싫어하고 천계(天界)에 태어날 것만을 바라며 닦는 수행을 말한다.

◇범부선: 인과(因果)를 믿고 있어도 분별심으로 닦는 선을 말한다.

◇소승선: 오온(五蘊)이 공(空)한 것을 깨달았으나 불공성(不空性)을 보지 못하고 진리에 집착하여 닦는 선이다.

◇대승선: 자아와 진리가 공함을 모두 깨달았으나 진리를 드러내고자 닦는 선이다.

◇최상승선: 본래부터 청정하고 번뇌가 없으며 지혜의 본성이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수행한다.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식이요법을 통한 치료

癌 치료

난치병의 치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서야 작은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상 실험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를 낳고 몇몇 인연있는 분들을 모셔 병고의 걱정을 덜어 드릴까 합니다.

- 항암약재 12가지를 혼합하여 치료재를 만들었습니다.
- 공인된 발명 특허 공법(엽록소 추출공법)을 이용한 순수 자연(한방)추출액입니다.
- 임상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1개월 복용시 치료 향상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10명 1개월 무료 시음 수양과 치료를 겸합니다.

● 문의주시면 스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약 수 암 주지 대봉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346번지
문의 : 0346)591-3154, 591-8759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謹賀 新年



불교달력

"아직도 달력을 제작 안 하신 사찰이나 부족하신 사찰은 연락 주십시요. 즉시 (2~3일내) 보내 드립니다."

종류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

선의 효과

직관·창의력 향상 "심신 안정"

참선수련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에 있다. 그 과정에서의 뇌생리학적 내지 정신의학적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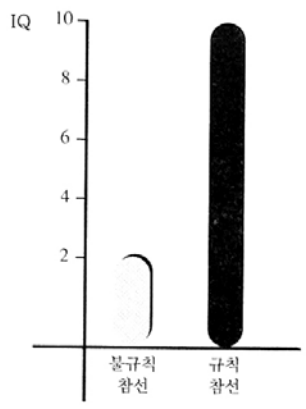
참선의 효과는 무엇보다 심신(心身)의 안정을 통한 최적의 감정상태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는 곧 직관력, 창의력, 상상력, 기억력 등을 향상시키고 예술적, 과학적 사고나 행동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현대병이라고 일컫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계정신의학계를 비롯한 뇌생리학계가 실시한 임상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 스탠포드대 의과대학이 7~8년 이상 줄곧 참선을 하여온 선승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발견한 특이한 뇌파상태는 그같은 참선수련법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선 수련할 때 'α(알파)파'라는 뇌파가 주로 두정부(頭頂部)에서 전두부(前頭部)에 걸쳐 특이하게 나타났는데 이 'α파'는 인간의 의식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심신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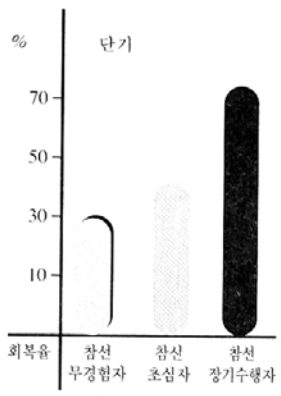
'α파 상태'일 때 뇌에서는 '엔돌핀'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이같은 엔돌핀의 분비는 뇌세포 파괴를 방지하고 노화방지에 기여한다. 또한 암세포 파괴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T임파구를 강화한다.

한편, 실험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초년자의 선정에서는 α파가 나타났다가도 주위에서 자극을 주거나 해서 마음이 동요하면 곧 안정 뇌파가 없어져서 좀처럼 다시 잘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6~7년 이상 수도한 선승에게서는 그 같은 자극에 곧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자극이 없어지면 곧 다시 안정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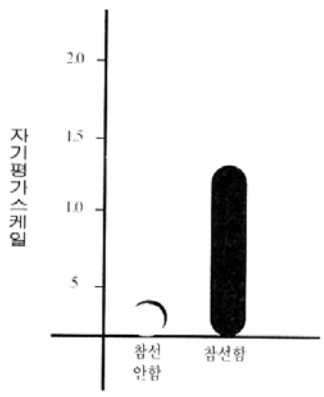
1992년 8월호 〈뉴스위크지〉에 발표된 최대의 대뇌생리학 당신을 과학적으로



◇지능지수의 향상



◇기억력 회복 테스트



◇일에 대한 만족도

선수행 엔돌핀 분비 뇌세포 파괴 방지
우울증·스트레스 해소 '임상실험 입증'

성공에 인도한다'라는 제하의 논설에 따르면 "'α파상태'에서 비로소 사람의 뇌가 맑아지고, 직관이며 창의력이 나타나기 쉽게 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또 기억력이 향상된다. 결국 사람은 α파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독창성과 상상력 등의 잠재뇌력이 발휘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선을 통한 심신의 안정은 최적의 감정상태를 유지, 심사숙고하게 한다. 또한 시(視)·청(聽)·후(嗅)·미(味)·촉(觸) 등의 감각도 예민해진다. 상상력도 풍부해 진다. 모든 예술적 심지어는 과학적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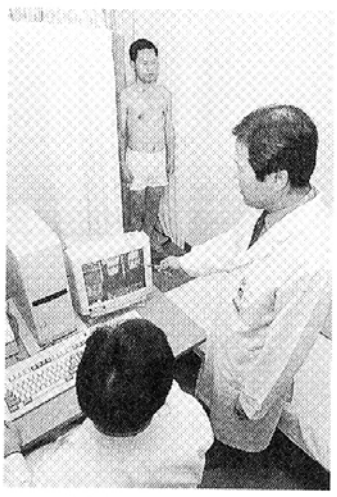
이는 실제로 박희선박사(前 서울대학교 공학대학 교수)가 1년간 참선을 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도표 참조〉

참선하고 있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1년간에 약 10%의 지능향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뛰어난 순응력 창조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대 정신의학계는 이같은 선(禪)의 효과를 마약중독자, 정신박약아 치료를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계에서도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개선에 참선수련법을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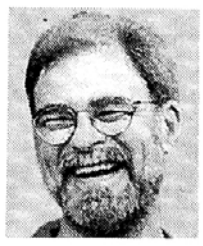
최근에는 IMF한파로 인한 직장인과 주부들의 우울증과 불안한 심리,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필선 기자


◇참선의 효과는 심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있다. 사진은 임상실험 모습.

NBA 시카고 불스 잭슨감독의 '선 효과' 경험담

"정신집중훈련 연승신화 기여"



불스팀을 맡던 날 나는 기독교인으로 배웠던 덕목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선을 하면서 느꼈던 깨달음들, 라코타족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교훈들을 종합해 자아를 버리고 헌신과 자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새로운 팀 분위기를 창출하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불스팀을 맡고 선수들에게 정신집중훈련을 시키자 경기를 더 많이 하거나 승리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명상훈련은 주의집중이다. 주의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자유롭고 '텅 빈' 마음의 상태, 즉 '초보자의 마음'을 먼저 연마해야 한다. 나는 명상강사 조지 멈퍼드를 초청해 3일간 선수들에게 주의집중 코스를 받도록 했다.

멈퍼드가 선수들에게 가르쳤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이렇다. 척추를 똑바로 편 채 의자에 앉아 시선을 아래로 둔다.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정신을 집중한다. 마음이 사방을 헤매다닐 때, 정신을 흩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가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그런 뒤 다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한다.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과 다시 호흡에의 정신집중으로 되돌아오는 일련의 순환이 앉아 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어난다.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감각적인 사건들과 그에 대한 반사작용을 서서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평온한 상태를 간헐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평온한 상태가 좀더 안정적으로 길어지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분노 고통 등과 같은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하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게 된다. 나에게는 명상이 농구경기가 아주 잘 풀릴 때나 지독히 형편없을 때나 경기장 밖의 삶에서도 한결같이 나로 하여금 평정으로 유지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한 도구다.

이러한 명상훈련의 결과 그룹을 지어 함께 말없이 앉아 있는 경험이 그들의 자의식에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고 팀의 결속력을 한결 강화시켜 주었다. 때로는 주의집중 훈련을 코트까지 연장해 모든 연습을 침묵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집중력을 심오한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말없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으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필 잭슨(미 농구팀 시카고 불스 감독)의 〈NBA신화〉 중에서

'문답으로 풀어보는 禪' 158호부터 게재



진제스님이 말하는
산문안의 禪

"…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佛祖大活句)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無傳亦無受)…"

67년 하안거 해제시 향곡스님이 진제스님에 내린 전법게이다. 불교선종은 이러한 전법과 인가를 통해서 선맥을 잇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왔다. 진제스님은 부산의 해운정사의 금모선원과 대구 동화사의 기초선원 선방대중들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다. 선방 수자들에 대한 지도는 향곡스님의 게송처럼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법을 전하는 것인만큼 어려움도 크다. 화두를 타파하면 스승을 찾아가 반드시 점검을 받는 것이 불가의 전통. 그러므로 바른 공부에는 선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제스님은 요즘 불교계 수행풍토의 문제점은 올바른 선지식의 지도 없이 수행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제 때마다 몰리는 선방의 수좌들에게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화두를 성성하게 챙기라는 당부. 그것은 일천성인의 이마위 일구를 투과하는 활구를 참구하여 만생명의 사표(師表)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혼침, 망상, 습기에 젖어 있던 중생이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늘을 찌를듯한 대용맹과 대신심만이 해결의 돌파구가 된다고 했다.

스님을 찾는 많은 납자들 중에도 경계에 부딪힌 이들, 자신이 깨쳤다고 주장하는 이들 등 많은 부류가 있는데 이때마다 스님은 그들의 공부수준에 맞는 화두를 간택해 지도하고 있다.

진제스님은 기초선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출가한 모든 이들이 2-3년간 참선을 공부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기초총림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선을 세계 속으로 알리기 위해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를 통해 저서 번역을 추진중에 있다.

"화두 참구 혼신 만생명의 師表되라"



강정진법사가 말하는
산문밖의 禪

"불교는 중생이 부처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중생이 부처로 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기와 번뇌의 존재인 중생을 자성(自性)이 삶을 주재하는 존재로 속성을 변화시키는데에는 올바른 수행과 수행법이 필수적인 것이죠."

재가자로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이끌고 있는 취암 강정진(姜丁鎭.63)거사는 수행의 정의와 수행방법의 확립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불교관을 정립하고 있는 강거사의 수행지도는 그래서 더욱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다. 무엇보다 그가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라는 신분이 수행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강거사는 생활 속의 공부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체험한 구체적인 공부단계와 그 단계별 경계극복 등에 대해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교육에도 단계가 있듯이 수행에도 관법, 염법(念法), 의심법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관법'은 수행자가 수행의 방편을 마음 속에 대두시켜 심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정신'차리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선지식의 지도하에 수행의 참다운 정의, 수행방법, 수행단계에 대한 이해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지고의 사상이므로 이 진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남아 있는 과제는 얼마나 체계적인 수행법을 세계 속에 알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렸다며 그의 저서번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 관(觀)을 중시하는 남방불교와 격외(格外)를 중시하는 북방불교가 조화롭게 병행된 체계적인 수행이 꼭 선결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한국불교가 수행의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법·염법·의심법 단계별로 거쳐야"

〈부산=천미희 기자〉

공 고

지금까지 **삼론종 종단분규**를 지켜보신 **대덕스님!** 그리고 본 **종단스님**과 **사부대중**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억척과 낭설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연유를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용증명('97.10.28)을 보낸지 60여일이 지나도록 회답은 커녕 전화도 한통화없어 내용증명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상공고하오니 읽어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 판 결 문 ▣

1995. 5. 2 판결선고
1995. 5. 2 판본영수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 사 건 94나21032 직무집행방해배제등
◆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삼론종(大韓佛敎三論宗)
●주지 ● 현 2동 5●9의 2● 우 ● 정 사
대표자 총무원장 이 ● 배
소송대리인 번호사 ● 태 ●
◆ 피고, 항소인 손 성 수(孫 性 洙)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의 18
소송대리인 번호사 박 준 용
◆ 최 종 종 결 1995. 3. 28.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6. 2 선고, 93가합18745 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내용증명(10月 15日字) ●

●봉스님! ●봉스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정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된 스님입니다.
끝문대 덕 높으신 종도스님들을 우둥하고 있으니 승단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본 일은 없으신지요? 본인은 그 여러석을에 당딘함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종●스님들의 체제니까 잘고없을 뿐인데 ●봉스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업장만 늘어날 뿐 스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작 사인함것을 권해 주었음에도 종도따른 사랑분별이 되지 않으니 도대체 자격도 없는 종정을 고집하여 종도들의 수행에 방해되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봉스님이 종정의 자격이 없는 이유 1. 스님은 1982년도 종도자격상실 (의무금미납부) 스님은 92년도 의무금 10만원과 93년도 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종법 승니법 제 5.26항에 해당 2. 1992년 10월14일자 총정불신임안가결(기. 종도 총정 자격상실) 3. 종령이 무효인 이유(종령제1호 1993. 11. 12) 총정 자격상실후 발동 4. 속인도 아니하는 고소를 다반사로 하는 여군난 자세 5. 상좌가 매일로저 하는 짓(소●면 소작 ●용사)을 가로채 나에게 비속게 짤라한 길 결론 1. 상좌 챙겨치는 은사가 되지 말고 모든것을 떡지화 하고 조용히 여생을 마치면 종도들도 찾아갈 것입니다. 2. 내가 종정에 취임은 하였으나 종정행위를 하지않고 있으니 몰아오면 언제라도 종전과 다름없이 종도들은 스님을 종정으로 받들것입니다 3. 이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스님은 승려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4. 이 전지를 영전히 보관하는 동시에 스님 사찰근처에 대구에서와 같이 한집 한집 스님이 그만둘 때까지 돌리고 신문에 꺼리서 보낼것입니다 5. 승려가 무엇이 할말이 없어서 자기 상좌시켜 소송이나 일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상좌이든 벗이든 체탈도첩 하여 승려계에서 배장을 시켜고 하는 은사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봉여일 스님도 참 딱하십니다.나는 설마 그래도 스님의 정도가 아직은 살아있어 참회라도

● 내용증명(10月 28日字) ●

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이홍만 해먹고 버리는 그 악습을 멈춰내어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최사하지만 금전라고소에 판해서 다음을 참보고 깨닫기를 바라오.
1. 천모종단 정화시에 당신을 위해서 수족같이 다니면서 노력하였고 결국은 스님은 빼지고 나만 축출당하고 말았지요 2. 상기 종단에서 명예회손혐의로 고소당해 스님이 당시 돈 백만원으로 해결했으나 나는 스님보다 돈을 멋잡질 더 썼으며 3. 삼론종 창종당시 어려정비로 창종을 했었오! 당시 선실동 사무실 임대비 집기 전화기 2대, 복상 쇼파등 일체를 내가 부담했는데 뒤 방이동 사무실 봉합지를 붙였다고 거짓 억지를 쓴니까 4. 잘실 총무원도 본인이 3000만원 으로 보증금걸고 이주 했었고 5. 스님이 끌어드린 박모 스님들 형제 농간으로 구로동으로 이주 할때도 본인이 부담한 500만원으로 3층을 얻어 갔었으며, 6. 장●싸 문제로 소송할때 당시 사무총장 ●봉스님이 사표까지 내면서 말렸으나 스님이 주장하여 결국 나는 물론 종도들 작신단 축내고 말았지요 7. 나는 4.5년간 스님차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나 없을때 넣어라고 줄고 종도 때어 준것 스님도 부인하지 않겠지요 8. 회의때면 회의 경비를 내가 다 냈었지요 9. 이곳 신협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은행이자로 2년간씩 2회(4년간) 금 1000만원씩 두번 주었다가 스님이 늦어지면 내가면서 차환하고 후에 입금되면 충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700만원 빌려주었으나 스님은 나를 버리고 결국은 내용 증명으로 해결했었지요 10. 스님이 우●●사 에서 나에게 제 물었지요 학암스님이 삼론종 종단을 위하여 얼마나 보시 했느냐고요? 그래서 스님과 큰것만 계산하니 약 3500만원이 됐었지요. 11. 당시 삼론종 종도는 스님제자가 70%나 되었으나 스님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내돈을 스님에게 주어 종회석상에서 당신이 내는양 하였고 2년이 지나도록 말이없어 달라고 하니까 그중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삼론종에 보시하고 말았지요 ! 12. ●산 스님과 스님이 불화가 생겼을때 스님이 고소하여 ●산 스님이 스님과 싸우기 싫어 답변서만 내고 말으니까 1심에서 스님이 승소하고 2심에서 3학후 스님이 종도 몇 사람 데리고 나가 ●주에서 한국불교삼론종으로 할려다가 내가 종정으로 추대되니까 그대로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주지라고 말았으며 13. 1994.9.6 나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 하였으며 14. 같은해 9.10. 석●산측 대책위원5명과 스님측 대책위원5명이 이천 설봉호텔에서 1992년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내용6항 쌍방은 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합의사항이 성실히 준수되는 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스님이 위반하였고 15. 같은해 10.24 상의하여 합의각서까지 쓰고 스님이 앞 13항의 고소를 무조건 취하 하였으나 16. 상기합의서 제 5항에 보면 (만약 어느측도 이를 위반 할시 위반한측은 어떠한 민·형사를 제기하드라도 괴소한 것으로 한다) 이 합의서에는 스님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17. 그날 오후 스님의 입방직인 과기로 합의는 무산되고 따라서 상기 16항이 무효하다 할것이며 18. 다음날 스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무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등으로 나를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년 제 35566호) 결국 나는 무림의로 풀려났으나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메모해 주고 나서 그대로 실행하니까 사무시위조라고 억지부렸지요 스님의 메모를 내가 보관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불이익을 감수할뻔 했습니다 19. 그것도 모자라 스님의 사서성장 검●한 명의로 또 고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년 제48372) 를 하는 상식밖의 행위를 하더니요 그후 집●잔에게 물었으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니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스님의 처신에 종도들 보기가 민망할 따름 입니다. 20. 거기서도 끝이않나 당시 스님의 총무원장인 이●해 이름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년 제 41934호) 이러고도 실로 가관적으로 나를 체탈도첩했다고 산문공고 해일언하고 스님은 불교계와 본종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위치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그자리를 물러남이 주변스님과 종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함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원포리 80번지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임오사 조실 홍 재 규 혜암 합장

충청북도 주지 현2동 78-2
우●●사
주지 이 ● 봉 스님 귀하

이것은 거짓말이나 부인도 못할 것이니 다음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一. 고법 판결문과 같이 1심 2심 소송비용을 방위동측 번호사님께 지불하고 영수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二. 충주측에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등록된 사암현판을 내리기 바랍니다.

三. 종단협의회는 귀하측에서 등록하였으니 그 명위를 혜암재규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四.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을 받았으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하니 금년(음,1997년)내로 이행하고 지상에 사과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행치 않을시는 몇가지든지 걸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1997년 12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암(학암) 재규 합장

佛紀 2542年 戊寅年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운 문 사

주 지 명 성
부주지 혜 은
재 무 지 일
교 무 영 심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TEL : 0542-72-8800

관오사(동화사 포교원)

(부설 : 불교사회 교육원)

원 장 지 도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47-3
TEL : 053-784-3669
FAX : 053-784-2343

남 장 사

주 지 성 응

▶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번지
TEL : 0582-34-6331

(재) 선 학 원 여 여 선 원

원 장 이 혜 운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TEL : 대구 622-0336/629-4945

팔공산 거조암

(오백나한 기도도량)

주 지 혜 해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번지
TEL 0563-35-1369

상아종합슈퍼

(과 일 집)

박 선 희

▶ 대구시 남구 이천동 712-7
TEL : 053-473-3909

성당쇼핑(정육부)

하영식 · 송순희

▶ TEL : 652-4275

델리원제과

안 법 인

▶ 대구시 달서구 본동 225-8 그린코아지하상가
TEL : 053-621-4315

구지방앗간

대 표 박 순 홈

▶ 대구 중동시장 內
TEL : 053-763-2988

문무전력(주)

대표이사 김 상 철

▶ TEL : 053-744-3000

謹 賀 新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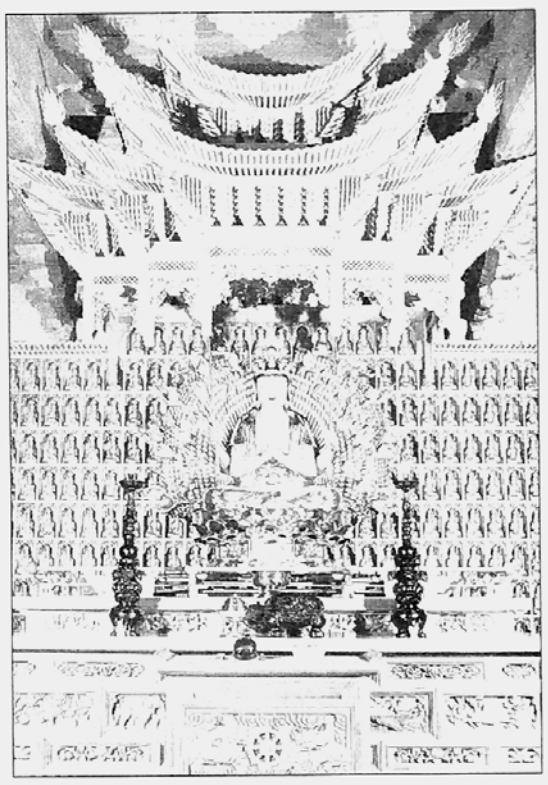
새해에도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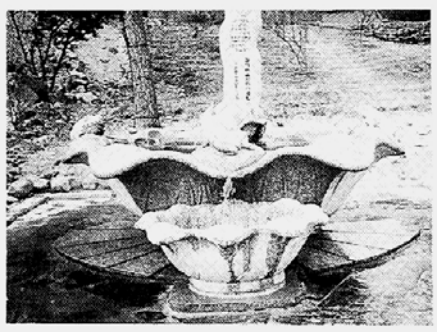
대표 이 진 형 합장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 · 심 · 석 · 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루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러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사찰 법당 음향설비

● (상담역) 음향 연구가
무선설비기사: 김 문 화
아마추어 무선사 HL 1ACU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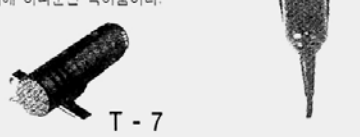
최고의 吸音力을 자랑하는
법당의 필수품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방생법회, 휴대앰프
-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스페셜마이크



- 가장 멀리서 들어간다
- 자체에서 음음력을 조절한다
- 어떤 앰프라도 상관없다
- 세계에 하나뿐인 특허품이다.



T - 7

DX-707
스페셜 마이크
가격 200,000원

초고감도
유선핀 마이크
가격 50,000원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 : 85,000원

Kim's 음향연구소
소장 김 문 화
전화 : (02) 601-8284~5

유 코 전 자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02) 697-9976, 605-3235
FAX (02) 695-9676

韓國佛教文化藝術院

운장법사선필연구회

"오색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禪筆

◆ 문의 02-242-0331
242-0255

21세기와 禪

선문화 선의 수행과 정신 또는 선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뜻한다. 인간의 근원적인 청정한 자리 본래심을 바탕으로 전개한 예술적 소산, 즉 문학 다도 음악 미술 서예 춤 무예 등 그 장르는 다양하다.

선체험기 21세기 정신세계를 선도해 나갈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 참선과 참선 후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참선을 생활화한 사람들의 진솔한 체험담을 들어본다.

꾸밈 없는 독창성 '특징'

선문화란 지식적 이론이나 관념적인 접근, 또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명예욕, 성취욕으로 하는 예술이 아니라 가식과 꾸밈이 없이 일체의 형식을 초탈한 무심의 경지에서, 직관의 지혜가 작용하여 시각화하고 조형화된 작품이다. 따라서 이것에는 작가의 정신과 사상이 혼연일체가 되어 녹아 있음은 물론 파격미와 독창성이 뛰어나다. 보는 이들 역시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아름다움과 청정 탈속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선시와 선서화, 다도이다.

임제종 황룡파 홍정견(1045~1105)거사로부터 비롯된 강서시파가 최초의 선시 장르를 형성했다.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표시로 주는 전법게, 깨달음의 희열을 읊은 오도송(悟道詩), 임종때 남기는 임종게, 산생활의 서정을 노래한 산거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거시는 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 낙도, 무소유를 노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수와 혜능이 본격적인 개오시를 남겼으며 영가현각, 천동정각 등의 선사와 왕유, 백거이 두보 소동파 등 헤아릴수 없는 많은 시인들이 빼어난 선시를 썼다.

우리나라는 고려때 태고보우, 나옹혜근, 조선의 함허득통, 청허휴정, 소요태능, 부휴선수 스님, 경허·경봉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뛰어난 선시를 남겼고 선시는 하나의 큰 문학조류를 이루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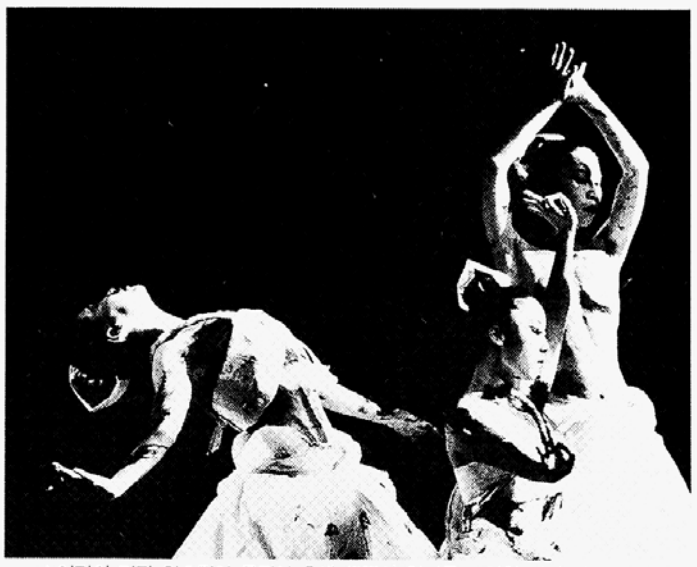
한 중 일 3국에서 흔히 남종화라 하는 수묵화는 과감한 생략과 여백을 특징으로 한다. 남종화라는 이름은 남종禪에서 비롯됐다. 걸림없는 심오한 선의 경지, 깨달음으로 가는 구도심을 묵적(墨蹟)으로 상징화시킨 것이 선서화다. 그림에서는 세부적 묘사보다 과감한 생략, 글씨에서는 기교보다 붓 흘러가는 대로 꾸밈없는 서법 등은 보는 이들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과 무언의 설법까지 느끼게 한다.

'다선일여(茶禪一如)' '선다일미(禪茶一味)'라는 말처럼 차와 선은 불가분의 관계로 불가에서의 차는 '각성'을 나 염불, 단전호흡으로 기를 온 몸에 보내면서 손으로는 결인법을 실시하는 선무는 무궁무진한 창의성까지 발휘할 수 있고 추는 사람은 물론 보는 사람까지 하나로 몰입된다. 이선옥·강만홍 교수 등이 선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고요함과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건강과 호신술까지 연마하는 선무도와 선체조도 근본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한 실천적 수행방편으로의 행선이다. 신라시대부터 불가에 전해내려온 선무도는 불교전통의 관법을 바탕으로 나한공과 〈역근세수경〉이 어우러진 것. 부드러운 움직임과 호흡의 조화를 체조로 응용한 선체조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법으로 참여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88년 김영동씨는 창작명상음악 '禪'을 발표했다. 예불소리와 염불소리를 배경으로 피리 가야금 생황 대금 등의 국악기를 사용하여 만든 '선'은 신비스러우면서도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각박한 세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잔잔히 감싸안아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범패와 국악 등을 이용한 '명상음악'이 하나의 장르처럼 되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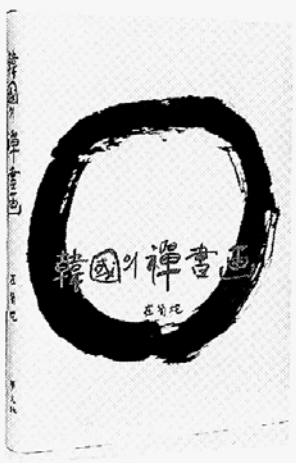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몸짓인 춤에 行禪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 선무, 사진은 이선옥 무용단의 '선무-바라밀다'

선 시 전법게·오도송·산거시등 다양
선서화 주로 수묵화…과감한 생략·여백
다 도 '禪茶一味'…화두 '끽다거' 유명
선 무 춤에 行禪의 원리 접목한 몸짓

한국 선서화 시대별 첫 집대성

최순택 교수 '한국의 선서화' 발간



최순택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선서화를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 시대, 그리고 근 현대등 시대별로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식적인 특성을 밝힌 올칼라집 〈한국의 선서화〉(학문사 刊)를 발간했다. 그동안 게송이나 선서에 관한 책은 많이 발표되었으나 선서화를 집대성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이책이 처음이다.

〈한국의 선서화〉는 먼저 △선종의 수용과 전개를 시대별로 간략하게 밝히고 선서화의 개념과 종교성을 설파했다. 이어 통일신라시대의 영업부터 고려 탄연, 조선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 시대별로 유명화가들이 그린 선종화와 글씨에 대해 양식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경허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근·현대 선서화는 만공·한암스님 문중, 석두선사 문중 등에서 중광스님까지의 기라성 같은 선사들의 글씨와 그림을 소개하며 걸림이 없는 내면세계와 그 심오한 경지를 고찰했다.

최순택교수는 "선서화에 내재된 선기(禪機)의 방사(放射)는 수행의 깊이와 정비례하므로 어떤 법문이나 선구보다 선사의 인간적인 수행의 오묘한 면모를 잘 알 수 있으며 널리 교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無'자 화두는 나로 하여금 분별을 끊게 하는 원동력

박영재 서강대교수·물리학

75년 세검정 불심원(佛心院)의 종달 이희익 노사를 만나 뵙고 '무(無)'자 화두를 받았다. 노사께서는 다만 이 '무'자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아랫배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내 생애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던 날이 수련대회에 참석해 7시간 정도 좌선을 했던 때로 기억된다. 간간이 '무'자 화두를 들었으나 불과 2~3분이면 화두는 오간데 없이 망상만 들끓었고 다리가 쑤셔서 언제 죽비소리가 울려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만 간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참선수행을 한 지 4개월, 종달노사께서 '무'자 화두의 경계를 대라고 다그치셔서 "근본"이라고 둘러댔다. 엉터리였다. 노사는 머리 속에 "'무'자란 이런 것이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힘을 주면서 '무'자를 떠올리고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스승에게 제시하라고 했다. 그렇게 점검을 받으면서 스승이 아니라고 하면 버리고 다시 '무'자를 참구했다.

이 '무'자 화두와 더불어 일년이 넘게 씨름하던 어느 날 대학교 선배로부터 한 미친사람이 어떤 스님으로부터 '나란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받아 들고 수행하다 드디어 마음이 열림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가슴 답답하던 것이 후련하게 뚫리며 '무'자 화두의 경계가 뚜렷해졌다. 그 후 이것이 수행의 밀거름이 된 동시에 나로 하여금 철저히 분별을 끊어 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과에 쫓겨 좌선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더 나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여 몸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잠시 흐트러졌던 자세를 쉽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다. 아무튼 화두와 한 몸이 되어 보라!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에서

"생각 떠오르면 철저히 검토 마음의 작용 깊이 탐색하자"

월슨 반 두센 美·정신과 의사

글을 쓰고 있는 내 손가락을 보자. 나는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론적으로 알지만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손가락이 연필을 잡고 종이 위를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그 움직임은 매우 빠르지만 마음속 말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마음속 말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지 지켜본다. '나'라는 존재는 바로 느낌·마음속 말·손가락 운동 등과 같은 체험의 합류인 것 같다.

합류는 경험이요 만남의 의식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을 체험하는 의식의 합류점이다. 개인은 유전 양친 문화 언어 학교 교육 생활환경 등의 합류점에 있다. 문제는 사람이 자아동일성을 어디에서 찾느냐이다. 무엇에다가 '저것이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아동일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모든 것임과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아동일성의 영역확장은 지혜의 뿌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체험에는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다음의 몇 가지 가능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1.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오를 때면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생각이 너무 빠르면 그 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면서 그 수백 가지를 검토해 볼 일이다. 그런 일에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검토한다는 것을 검토한다. 피곤을 느끼면 5분간 한 가지 생각만을 마음 속에 잡아 두도록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떠돌아 다니는 모든 장소를 기록해 볼 일이다. 그리고는 마음의 방랑에 선행하는 고백을 알아 보도록 노력할 일이다.

2. 여러분은 내가 자아동일성의 경계(boundary)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할 것이다. 만약 자아의 경계가 개방되어 있기만 하면 마음의 작용을 보다 깊게 탐색하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다.

3. 이런 일에 익숙해지게 되면 개방된 경계처럼 장애를 제거한다.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에서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 터 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특허로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갈근 구기자 대추 등 30여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濃酒)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감 누룹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있다 .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용 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한방식초(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멍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내용량 : 1.8ℓ (약0.6되)
음용법 : 1일2스푼(공복시 복용)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淸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름난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멍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强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내용량 : 4.2ℓ (약2되)
음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 격 : 30만원(2개월분)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卍 여래한방병원
▣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 • • • 佛紀 2542年 戊寅年 • • • •

부처님 法音이 온누리에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수석부회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 인 곡
상임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김 월 서
상임부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부 회 장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김 성 초
부 회 장 중앙승가대학교 총 장 방 지 하
부 회 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

이 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 혜 정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대 호
이 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정 혜 일
이 사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배 일 공
이 사 불 교 총 지 종 통리원장 총 지 화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 법 륜
이 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 무 진
이 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손 금 광
이 사 대한불교 은화종 총무원장 이 법 덕
이 사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 혜 우
이 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 대 화
이 사 한국불교 법화종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윤 송 정
이 사 대한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신 인 왕
이 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 일 오
이 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김 무 찰
이 사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이 대 산
이 사 대한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 청 붕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사무원장 권 성 우
이 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 혜 근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정 혜 창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김 능 관
이 사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이 지 성
이 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김 국 성
이 사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최 세 정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호법부장 김 성 관
이 사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이 사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김 회 정
사무처장 윤 자 월

▶ 사무국 :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4885/FAX 737-7872

대한불교종단진흥회

회 장 김 무 찰

명예회장 천 태 종 총무원장 전 운 덕
상임고문 총 화 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상임고문 한국법화종 총무원장 김 광 태
법률고문 수도변호사회 변 호 사 용 태 영

회 장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김 무 찰
부 회 장 조 동 종 총무원장 윤 송 정
사무총장 원 융 종 총무원장 송 보 인
이 사 법 상 종 종 정 우 연 담
이 사 법 화 종 총무원장 김 대 호
이 사 삼 론 종 총무원장 이 혜 공
이 사 진 각 종 통리원장 김 성 호
이 사 용 화 종 총무원장 이 범 덕
이 사 법 륜 종 총무원장 이 혜 우
이 사 대 각 종 총무원장 석 만 정
이 사 해 동 종 총무원장 이 송 산
이 사 미 타 종 사무총장 권 성 우
이 사 천화불교 교 정 이 회 수
이 사 진 언 종 종리원장 손 임 숙
이 사 조 계 종 삼화불교대학장 손 혜 인

▶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낙원도 150-1(파고다빌딩3층)
전화 : 02-766-4848, 5006
FAX : 02-766-5007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鄭寶城

司書室長 宋宗演

總務院長 洪印谷
副院長 金普眼 · 金智庵
中央宗會
副議長 金大雲 · 柳南坡
司正院長 金蓮雲
副院長 李白牛

■ 總務部長 李智性
■ 敎務部長 柳吁潭
■ 財務部長 禹慧空
■ 社會部長 片白雲
■ 糾察部長 玄守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전화 745-2030/FAX 745-6364

大韓佛教 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國星
敎務部長 邊春光
敎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李門德
社會部長 南宮道祓
糾正部長 朴德水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監查院
監查院長 朱正山
監查委員 李法山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煥泰
金剛佛敎大學學長 李祐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裵斗出

▶ 忠北 丹陽郡 永春面 柏子里 132-1
전화 0444-423-7100~8
FAX 0444-20-3399

大韓佛教眞覺宗

總印 覺海

總印司書室長 惠淨

【統理院】
統理院長 省超
總務部長 悔淨
財務部長 守性
局長 證光
文化社會部長 孝庵
局長 圓明
建設部長 惠明
局長 觀天

【宗議會】
議長 慧一
副議長 于勝
副議長 福善定

【查監院】
查監院長 眞堂
查監部長 義玄

【敎育院】
敎育院長 一靜
敎法部長 惠淨
敎育部長 觀證

【眞覺大學】
學長 碩峯
敎務局長 浩堂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FAX : 913-0755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금파 해수 대종사

원로의장 운 명

총무원장 대 호 포교원장 지 우
중앙종회의장 회 범

기획실장 월 강 사서실장 도 천
총무부장 법 찬 교무부장 법 흥
재무부장 보 현 사회부장 세 웅
감찰부장 법 산 의전부장 혜 륜
경호부장 도 정 교육부장 혜 각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
전화 : 02-762-2678, 764-2678
FAX : 02-747-5044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金大天

司書 金性眞

元老院長 李慧雄

總務院長 李泓坡
總務部長 金智攝 監察部長 金和嚴
敎務部長 黃法明 組織部長 李宗炫
財務部長 金鏡徹 布敎部長 鄭法性
社會部長 金性哲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金法華
事務局長 池法項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圓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3109
FAX : 02/763-5851

圓融宗(院)

宗正 靈山 一空
元老院長 黃法雲

總務院長 寶印 輔宇
副院長 崔法輪
總務部長 林普國
社會部長 具性道
財務部長 朴大月
規定部長 張體乘

宗議會議長 李平信
副議長 金善眞
規定院長 閔性雲
副院長 曺性觀
敎育院長 李白岩
副院長 釋正觀
布敎院長 韓和潭

宗正司書室長 林體觀

各市道 宗務院長

仁川廣域市 張體乘 慶尙北道 孫志觀
京畿道 車性印 全羅南北道 李井光
忠淸南北道 金體依 光州廣域市 李白岩
江原道 柳舞松 濟州道 韓眞聖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 2洞 704-39號
전화 : 02/857-5094
FAX : 02/859-1042

佛教總指宗

宗領 綠靜

統理院長 總持華
總務部長 知性
財務部長 善導願
社會部長 慧菴
敎政部長 圓滿願
法藏院長 曉岡
查監院長 圓峰
宗會議長 松霞
副議長 法靜

서울 · 경기 敎區長 鏡觀
충청 · 전라 敎區長 法水願
대구 · 경북 敎區長 修成
부산 · 경남 敎區長 義剛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FAX : 02)552-1082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종정 : 석봉
원로원원장 : 인현
중앙종회의장 : 성타
사정원장 : 능선
포교원장 : 대원
복지봉사원장 : 대경
불교예술원장 : 원표
연수원장 : 백담
총무원장 : 송산
부원장 : 법성
총무부장 : 경신
교무부장 : 진웅
사회부장 : 혜월
재무부장 : 보성
사정부장 : 상호
포교부장 : 법운
연수부장 : 담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전화 : 0331-262-1577,263-1353